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

2015년 제25권 제2호 · 여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5-02-02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5권 제2호(2015년 여름) Vol. 197

인쇄일·발행일 2015년 6월 30일

펴낸이 송철의

편집위원 남길임 · 이광표 · 주세형 · 진정란 · 최경봉

기획·편집 이승재 · 김형배 · 윤혜선

제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 정기 구독 신청 및 구독 소감, 건의 사항 등 문의

《새국어생활》 담당자 | (02) 2669-9719 | urimal365@korea.kr

차례

[특집]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국어 문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	3
김하수	

남과 북의 사전	25
한용운	

남과 북 공통 표기법의 조건	45
연구동	

말 다듬기와 어휘 사용의 실제	67
서정목	

국어 정보화의 방향	
— 문자 코드를 중심으로	97
박진호	

지금 이 사람

음성 인식을 넘어서는, 언어 인공 지능을 위하여

— 이윤근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장을 만나다 121

권창섭

문학 속 우리말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쓰는 동시 138

신현배

그분을 그리며

나의 영원한 스승, 허웅 선생님 149

김차균

세계의 언어 정책

다민족 다중 언어 국가 인도의 언어 정책 159

김도영

국어 산책

신문 언어, 《독립신문》에 길을 묻다 172

홍성호

국립국어원 소식 183

[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203

[특집]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국어 문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

김하수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그동안 우리말의 환경은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았고, 그대로인 듯 달라져 왔다. 지나간 시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모두 언어 문제로 귀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되도록 이 세상 문제와 언어 문제를 촘촘하게 꿰 보려 한다. 서술 방식은 연대기적 방식, 문제 중심의 방식, 인과 관계 중심의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섞어 썼다.

2. 분단 이전에서 분단까지

분단의 역사 70년은 분단 이전의 역사와 쉽게 분리되지 않는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 분단과 분단 이전이 서로 무관한 두 토막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분단 이전은 당연히 식민지 시대를 가리킨다. 한국은 식민 지배의 종결로 해방이 되었고, 해방은 동시에 분단을 불러왔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함께하기 어려운 상극이 마치 자연스러운 결합인

듯 지내 온 70년이기도 하다.

근대 사회의 식민지 역사에서 조선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
로 식민지가 된 곳이었다.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까닭은 조선 다
음에 식민지가 된 곳은 이란, 소말리아, 모로코 등 몇몇 보호령들뿐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조금 더 잘 버텼으면 식민지까지 되지
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식
민지 확장 경쟁은 끝나기 때문이다. “한 10여 년만 더 견딜 수만 있었다
면…….”이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는 무의미한 공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선 왕조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던 시대 변화는 폭력적으로 다
가왔다. 아니 다가온 폭력이 문제는 아니었다. 모든 사회적 변혁과 시
대의 변화는 폭력을 중요한 매개로 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내
전과 내란이 그랬고, 프랑스의 혁명, 독일의 혁명 실패와 유혈 사태가,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과 내전이 그렇다. 문제는 내부적 폭력이나 아
니면 외부적 폭력이나이다.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은 내부적 폭력
을 이용하여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으나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였
고, 결국 조선은 청, 일본, 러시아 등의 외부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식민
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내외의 폭력에 시달리던 즈음에 한국어는 드러나지 않게 근
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준비한 ‘언어적 근대’는 해방
과 분단 이후 남과 북을 잇는, 가늘지만 질기디 질긴 명주실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근대는 일단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갑오개혁(갑
오경장)’과 그에 따른 ‘열네 가지 큰 법(홍범 14조)’에 그 기본 형식을 담
고 있다. 그리고 이때 내린 칙령 제1호와 그다음 해의 칙령 제86호 9조
에 의해서 한글은 법적으로 ‘국문’이 되었다. 곧이어 독립협회의 기관지

로 출발한 《독립신문》은 무명의 소장 학자 주시경을 등장시켰다. ‘독립협회’는 애당초 반청(반중국)적 성격이 강했다. 그들이 말한 ‘독립’도 중국 천하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의 한 면이 영어로 편집될 정도로 서양 세계에 편향적이었다. 주시경이 개인적으로 어찌 언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가 놓은 주춧돌과 그 후예들의 활동은 근대 사회의 시민적 문화 권력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누는 충구 역할을 했다. 청일전쟁으로 청에게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물려받았다고 자부한 일본은 이것이 ‘대일본제국의 시작’이 아니라 ‘조선 근대화의 시작’이었음을 매우 뒤늦게 깨달았다.

근대 사회는 군주의 권한보다 시민의 권한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 시민은 폭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되어 있다. 그리고 오로지 ‘말’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언어화한 ‘법’을 기초로 법치 국가를 지향하며, 언어를 매개로 하는 대의 정치, 곧 의회 제도를 중시한다. 또 온갖 정치적 견해와 선전을 언어로 정리, 보도하여 ‘여론’을 조정해 나간다.

전근대는 신분과 계급이 명료한 사회였다. 그리고 신분과 계급은 세습되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이것을 ‘보편적 교육’으로 허물어뜨렸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수단으로 근대성을 갖춘 ‘언어’가 필요했다. 또 그 ‘언어’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선별된 사람들을 더 높은 단계로 진학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 고시를 시행해 권력과 이익을 재분배해야 했다. 이렇게 신분과 계급의 정당성은 사라졌고 언어를 매개로 하는 개인적 능력과 전문적 지식만이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시민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되었다.

식민 사회는 어떤 부문에서는 근대화를 촉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부문에서는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작용도 했다. 그래서 사회를 불균형, 비대칭, 불안정 상태에 빠뜨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렵게 했다. 식민 시대의 조선인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구나!’ 하는 의식을 잠시나마 가져 본 것은 3·1운동,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 같은 언어 운동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근대화의 선두 주자였던 서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일상 언어를 근대 사회의 소통 수단으로 삼았다. 그 언어들은 그만큼 이미 근대성을 갖춘 상태였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식민지가 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타자의 언어로 근대화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 사회의 형성과 소통 망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무척 느리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권력의 언어’ 구실을 해 본 적이 없던 한국어가 무척 짧은 시간 안에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유대인들의 솔로몬 이야기나 탈무드 또는 잠언서 같은 한국어로 쓰인 ‘지혜(智慧)의 서(書)’도 찾을 수 없어서 겨우 중국의 《채근담(菜根譚)》 정도를 결혼질하며 지내 왔고, 이집트인이나 티베트인처럼 《사자(死者)의 서(書)》로 영혼과 대화해 본 적도 없는 한국어였다. 그 언어로 쓰인 고전 문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전이나 법전을 가졌던 바도 없다. 위대한 서사시나 대하 희곡 한 편도 찾을 수 없는 처지로 근대 사회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기 짝이 없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초기의 국어학에는 불가피하게 학문의 성격과 사회 운동의 성격이 혼재해 있었다. 그로 말미암은 학술적 태도와 민족 문제에 대한 감응적 태도는 아직까지 한국 학계의 반점처럼 남아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만의 특성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겪는 모든 사회가 거치는 일종의 성장통이었다. 미국의 건국사가 청교도 신앙 문제와 얽혀 있듯이, 영국의 근

대화가 엘리자베스 1세의 지엄한 애국심과 튜더 가문의 반가톨릭 정신이 섞여 이루어졌듯이, 프랑스 애국주의 근저에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이 곁들여 있듯이, 그것은 식민지 조선이 앓던 홍역이 남긴 자국이다. 당시에 국어학자들은 우리의 언어 문제를 논하면서 ‘훈민정음’과 ‘세종’을 호출해 냈으며 대중은 이에 화답했다. 한국어 연구와 한글 운동은 이렇게 합체를 이루었다.

3. 언어와 권력

해방의 그 순간, 민족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임시정부는 허둥지둥 귀국하여 군정청 권력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부의 사회운동 세력들도 숨을 잠시 멈추거나 고르고 있어야 했다. 오로지 감옥에서 금방 나온 조선어학회의 일꾼들만이 이미 준비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언어 규범이었다. 비록 아직 어설픈 규범이었지만 급한 대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고, 공문서를 적어 나갈 수도 있었다. 출판물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당시에 긴급히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과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조선어학회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역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우리의 언어 규범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것이 주시경이 1896년 《독립신문》에 관여하고 1907년 국문연구소에 참여하면서 남긴 자취를 이어받은 후예들이 1921년에 일군 ‘조선어학회’가 꾸준히 준비해 온 언어적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해방 이후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서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

았다. 양쪽의 새 정권은 언어의 권력이 자신의 주변에 있지 않다는 것이 펍 불편했던 모양이었다. 북에서는 부수상인 김두봉의 주도 아래 〈조선어신철자법〉이 등장했다(1948). 남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간소화 하자는 주장이 대통령의 주도로 등장했다(1949). 그 뒤 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어신철자법〉이 사문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어렵פות이 심각한 정치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남에서는 1955년까지 시간을 끌며 이른바 ‘한글 파동’이라는 시사 용어를 남기기도 하였다.

조선 왕조가 내부 폭력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외부 폭력에 무너졌듯이 남과 북의 두 정권도 내부 폭력으로 충돌했으나 그 결과는 국제적인 전쟁으로 번졌다. 조그마한 국토에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을 능가하는 여러 나라의 지원군이 뛰어 들었다. 반세기 만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 것이다. 그리고 60년 남짓 분단 체제에서 정상인 듯, 비정상인 듯 공존하고 있다. 한국적인, 그리고 이제는 별로 새롭지 않은 ‘뉴 노멀’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전쟁 이후 양쪽은 진정 새로운 건국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남쪽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초기에 ‘한글전용법’을 제정하였다. 달랑 한 줄짜리 법이었지만 1894년에 공포된 ‘열네 가지 큰 법’과 국문에 관한 칙령 이후 50여 년 만에 – 비록 언어가 아닌 문자 사용에 대한 규정이었다 하더라도 – 우리의 언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해방 직전에 조선어학회가 준비하다 중단된 큰사전 편찬 사업은 해방 이후에 계속되어야 했다. 맞춤법의 관리와 손질, 국어 교육, 사전 편찬 등의 막중한 대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은 국가

는 물론 일반 민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한글학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최현배는 문교부 편수국장을 맡아 교과서 편찬에 관한 책임을 맡았다. 교과서 편찬권은 또 다른 언어 권력이 가능했음을 보여주었다. 순우리말 어휘가 교과서에서 오래된 어휘를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의 추진 세력이 그 의미의 중차대성과 예민함을 알았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를 입히는 일은 상당한 역풍과 반동을 불러왔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구조 재편에 순순히 물러나는 낡은 세력은 없는 법이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이 되어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되면서 국어학계에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나타났다. 문법 용어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실 국어학계의 이와 같은 논쟁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해방 이전에 맞춤법 문제를 두고도 매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럴 때마다 조선어학회는 정면 돌파를 해냈다. 그만큼 역량이 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의 마지막 악수인 ‘국어 상용화(일본어 강요)’와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학회에 정당성을 주었다. 그 정당성은 앞에서 말한 언어 규범에 대한 관리권을 모두 이의 없이 인정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의 한글학회는 이미 해방 직후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일부 유능한 구성원들이 북으로 넘어갔다. 국토와 정권만 분단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어학회도 분단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이름도 한글학회로 바꾸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적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역량이 소모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고등교육 기관이 많아지면서 식민지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성격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겼고, 여러 신문과 잡지가 그들에게 견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어학회가 해방 이전에 가졌던 정예 논객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담론 싸움의 환경이 이미 시민 사회적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학회의 규범 장악을 불만스러워했던 세력은 ‘과학’의 담론으로 무장했다. 자연스럽게 한글학회는 ‘민족’의 담론으로 맞섰다. 언어 규범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과학’과 ‘민족’이 싸웠다는 것은 이제 와서 보면 하나의 희극처럼 보인다. 주권 국가의 언어 규범은 당연히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당시의 논쟁 수준은 그랬다. 민족 문제를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였고, 과학 문제를 이야기하면 비민족적인 것처럼 보였다.

돌이켜 보면, 한글학회가 조선어학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 무리 없이 언어 규범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위치를 확보하려 했다면 당시의 변화된 사회 환경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과의 민족적 갈등이나 분노가 학회에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전략과 전술이 달라져야 했다. 시민 사회에 적응해야 했고 시민적 지도력이 필요했다. 뒤늦은 후회이지만 학술 조직과 시민운동 조직으로 나누거나 별개의 활동 전선을 가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진단만 내릴 뿐이다. 민족 담론도 민족 분단의 문제를 원활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속전속결로 치달은 새로운 순우리말 어휘의 보급은 짐작컨대 예상보다 더 많은 적을 만들었을 듯하다. 새로운 어휘가 교과서에 실릴 때마다 구세대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자신의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였

겠는가? 그 틈새를 ‘조어론적으로 비과학적이다.’라며 공격을 해 대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기 쉽다. 사실 조어론은 과학이라기 보다는 언어적 인습에 더 가깝다. 그런 와중에서도 조어론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다리꼴, 마름모꼴, 제곱’ 등이 살아남은 것이 실로 대견하기만 하다.

4. 국가가 앞장서다

결국 1960년대 들어서 문법 용어를 많이 알려진 한자어 용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우리말 용어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부 주도로 판가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10여 년 동안 언어 규범 주도권을 가졌던 한글학회는 그 권위를 잃게 된다. 달라진 환경에 전략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그 틈새를 국가 권력이 파고 들어온 것이다.

역시 때늦은 조언이지만 용어 문제를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나 하는 언어 형식을 둘러싼 다툼처럼 보이게 한 것이 안타까운 패착이었다. 언어 형식을 넘어 ‘개념’ 논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었다. 한국어의 형용사를 유럽계 언어의 형용사와 과연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지, 한국어에 대명사가 독립적인 품사 구성 능력이 있는지, 의존 명사가 겨우 ‘의존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통사적 영향력이 의외로 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은지 등 ‘과학적 논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나를 떠나 그리 간단하게 ‘다수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학문과 언어 발전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점을 허무하게 흘려보낸 느낌이다.

1960년 한국 사회는 대중이 분노하면 지도자를 갈아 치울 수 있다는

큰 경험을 한다. 세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러한 경험을 한 지역은 거의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한국말은 그 억양이 매우 이상했다. 그러나 모두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워낙 영어를 잘해 그런 것이라고들 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의 첫 번째 통치자가 식민지 지배국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통령과 작별함으로써 국민은 당시의 새로운 정치적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적 자유에는 활발한 자기표현이 뒤따르는 법이었다. 수많은 시위가 잇따랐다. 분단 극복을 위한 주장도 많았고, 욕구 불만의 언어도 많이 분출했다. 또 분열도 극심했다. 2년을 겨우 넘기며 또다시 정변을 맞았다.

이때부터 국가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에게 할 말도 많아졌다. 그래서 1961년 말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창설되었다. 그전에도 작은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었는데(종일 방송이 아니었음) 화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모르면서도 미군 방송(AFKN)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 후에 문화방송이라는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기면서 국민은 시사 정보 및 오락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은 또 광고도 방영했다. 산업화 과정이 홍보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트였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자 일본인 관광객들도 자주 보게 되었고, 특히 일본계 회사가 많아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났다. 일본어 학원이 많아졌고, 대학에 일본어 학과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일 교포’라는 말은 부유층을 일컫는 말처럼 해석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기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스포츠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레슬링, 권투, 여자 농구와 같은 종목에

서는 일본과 치열하게 싸웠다. 이기면 영웅이 되었고 지면 손가락질을 받았다.

산업화는 새로운 문물을 불러들였다. 자연히 새로운 어휘도 많아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쇼, 코메디, 탈렌트, 스타’와 같은 말들이 나타났고, 광고에서도 갖가지 의약품, 드링크, 가정용품, 옷가지 등의 유형과 품목들이 소개됐다. ‘메리야쓰’니 ‘와이샤쓰’ 같은 말이 그 틈바구니에 있었고, ‘페인트’나 ‘머플러’ 같은 말이 구닥다리 같은 ‘뽕끼’와 ‘마후라’를 대체했다. ‘하이힐’은 ‘뽕죽구두’와 ‘하이루’를 퇴치해 버렸다. 어느덧 ‘반도호텔’은 ‘롯데호텔’로, ‘반도극장’은 ‘피카디리극장’으로, ‘수도극장’은 ‘스카라극장’으로 품격을 높였다. ‘위커힐’은 품위 있는 외국인들을 모시는 고급 접대 장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통속어에는 수많은 일본어 어휘들, 아니면 망가진 일본어들이 혼하게 굴러다녔다. 거리에는 ‘쓰리꾼’이 횡행했고, 권력가에게는 ‘와이로’를 먹이거나 ‘사바사바’를 했다. 정치인들은 정적을 ‘사꾸라’라고 비난했다. 일본어를 한자어로 읽으면 의젓한 공용어가 되었고, 일본어 발음으로 받아들이면 비속어가 되는 세상이었다. 어찌 되었건 이 모든 것은 북쪽 정부에서 남쪽의 언어 환경과 상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문화어’를 선언하게 된 빌미가 된다.

5. 남과 북의 정책들

한편 북쪽에서는 광복 직후부터 준비된 언어 정책이 숨 가쁘게 돌아갔다. 정부를 수립하자 빠르게 문맹 퇴치 운동에 들어간다. 이 운동의 귀결은 한자 폐지이다. 한자를 놔 둔 채 문맹 퇴치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한자를 폐지하자면 수많은 동음이의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또 어휘 순화(말 다듬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에서는 〈조선어 철자법〉을 시행함으로써 남과 북의 언어 규범에 큼직한 틈바구니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규범의 차이를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규범의 차이를 만들어 낸 태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철저히 형태적 합법칙성을 근거로 체계화하려 했고, 남에서는 조음적 현상을 참조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체계에 비해 북쪽에서는 러시아어 어휘를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북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갖추어 오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단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1950년대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이 벌어지자 소련군이 진입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우방인 소련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인도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친소련, 친사회주의적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주체’를 선언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한다. 이후 주체사상을 정치 체제의 중요 고리로 삼게 되었다.

결국 1966년 5월 14일에 작성한 것으로 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글에서 남쪽 ‘표준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제창했다. 그리고 이어 문화어 규범을 제정하여 그동안 사용해 온 조선어 철자법 체제를 다시 정비하여 사이표(')와 같은 보조 수단을 폐지했다.

북의 문화어 정책에 대한 반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종의 정치적 대응처럼 해석되는 조치가 남쪽 정부에서 시도되었다.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물론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후에는 다시 한자 교육을 허용했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었다. 이로써 ‘사실상’ 한자 교육은 서서히 고사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미 1966년에 창간한 새로운 문예 비평 잡지 《창작과 비평》이 한글 전용에 가로쓰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 이후 한글 사용과 가로쓰기가 오늘날까지 한 번도 우물거림 없이, 그러나 천천히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자’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1960년대 초반에 문법 용어 문제로 한글학회 세력은 큰 상처를 입었고, 1970년대 초반에는 스스로 훨씬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한자 친화적인 이들이 자기 한계에 부딪혔다. 이 같은 상황은 양쪽 모두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초기에는 한글학회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다가 실패하고 언어 규범을 관리하는 우위를 위협받게 되었으며, 한자 친화적인 견해를 가졌던 이들은 1960년대에 점점 성숙해지는 시민 세력에 공감을 주는 감응력을 갖지 못했다.

폭발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중산층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소모를 줄여 주어야 했다. 이에 호응한 교육 정책이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던 입시 제도의 축소와 완화였다. 1960년대의 입시 과목 축소,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대학 입시 특전 부여, 그리고 1970년대 추첨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며, 주변부의 삶에서도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꿈을 키워 주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에 ‘한자’를 필수 과

목으로, 그리고 입시에 반영시켜 한자 교육으로 시민 사회의 주력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에 가까웠다. 문법 용어의 논쟁에서 한글학회가 물러서게 된 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한 것이다. 승리는 새로이 일어서는 시민 사회의 것이었고, 그들의 눈치를 정확하게 읽은 정책 담당자의 몫이기도 했다.

6. 냉전

전쟁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서로의 체제가 날카롭게 부딪치는 냉전 시기였다. 그러한 날카로움은 언어를 다루는 문필가들의 작품을 정치적인 기준으로 사법 처리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것을 글이 화를 불러왔다는 뜻으로 ‘필화 사건’이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언어 통제가 이루어졌고, 사상이나 이념을 일컫는 표현이나 의미는 삼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인민, 동무, 주석’과 같은 말들은 매우 거북한 단어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자유, 아가씨’와 같은 말들이 삼가는 어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의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남과 북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다. 무장 군인이 침투하기도 했다. 이들을 ‘공비’라고 불렀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남쪽 사회에 ‘예비군’이라는 잠재적인 군사력 확대와 대학의 군사 교육 시행 등을 불러왔다. 임계점을 모르는 냉전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싸늘하기만 하던 남과 북의 한랭 전선은 1972년 7·4공동성명으로 삼시간에 뜨거운 현안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또 다시 서로 험악한 관계로 돌아갔다. 행여나 했던 희망은 속절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양측

정부는 채길 것을 채겼다. 북에서는 이때 ‘사회주의 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했고, 남에서는 ‘유신헌법’으로 체제를 바꿨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때 북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공화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현실화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달리 본다면 전쟁의 가능성을 대폭 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양 말 중심의) 문화어의 의미도 살린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의 문화어를 그리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분단을 정당화하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공헌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유신헌법도 비민주적인 조항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헌법에 ‘통일’ 조항을 처음 집어넣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휴전선 북쪽에는 소탕해야 할 일종의 ‘반란 세력’이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었지만 영토 조항과의 모순을 무릅쓰고 ‘통일’ 조항을 삽입해 양측의 지향점을 생산적으로 바꾸었다.

1980년을 전후해 남쪽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동기에 빠지게 된다. 정치권도 급격히 재편되었다.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동력이 오로지 ‘올림픽’에 맞추어졌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개입 이후 뒷감당을 못하면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시비하며 모스크바 올림픽과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하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가장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 주었다. 휘청거리던 소련은 1989년 동독의 붕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1991년 남과 북은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한다. 냉정하게 본다면 통일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분단을 영구화할 위험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이 사실상 별개의 국가를 지향했음에도 일정한 계기에 모든 현실적 장애를 무효화하면서 통일을 성취한 예를 보더라도 그리 비관적

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또 이 기간을 겪으면서 남쪽 사회에서는 북쪽에서 그동안 간행했던 수많은 언어 연구서들이 복간되었다. 덕분에 반세기 가까이 절연되었던 많은 북쪽의 책과 논문을 만날 수 있었고, 여기서 잊힐 뻔한 반가운 이름들을 다시 더듬어 볼 수 있었다. 이는 훗날 매우 의미 있는 산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남쪽에서는 언어 정책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1988년에 문교부가 주관하여 한글 맞춤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1933년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민간 주도로 유지되어 오던 언어 규범이 정부 주도로 전환되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조직화된 전담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규범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이지만, 반세기 동안 이끌어 오던 민간 주도의 역량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 시기에 문교부 산하 학술원에는 국어연구소가 생겼고, 이것이 1990년 문화부로 이전되면서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거듭났다. 이 기관은 후에 ‘국립국어원’으로 이름과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7. 냉전 체제 이후

이즈음 남쪽의 경제는 급성장했다. ‘삼저호황’이라고 하여 달러 가치, 석유 값, 금리 등이 낮은 수준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지속된 것이다. 이 시기를 잘 보낸 남쪽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한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또는 호랑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문화혁명의 후유증 치유에 여념이 없었던 중국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경제 성장도 성취한 남쪽은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권을 향해 이른바 ‘북방 정책’을 시도했다. 반공의 최전선에서 대담하게 유연한 정책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과 중국의 연변 자치주에 거주하던 ‘재중 동포’들이 국어학자들의 조명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주거나 문화적 동질감과 유대 의식을 강화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언어 규범이 문화어에 가깝다는 이유로 계몽과 개조의 대상으로 삼고 말았다. 그들이 70여 년 내지 100여 년을 사용했던 ‘모어’의 정당성을 오로지 1936년에 사정된 표준어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다룬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처했던 열악한 조건을 어떻게 의미 있게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 오만한 태도였다. 그동안 그들이 일구어 놓은 성과, 예를 들어 문학 작품, 연극, 방송 자료, 노래, 신문과 잡지, 교과서, 민담 자료 등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약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남쪽 사회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 관계를 보게 되었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도 자신 있게 사용했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시장의 자유화 문제를 대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언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일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이 되어 교육부는 1995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1997년부터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했다. 문화부도 뒤이어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토대 구축에 힘쓰다가 2001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으로 발전시켰다. 또 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2012년에는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어 해외의 한국

어 교육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게 되었다. 2015년 현재 54개국 130군데에 세종학당이 연결되어 있다. 초기에는 조직망 확대에 주력한 까닭에 앞으로는 교육 수준 향상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호황 이래 견잡을 수 없이 팽창에만 급급하던 남쪽 사회의 경제는 1997년에 파열음을 내고 말았다. 수많은 서민들의 희생 아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뒷수습을 한 정부는 눈앞에 닥친 2000년대를 국민의 기대 속에 맞이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밀레니엄 기획단’을 출범시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사업 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세계화재단, 세종학당 등의 대규모 사업은 이러한 뒷받침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 세계화의 거친 풍랑에 놀란 마음과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으로 한때 영어를 미래의 공용어로 삼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덕분에 ‘영어 교육 특구’니 ‘영어 마을’이니 하며 외국어 교육 문제가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이윤 추구의 수단처럼 비치지면서 제대로 된 영어 공교육에 상처만 남겼다.

8. 다시 만남

1990년대는 또한 남과 북의 학자들이 언어 문제를 둘러싸고 의미 있는 만남을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4년부터 한국어정보화회는 연변에서 북의 학자들을 만나 여러 번 말문을 텃다. 1996년에는 국립국어원이 중국의 창춘(長春)에서 북의 학자들과 만난 일이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에 베이징에서 북의 사

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여건이 닿는 대로 만남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연결 고리를 자청해 주었던 재중동포 학자들의 소문 없는 공헌은 훗날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할 진정 값지고 고마운 일이다.

이때부터 남과 북의 언어 정책 담당자들은 작은 협력 사업부터 미래를 꿈꾸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 데는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큰 힘이 되었다. 소박하게 서로의 언어 자료를 교환하기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함께하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 가다가 2004년에는 민족의 언어 유산을 함께 정리하고 고유어의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말에는 남과 북의 방언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한국어가 어떠한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한 토대 위에 표준어가 결정되었다는 것도, 방언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도, 또 한국어(조선어) 사용자라는 범주를 설정한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탓이다. 실학자 가운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우리의 산하를 실증적으로 담아본 것으로 중요했고,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조사 전문가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큰 규모로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전면적인 방언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14년과 1924년에 일본인 학자 오구라 신페이가 조선어 방언을 조사했다. 오늘날 우리의

방언 연구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조사는 매우 허술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우편물을 이용한 조사로, 이러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단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 첫 획을 그었다는 의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에는 몇몇 학자들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좀 빈약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1980년 당시 정신문화연구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한 광범위한 방언 및 민담 조사는 훌륭한 학술 자료를 남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쪽의 자료뿐이고 북쪽의 자료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2004년에 남과 북이 합의한 방언 조사는 자못 규모가 큰 편이었다. 분단된 남과 북만이 아니라 소수의 지점이지만 중국의 동북 지방과 중앙아시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만 제대로 조사되어도 우리의 언어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법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또 학문 외적인 몇 가지 문제가 일을 더욱더 더디게 만들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참을성을 요구한다.

2007년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또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겨레말사전의 편찬을 위한 인적 조직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통일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것이다. 원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직이었으나 여러 가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운영 기간이 연장되었다.

분단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스산하다. 그만큼 비정상화의 내면화가 심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실낱 같은 공동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더욱 질기게 하고, 그간의 온갖

문제점과 장애물의 의미를 곱씹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은 내면화되었던 문제를 외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면화된 분단 문제를 외면화하여 각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의식적인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나간 100여 년, 또 해방 70년을 곱씹을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는 ‘잃어버린 100년’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해진 100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 고영진·김병문·조태린 편(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소명출판.
- 국립국어원(2011), 《국립국어원 20년사》, 국립국어원.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민수(1989), 《증보판 북한의 국어연구》, 일조각.
- 김민수(2007), 《현대어문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병문(2000), 말과 글에 대한 담론의 근대적 전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병문(2011), 《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 김하수·이승재(2005), 남북 언어, 국립국어연구원(2005) 《국어 연감 2005》, 274~306, 국립국어원.
- 박용규(2012),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한글학회.
- 연세대 근대한국학 연구소(2013), 《한일 근대 어문학 연구의 쟁점》, 소명출판.
- 오대환(2009),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정재환(2006),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 간소화 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재환(2012),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한글학회(1981), 《50돌 뒤 10년의 한글 학회 발자취》, 한글학회.
- 황선영(1998), 탈식민지화 과정에서의 언어적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남과 북의 사전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

1. 사전,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

우리 겨레는 남북으로 갈라져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67년을 교류 없이 지냈다. 그 결과 남북의 겨레는 사유 방식이나 생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작지 않은 차이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로 비유될 만큼 언어에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시대상이나 사회상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1) 2010년 남녘에서 태어난 김철수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어 철수는 만 1세부터 3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였고, 2017년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2023년에 3년제 '중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에 3년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9년 동안은 '의무 교육' 기간이다. 만약 철수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만 18세가 되는 2029년에 공장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수'를 하거나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2) 2010년 북녘에서 태어난 김철수

어머니가 ‘기업소’에 다니고 있어 철수는 만 1세부터 3년 간 그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올해 2년제 ‘유치원’에 입학하여 현재 ‘낮은 반’에 다니고 있으며, 2017년에 5년제 ‘소학교’에 다니게 된다. 2022년에는 3년제 ‘초급중학교’에 입학하고, 2025년에는 3년제 ‘고급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포함하여 12년 동안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만약 철수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만 17세가 되는 2028년에 곧장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나 직장에 배치될 것이다. ‘재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곧장 입대할 경우 27세까지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김철수는 앞으로 얼마나 다른 낱말을 쓰면서 살게 될까?¹⁾

이 글에서는 분단 이후 남과 북에서 각기 간행된 사전들을 간략히 개관한 후, 대표적으로 남측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을 비교하여 남북의 어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1), (2)에서 ‘ ’로 표시한 낱말은 남과 북의 어느 한쪽에서만 쓰이는 낱말이거나, 남북에서 함께 쓰이더라도 의미에 차이가 있는 낱말들이다.

2. 남과 북의 사전

우리말 표제어에 우리말 풀이를 시도한 최초의 사전은 조선광문회의 《말모이》(1911, 미간)²⁾이다.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등이 주축이 되어 1911년부터 편찬하던 사전인데, 안타깝게도 책으로는 출판되지 못했다(이병근 2000: 83~110). 1911년은 한일병합조약(1910)으로 국권을 잃은 다음 해였다. 그 시기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조선어에 일본어 뜻풀이를 보인《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편찬을 시작했고, 조선광문회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말모이》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925년에 드디어 우리말 표제어에 우리말 풀이를 한 최초의 국어사전인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을 심의린이 출판했다. 이 사전은 일제 강점기의 보통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 사전으로 6,106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한자 자전이 붙어 있다(박형익 2005 참조).³⁾

이후 1938년 문세영이 《조선어사전》을 간행했다. 이 사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표기법을 따른 최초의 사전이며, 약 10만 개의 어휘를 수록하였다.⁴⁾ 문세영은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증보

2) ‘말모이’ 원고를 보면 동사나 형용사 표제어에 기본형 어미 ‘-다’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예: 까다롭(엿) ㉠사람이술술하지못함 ㉡일이야릇하게어렵음.

3) 이 사전에서는 용언의 기본형이 아닌, 그 활용형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예: 주무십시외寢 침 자라는말의尊對.

4) 이 사전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기본형 어미 ‘-다’를 붙여 수록하였고, 풀이 항에서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을 제시하였으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띄어쓰기 규범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 까다롭다(ㄱ 變) ㉠-로워. -로운(形) ㉡엄하다. ㉢너그럽지 못하다. ㉣편협하다. ㉤이상

조선어사전》(1939), 《중등 조선어사전》(1948), 《순전한 우리말 사전》(1951) 등 여러 사전을 편찬하였다.

한편,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도 1929년에 사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과 ‘표준말’ 등의 기초 공사를 맡고,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는 낱말을 모아 그 뜻을 밝히는 체제로 나뉘었지만, 훗날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회 사업도 넘겨받게 되었다(《큰사전》 머리말 참조). 이 사전은 이극로, 이윤재, 이중화, 한징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42년에 초고가 완성되어 출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선어학회 사전(1942)이 터져 편찬자들이 투옥되고 수십만 장의 사전 원고를 일본 경찰에 빼앗기면서 간행되지 못했다. 해방 이후 천신만고 끝에 사전 원고를 찾아 1947년에 《조선말큰사전》 1권을 간행했으나,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진전이 없다가 1957년에 마침내 한글학회에서 전 6권으로 완간하였다. 이름도 《큰사전》으로 바뀌었다.⁵⁾

《큰사전》(1929~1957)은 우리 겨레가 대사전⁶⁾ 규모로 편찬한 첫

하다. ⑤성질이 쌀쌀하다.

5) 《조선말큰사전》 1권 출판 이후 완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예측한 김병제는 우리말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사전을 출판하였다. 《표준조선말 사전》(1947)이 그것인데, 이윤재의 집필 원고를 사위인 김병제가 엮은 사전이다. 이 사전은 《조선말큰사전(큰사전)》이 완간되기까지 실질적인 규범 사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김병제는 이극로와 함께 월북하여 북의 《조선말대사전》(1960~1962)의 완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6) 대사전(unabridged dictionary)은 일반어(一般語) 이외에 전문 용어나 신어(新語), 방언(方言), 속어(俗語)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표제어로 등재함으로써 한 언어 어휘의 총체를 기술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전이다. 일반적으로 ‘대사전’ 또는 ‘큰 사전’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한글학회의 《큰사전》과 구분하기 위해 ‘대사전’으로 부르기로 한다.

번째 사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큰사전》 머리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 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이 수치를 씻고자, 우리 문화 향상의 밑천을 장만하고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말 사전의 편찬 사업을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융희 4(1910)년부터의 일이었으니, 당시 조선 광문화에서 이 일을 착수 하여, 수년 동안 재료 작성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중략) 이 책이 다만 앞사람의 유산을 찾는 도움이 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의 이로운 연장이 되며, 또 그 창조된 문화재를 거두어 들여, 앞으로 자꾸 충실해 가는 보배로운 곳집이 되기를 바라 말지 아니한다. ……”

2.1. 남측의 사전

남측 대사전의 시초는 한글학회(조선어학회)의《큰사전》(1929~1957)이다. 16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대사전들이 간행되었다. 남측에서 편찬된 대사전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

《큰사전》 출판 이후, 남측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된 대사전으로는 민중서관에서 출간한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1961)이 있다. 대사

7) 남측의 경우 상업용 소사전과 중사전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방언사전·속담사전·전문용어사전 등의 선별형 사전들도 많이 출판되었다.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전으로서는 최초의 상업 사전이었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1961년 초판이 발행될 당시 20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1991년의 수정 증보판에서는 35만여 어휘를 수록하였다. 표제어로 일반어 외에 전문어를 폭넓게 수록하였으며,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 명사도 널리 수록하였다. 특히 1991년 간행한 증보판에서는 부록으로 ‘북한말 모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출판사의 《새 우리말 큰사전》(1974)은 신기철·신용철 형제가 편찬한 사전이다. 일반어 외에도 전문어, 인명, 지명 등 32만여 개의 어휘를 두루 수록한 대사전이다. 표제어 수에서 1970년대 최대 규모 사전이었다.

한편,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고시되면서 국어 대사전은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는 1990년대로 이어지는, 사전 편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세기말’이었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사전 편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도 상당히 해소된 시기였다. 또한 사전 편찬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건들이 갖추어진 최상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간행된 대사전으로는 금성출판사의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과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2)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국어대사전》은 34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일반어 외에 고어, 전문어, 인명, 지명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3,000개 정도의 북한어를 수록하였으며, 1988년에 개정된 어문 규범을 반영한 첫 대사전이었다.

어문각에서 간행한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은 44만여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대폭 정리하고 고유어를

최대한 보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사라져 가는 남북한 전역의 방언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인명이나 지명을 표제어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고어를 별책으로 제시한 점 등이 특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분단 이후 정부 주도로 편찬된 첫 대사전이다.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범을 철저히 반영하여 국어 생활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편찬했다. 일반어 및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 만 단어를 수록하여 표제어 수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다. 종이 사전 간행 이후 시디롬으로 제작·배포하였으며, 또한 사전 편찬 지침을 공개하여 국내 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해 새로운 지식, 문화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100만 어휘 수록을 목표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전은 웹 사전 형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인데,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한적이거나 사용자들에게 표제어의 수록 및 뜻풀이 수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은 38만여 표제어를 수록하였는데, 대학교에서 편찬한 첫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별하였고, 기존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 4만여 개를 새로 수록하였다. 또한 표제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어의 다양한 조어 양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남측의 국어 대사를 대강 추려 살펴보았다. 남측의 대사전은 모두 《큰사전》의 바탕 위에서 점차 표제어 수를 늘리고 뜻풀이를 깊고 더한 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에서 출판된 사전임을 알 수 있다.

2.2. 북측의 사전

남측에 비해 북측은 정부 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⁸⁾ 주도 로 사전을 편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사전을 편찬하였으므로 남측에 비해 대사전은 많지 않다. 북측의 주요 ‘뜻풀이 사전’⁹⁾을 출판 연도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소사전》(1956)은 분단 이후 북측에서 출판한 첫 번째 뜻풀이 사전으로 4만 1,927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특히 1954년에 새로 제정한 〈조선어철자법〉이 반영된 첫 규범 사전이기도 하다.¹⁰⁾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57)에서는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을 “현대조선어의 근간적인 어휘만을 반영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으면서 단어들의 정확한 사용, 정확한 발음 및 정확한 표기에 관한 지식을 알려 주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전신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이다. 1964년에 ‘과학원’이 ‘사회과학원’으로 개편되면서 예전의 ‘언어문학연구소’는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964년 이전에 편찬된 《조선어소사전》(1956)과 《조선말사전》(1960~1962)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이름으로 편찬되었고, 그 이후의 사전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9)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18~21)에 따르면, 사전은 ‘백과전서적 사전’과 ‘언어학적 사전’으로 나뉜다. ‘백과전서적 사전’은 표제어가 지시하는 인물, 대상, 현상, 사건 등을 설명하고 특징짓는 사전이고(예: 백과사전, 경제 사전, 철학 사전 등), ‘언어학적 사전’은 어휘와 그 뜻을 설명하고 풀이하는 사전을 가리킨다(예: 뜻풀이 사전, 방언사전, 속담 사전 등). ‘뜻풀이 사전’은 ‘언어학적 사전’에 속하는 유형으로, 어휘의 뜻풀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언어 행위 속에서의 사용’, ‘규범적인 것과 비규범적인 것의 구별’, ‘표기와 발음’ 등을 밝혀 제시하는 데 편찬 목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0)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두 차례 표기 규범 개정(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58)과 〈한글 맞춤법〉(1988)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네 차례의 표기 규범 개정 작업(〈조선어신철자법〉(1948), 〈조선어철자법〉(1954), 〈조선말규범집〉(1966), 〈조선말규범집〉(1988))을 거치면서 여러 면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규범과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조선말사전》(1960~1962)은 총 6권으로 간행되었으며, 표제어는 18만 7,137개이다.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각종 출판물에 쓰인 어휘를 폭넓게 수록하였고, 고어와 방언도 수록하였다.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59)에서는 이 사전에 대해 “높은 사상성과 함께 과학성과 체계성, 규범성이 확고히 보장된 뜻풀이 사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전은 《큰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월북 언어학자들의 주도로 편찬되었다는 점과 이후 북측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된 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조선말사전》(1968)은 5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 사전이다. 특히 1966년에 제정된 〈조선말규범집〉의 조항을 적용한 첫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고유어와 이중 체계를 이루는 한자말’, ‘새로 다듬어진 한자말’ 등의 한자어가 표제어에서 대폭 제외되었으며, 새로 선정된 문화어 어휘 3,300개가 수록되었다.

《조선문화어사전》(1973)은 《현대조선말사전》(1968)을 보완한 사전으로 6만 7,480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 사전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시행한 ‘어휘정리사업’¹¹⁾의 결과를 폭넓게 반영한 사전이다.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1981)은 13만 6,315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 사전이다.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2005: 64~64)에서는

11) ‘어휘정리사업’은 김일성의 두 담화문, 즉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와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를 발표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7)에 따르면, “단어체계를……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문의 어휘를 다듬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휘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혁명적으로 어휘정리사업을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여, ‘어휘정리사업’이 ‘어휘정화사업’과는 달리 어휘 체계 전반에 걸친 사업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 사전을 뜻풀이 사전 편찬에서 지켜야 할 ‘주체성’,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 ‘규범성’ 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 사전이라 평가하고 있다. 북측에서 간행된 이전의 사전에 비해 사회 정치 용어들과 고유어들이 폭넓게 수록되었고,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생겨난 변화와 발전을 반영한 어휘, 방언에서 찾아낸 좋은 말, 어휘 정리 과정에서 새로 다듬어진 말 등도 많이 수록되었다.

《한자말사전》(1989)은 옛 문헌과 중국 서적을 볼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찬한 사전이다. 약 9만 개의 한자어를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분단 이후 북측에서는 ‘한자어’, ‘외래어’, ‘낡은 말과 비문화적인 말’에 대한 ‘어휘정리사업’을 벌여, 많은 한자어들이 사전의 표제어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옛 문헌의 한자어나 중국 서적의 한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으로 이 사전은 부록에서 8,000개의 한자를 획순과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그 음과 훈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조선말대사전》(1992)은 33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대사전이다. 1987년에 개정된 〈조선말규범집〉의 규범을 반영한 사전이다. 정부 수립 이후에 사정한 문화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어와 고어 등을 대폭 수록하였다. 1만 5,000여 개의 성구·속담, 1만 2,000여 개의 본판말, 5만 2,000여 개의 학술 용어와 전문 기술 용어, 그리고 9,000여 개의 방언, 1만 5,500여 개의 고어를 수록하였다. 《조선말사전》(1962) 이후 다루지 않았던 고어(1만 5,500여 개)와 이두를 부록으로 다루었고, 방언도 부록으로 비교적 많이 수록하고 있다. 고유 명사 가운데 지명은 널리 수록했지만 인명을 수록하지 않은 점이 남측 대사전과 다른 점이다.

《조선말사전》(2004)은 15만 3,500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중사전 규모의 뜻풀이 사전이다. 머리말에 따르면 《조선말대사전》(1992)

편찬 이후 새로 생겨난 어휘를 수록하고, 근로자와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적 소양을 높일 목적으로 편찬하였다.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은 《조선말대사전》(1992)을 증보한 사전으로 약 40만 개¹²⁾의 표제어를 수록했다. 《조선말대사전》의 뜻을 깊고 더하였고, 새말들을 찾아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이상으로 북측의 뜻풀이 사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북측 사전은 《조선말사전》(1960~1962)의 바탕 위에서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측과 달리 모두 정부 주도로 편찬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남북 사전의 표제어 비교

남북의 어휘 체계에 차이가 생긴 주된 원인은 ‘사회 체제’와 ‘언어 정책’의 차이에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재수생……(남)/소학교, 직통생……(북)’ 등의 낱말은 남과 북의 교육 체제 차이에 따라 각기 생성된 낱말들이고, ‘무허가업소, 간접소비세……(남)/추진죄, 교화로동……(북)’ 등의 낱말은 남과 북의 법 체제 차이에 따라 각기 생성된 낱말들이다.

언어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거머리(남)/거마리(북), 거위(남)/게사니(북)’처럼 ‘규범어 설정 지역의 차이’¹³⁾에서 비롯된 것이

12) 북측에서는 남측과 달리 ‘속담’과 ‘성구(관용구)’를 표제어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약 40만 개’라는 통계에는 속담(1만 5,347개)과 성구(1,390개) 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속담과 성구를 더한 총 표제어 수는 36만 9,680개이다.

13) 남측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규범어를 정하였고, 북측은 평양 말을 중심으로 규범어를 정하였다.

있고, ‘노안(남)/늙은눈(북)’처럼 ‘언어 순화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또한 ‘양심(남)/량심(북), 깃발(남)/기발(북)’처럼 ‘표기법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휘 체계 변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분단 이후 여러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사용폐지사업’을 벌였고,¹⁴⁾ 아울러 일제 강점기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휘정화사업’¹⁵⁾도 벌였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했던 ‘일본어’와 ‘어려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많이 순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어휘 체계를 변화시켜 남북의 어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과《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의 표제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¹⁶⁾

14) 한자말을 모두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9~85)에 따르면, “한자말과 외래어라고 하여 무턱대고 다 정리하는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휘정리원칙을 철저히 세웠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예로 ‘지하투쟁’을 ‘땅속투쟁’으로, ‘중앙공업’을 ‘가운데공업’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되는데, 분단 이후 생성된 북측 낱말(《조선말대사전 증보판》에만 등재된 표제어)을 검토해 보면 전체(13만 8,472개) 대비 39%가 한자어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어려운 한자어를 정리한 것이지 모든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0~76)에 따르면, 어휘정화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 어휘와 표현 및 불필요한 외래어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일반 및 학술용어통일안(초안)>이 간행되었는데, 22개 분과 용어 중에서 6,000여 개를 정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1] 남북 사전의 표제어 비교¹⁷⁾

(단위: 개)

		《표준국어대사전》 (1999)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006)
표제어	주표제어	437,865 (북한어 66,460개 포함)	313,198
	부표제어	68,411	39,745
	계	506,276	352,943
한쪽 사전에만 있는 말		228,474	138,472

《표대》의 총 표제어 수는 50만 6,276개인데, 이 중 ‘북한어’ 6만 6,460개를 제외한 43만 9,816개의 표제어가 남측에서 쓰이는 낱말이다.¹⁸⁾ 43만 9,816개의 표제어 가운데 남측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22만 8,474개로, 전체 표제어 수(43만 9,816개) 대비 51.9%에 이른다.

16) 이 두 사전은 남과 북의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편찬한 사전이고, 표제어 또한 최대 수로 한 사전이어서 남북 어휘 차이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앞으로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표대》로,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은 《조대》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17) 이 글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해 놓은 《표대》와 《조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를 냈다. 이운영(2002: 36)에 따르면 《표대》의 총 표제어 수는 50만 9,076개인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품사 통용어나 다의어 등의 통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어를 예로 들면 이운영(2002)에서는 7만 2,063개의 표제어를 북한어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북한어를 포함하고 있는 다의어(가랑비: ① 가늘게 내리는 비.……. ② 『북한어』가랑가랑 맺힌 눈물…….)’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표 1]에서는 ‘남측 뜻풀이가 전혀 없는 표제어’만을 북한어로 보았기 때문에 이운영(2002)의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대》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어서 통계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오차는 이 글의 논의 전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18) 《표대》에는 ‘북한어’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어’는 ‘남측 낱말’이 아니므로, 남북 표제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남북의 사전 표제어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북측에서는 52% 정도의 남측 낱말을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대》의 총 표제어 수는 35만 2,943개이다.¹⁹⁾ 이 가운데 북측 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13만 8,472개로, 전체 대비 39.2%에 이른다. 남북의 사전 표제어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남측 사람들은 39% 정도의 북측 낱말을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대》와 《조대》에만 각기 등재된 표제어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1만 7,035개이다.²⁰⁾ 이 중 《표대》에만 등재된 일반어는 7만 5,635개이다. 그리고 《조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7만 1,860개이다. 이 중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는 10만 1,247개이다.²¹⁾ 《표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1%가 《조대》 일반어와 동일하고, 《조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7%가 《표대》 일반어와 동일하다.

《표대》에만 있는 일반어 가운데 고유어로는 ‘군걱정(←杞憂), 말맛(←〈프〉nuance)……’처럼 외래어를 정책적으로 순화한 예도 있지만, ‘달동네, 뜯잠, 숯불갈비……’처럼 사회상이 반영되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낱말들이 대부분이다. 한자어로는 ‘만화방(漫畫房), 배낭여행(背囊旅行)……’ 등이 있으며, ‘룸메이트(roommate), 리더십(leadership)……’처럼 영어권 외래어가 직접 유입된 낱말도 있고, ‘네글리제(〈프〉

19) 《표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속담’과 ‘성구’를 표제어에서 제외하였다.

20) 《표대》에 수록된 ‘전문어’, ‘지역어’, ‘은어’, ‘고어’를 제외한 수치이다.

21) 《조대》에만 수록된 일반어가 더 많은데, 이는 《표대》에서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는 ‘정치 용어’, ‘동식물 용어’ 등을 《조대》에서는 일반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표대》와 《조대》 어느 한쪽 사전에만 등재된 표제어의 유형별 분류
(단위: 개)

사전 분류	《표대》에만		《조대》에만	
일반어	75,635		101,247	
	고유어	15,801	고유어	34,997
	한자어	35,309	한자어	35,284
	외래어	2,022	외래어	533
	혼종어 ²²⁾	17,870	혼종어	28,506
	비규범어	4,633	비규범어	1,927
전문어	126,232		25,726	
	고유어	7,663	고유어	3,052
	한자어	75,810	한자어	12,783
	외래어	18,267	외래어	753
	혼종어	22,672	혼종어	9,138
	비규범어	1,820	비규범어	0
지역어	17,131		4,405	
글체			43(한자어 37)	
말체			625(한자어 83)	
낱은말 ²³⁾			5,813(한자어 5,783)	
가표제어 ²⁴⁾			170(한자어 60)	
은어	454			
옛말(고어)	9,022		443	
계	228,474		138,472	

22) 이 글에서 혼종어(混種語, hybrid word)는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 등 ‘둘 이상의 언어권 낱말(또는 형태소)이 결합한 복합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북의 신어에서 혼종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이 글에서는 ‘혼종어’를 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négligé), 미네젱거(<독> Minnesänger)……’처럼 비영어권 외래어가 직접 유입된 낱말도 있다. 또한 ‘빠꾸(<일>bakku < <영> back), 공구리(<일>konkurito < <영>concrete)……’처럼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외래어도 상당수 있다. 한편, 《표대》에만 등재된 일반어 가운데 혼종어로는 ‘얼음냉수(←冷水), 연잎쌈(蓮-)……’처럼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 고유어’ 구성도 있고, ‘다이내믹하다(dynamic-), 루스하다(loose-)……’처럼 ‘영어+고유어’ 구성도 있으며, ‘가두데모(街頭+<영> demonstration), 가십난(gossip欄)……’처럼 ‘한자어+영어 / 영어+ 한자어’ 구성도 있다. 비규범어로는 ‘게으름장이(→게으름쟁이), 곱간(→곳간)……’ 등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표기 규범에는 위배되지만 언중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들이다.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의 총수는 10만 1,247개이다. 이 가운데 고유어는 3만 4,997개로, 일반어의 총수 대비 34.6%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대》에 비해 고유어 비중이 14% 이상 높다. 이는 1946년 이후 ‘한자말정리사업’과 ‘어휘정화사업’ 및 ‘어휘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남측에 비해 ‘정책적으로 순화한 고유어’가 많아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정책적으로 순화한 ‘먹는물(←음료수), 먼거리(←원거리), 손기척(←노크)……’과 같은 고유어들이 있고, ‘긴숨, 범벅이말, 늦은겨울……’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고유어들도 있다. 한편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에는 ‘다리힘, 새세상, 먹는물,

23) 《조대》에 ‘낡은말’은 ‘현대성을 잃고 이미 낡아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휘 부류’로 정의되어 있다.

24) 《조대》에서는 ‘비애프의 공식’, ‘서울에서 뽕맛고 안성고개 가서 주먹질한다’와 같은 ‘구(句)’나 ‘속담’을 수록하기 위해 고유명사 ‘비애프’, ‘안성고개’ 등을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이런 표제어에는 뜻을풀이를 제시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가표제어’로 명명하였다.

먼길……’처럼 남측 기준으로 보면 ‘구(句)로 볼 수 있는 표제어’가 많이 있다.²⁵⁾ 또한 남측 기준으로 보면 ‘전문어로 볼 수 있는 표제어’도 일반어로 많이 수록되었는데, ‘정치 전문어’로 볼 수 있는 ‘붉은기, 혁명사상……’, ‘식물 전문어’로 볼 수 있는 ‘노란자라버섯, 유향나무……’ 등의 낱말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남북 전문 영역 설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어에서보다 전문어에서 더 심각하다. 67년의 세월 동안 전문가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언어 정책 면에서 남측은 외래 전문어에 대해 적극적인 순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반면 북측은 적극적으로 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대》의 전문어 총수는 19만 2,208개인데, 《조대》의 전문어보다 14만 9,129개 더 많다. 그리고 《표대》에만 등재된 전문어는 12만 6,232개이고, 《조대》에만 등재된 전문어는 2만 5,726개이다. 《조대》에 비해 《표대》에만 등재된 전문어가 약 5배 더 많다. 남측 전문어 총수(19만 2,208) 대비 65.7%가 남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어이다. 이 수치에 따르면 남북의 영역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단어를 말하면 3.5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표대》에만 등재된 지역어는 1만 7,131개가 있고, 《조대》에만 등재된 지역어는 4,405개가 있다. 그리고 ‘글체’, ‘말체’, ‘낱은말’, ‘가표

25) ‘구(句)로 볼 수 있는 형식’이 표제어로 등재된 데에는 ‘북측 띄어쓰기 규정’과 관련이 있다. 북측 규범에 따르면 ‘물고기잡이전투, 단행본편집원’처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는 붙여 쓰므로 이러한 구 단위가 표제어로 많이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제어'는 《조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분류이다. 《조대》에만 등재된 표제어 중에는 5,813개의 낱은말이 있는데, 이 가운데 5,783개가 한자어이다. 《조대》에 등재된 낱은말의 총수는 2만 5,409개이며, 이 가운데 한자어는 2만 3,144개로, 낱은말 총수 대비 91%에 이른다. 이처럼 낱은말에 한자어가 많이 포함된 것은 북측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한자말정리사업'과 '어휘정화사업' 등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은어'는 《표대》에만 있는 분류이다. '고어/옛말'은 두 사전 모두 등재하고 있다.

4. 맺음말

2027년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녘 철수는 남녘 철수에 비해 1년 빠른,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 또는 직장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북녘 철수는 남북 교육 체제의 차이로 남녘 철수와 다른 교과목과 학술 용어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즉, 남녘의 '한국사'를 '조선력사'로, '한글'을 '조선글자'로, '폴란드'를 '뿔스카'로, '합병증'을 '따라난 병' 등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변수를 제외하고 단지 남과 북의 사전 표제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녘 철수는 남녘말의 52% 정도를 모를 것이고, 남녘 철수는 북녘말의 39% 정도를 모르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북의 철수가 동일 분야 전문가로서 만나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 상대측 전문어 가운데 66% 정도를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언어 통일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수치보다 늘어날 것이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조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단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사전이 《겨레말큰사전》이다.²⁶⁾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하게 될 첫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남북의 어휘 이질화는 오랜 기간 진행돼 온 것이고, 또한 그 차이가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하루아침에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처럼 체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어 통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미리 준비하고, 아울러 《큰사전》 편찬 작업을 하여 광복 후 우리 어문 생활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26) 《겨레말큰사전》은 남북 언어 통합을 목표로 편찬하고 있는 사전으로, 이 사전에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 남북 및 해외 동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 30여 만 개가 표제어로 수록될 예정이다. 2019년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찬 주체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이다.

참고문헌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형익(2005), 《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조선어학전서 16.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조재수(2013~), 국어사전 100년을 돌아보다(7~17), gyeorema1.or.kr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도서출판 책과함께.
- 한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301~322.
-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2013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119~143.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남과 북 공통 표기법의 조건

연규동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특
집

1945년 독립을 이루었음에도 1948년 남과 북에서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남북의 어문 규범은 언어와 더불어 서로 다르게 변해 왔다.

이러한 남북의 어문 규범 차이는 남북 언어 차이와 함께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 왔으며,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남과 북의 재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그 통합 방안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남북의 어문 규범 중 특히 맞춤법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공통 표기법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

1. 남북 어문 규범의 종류

현재 남에서 사용되는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네 가지이며, 북에서는 〈조선말규범집〉, 〈외국말적기법〉, 〈로마자표기법〉의 세 가지 어문 규범이 제정되어 있다.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어문 규범은 구성 차이만 있을 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즉, 남에서는 〈한글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북에서는 〈조선말규범집〉에 ‘맞춤법’과 별도로 ‘띄어쓰기’, ‘문장부호법’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에서는 〈표준어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반면, 북측에서는 문화어 규범을 따로 정하지 않고 〈조선말규범집〉 안에 ‘문화어발음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도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 어문 규범의 종류

남		북	
한글 맞춤법	제1, 2, 3, 4, 6장 맞춤법	조선말규범집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띄어쓰기
	(부록) 문장 부호		문장부호법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문화어발음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외래어 표기법		외국말적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표기법	

2. 남북 표기법의 역사

2.1. 함께 쓰던 시기

남과 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출발한다. 이 표기법은 제정 이후 1937년의 고친판, 1940년의 개정판, 1946년 일부 개정판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기 이전의 문자 생활의 준거가 되었다.

2.2. 달라진 시기

남과 북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던 표기 규범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48년 북에서 제정한 <조선어신철자법>부터이다(1950년 간행). 이 표기법은 일부 문헌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실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표기법이 이후 발표된 북의 다른 표기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변화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어신철자법>에서 새로 적용된 규정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남북 표기법에서 중요한 차이를 낳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단일 자모 외에 겹자모를 정식 자모로서 인정(1항)
- 자모 명칭을 ‘| _’ 방식으로 통일(2항)
- 이른바 절음부(絶音符, ‘|’)를 이용한 사이시옷 표기(31항)
- 한자음 ‘폐, 폐’를 ‘페, 페’로 표기(37항)
- 두음법칙 폐지(42, 43항)
- 어간의 모음이 ‘|, 꺾, 꺾, 꺾, 꺾, 꺾’인 경우 어미 ‘-어, -았’을 ‘-여, -였’으로 표기(56항)

특히 절음부를 이용하여 합성어의 음운 교체를 표기한 시도는 이후 〈조선어철자법〉(1954)에서 이름만 ‘사이표’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다가 〈조선말규범집〉(1966) 이후 사이표가 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손’등, 코’날, 치’과, 관절’염’과 같은 표기가 시각적으로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절음부를 생략하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북한 표기 규범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없앨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절음부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북에서 실제로 널리 사용된 표기법은 1954년 제정된 〈조선어철자법〉이다. 이 표기법에서 규정된 이후 남과 북에서 달라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모의 종류를 40개로 확정(1항)
- ㅓ, ㅕ 등의 명칭의 접두사를 ‘된-’으로 바꿈(1항)

이어 1966년에 발표한 〈조선말규범집〉은 북 표기 규범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표기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18항), 이후 남과 북에서 사이시옷 표기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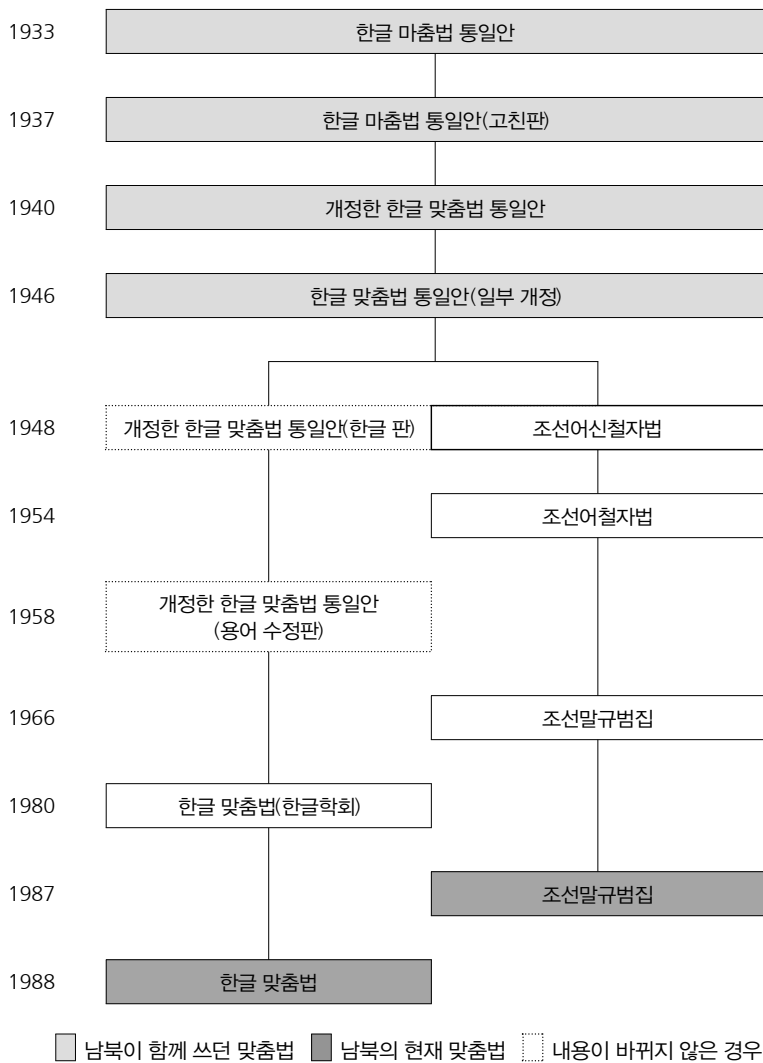
남의 맞춤법은 조선어학회의 후신인 한글학회에서 1980년 〈한글 맞춤법〉이라는 이름으로 새 표기법을 발표함으로써 변화를 겪는다. 이 표기법에서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문자 생활이 정착되면서 현실 언어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나 완전히 일반화된 내용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전 맞춤법에 비해 많이 간소해졌다. 또한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통일안’이라는 단어를 빼 버렸다. 사실 그 이전에도 남에서는 1948년과 1958년에 새로운 안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이미 사

용되던 1946년도 표기법을 한글로 바꾸거나, 당시 새로 제정된 문법 용어 등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3. 현재 안의 성립

남과 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표기 규범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었다. 북에서는 기존 〈조선말규범집〉의 일부 조항과 내용들을 새로 개정한 〈조선말규범집〉을 1987년 공포했으며(1988년 간행), 남에서는 1988년 정부 차원에서 공포된 최초의 표기 규범으로서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었다(1989년 시행). 특히 〈한글 맞춤법〉은 국가 차원에서 어문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이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표기법이 조선어학회 또는 한글학회가 민간단체의 자격으로 이끌어 온 것이라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 남과 북이 갈라진 후 남에서는 두 종류의 새로운 표기법이, 북에서는 네 종류의 새로운 표기법이 독자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표기법은 조금씩 차이가 벌어졌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구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옅은 음영으로 된 부분(□)은 남북이 함께 쓰던 맞춤법이며, 짙은 음영으로 된 부분(■)은 남북에서 현재 사용되는 맞춤법이다. 한편 전혀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점선으로 둘러싸 표시하였다(□).



[그림 1] 남북 표기법의 역사

3. 남북 표기법의 총칙

남북의 말과 글에 대한 비교 작업은 1971년 남북 회담 이후 제한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88년 당시 북방 외교 정책 아래 북의 문헌이 개방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남북의 표기 규범 관련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논의의 거의 대부분은 남북 맞춤법의 차이를 소개하고 그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제시된 대안들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조항에 따라 남북 어느 한쪽의 규정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남북의 표기를 둘 다 인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남북이 앞으로 어문 규범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원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소리대로’의 본질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는 남과 북의 표기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총칙이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남〉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논의들에서는 남북의 총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남

의 ‘소리대로’는 북의 ‘소리나는대로’와 대응이 되어 이른바 음소주의를 표상하고, 남의 ‘어법에 맞도록’은 북의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과 대응이 되어 이른바 형태주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표 2] 남북 표기법의 총칙 비교

남	북	내용
소리대로	소리나는대로	음소주의
어법에 맞도록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	형태주의

하지만 남쪽의 ‘어법에 맞도록’ 및 북쪽의 대응 구절을 형태주의에 해당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남의 ‘소리대로’는 북의 ‘소리나는대로’와는 전혀 다르며 또한 ‘~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소리대로’에는 1933년 맞춤법을 새로 제정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즉, ‘소리대로’라는 표현에 담긴 뜻은 표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아침, 어깨, 빨래, 나비 / 기차, 여자, 노인, 천지’와 같은 단어를 각각 ‘아츨, 엇개, 빨내, 나뵈 / 기차, 녀즈, 로인, 텃디’와 같은 역사적 표기법으로 적지 말고 실제 발음에 따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츠]라는 소리는 ‘ㅌ’이라고 적지 않고 ‘츠’이라고 적는다. [ㅌ]라는 소리는 ‘ㄷ’이라고 적지 말고 ‘ㅌ’로 적는다.”와 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의 ‘소리대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옛날 표기를 사용하지 말고) 실제 말하는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이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한글 자모의 음가대로’ 적는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실제 말하는 소리대로” 또는 “한글 자모의 음가대로”와 같은

‘소리대로’의 원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적는 한글이 표음문자라는 사실에 이 같은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 생활이 대중화되어 표기법이 정착된 이후에는 ‘아침, 어깨, 빨래, 나비; 기차, 여자, 노인, 천지’와 같은 표기가 이미 그 자체로 역사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조선어신철자법〉의 총론에서 ‘소리대로’를 배제하고, 〈조선어철자법〉에서 ‘소리에 관한 것’이라는 장을 아예 없애 버린 것도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3.2. ‘어법에 맞도록’의 기능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면 표기법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이며, 어떤 언어를 100% 소리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교착어인 한국어처럼 각 형태소가 교착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교체가 심하게 일어나는 언어는 소리대로 표기하게 되면 형태소의 형태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읽기의 효율성’이 크게 제약받는다.

따라서 형태소가 위치에 따라 발음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일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남의 ‘어법에 맞도록’과 북의 대응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도록’을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남과 북의 총칙은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를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형태소 ‘닭, 먹-, -고’가 환경에 따라 각각 [닥, 멍-, -꼬로 발음되더라도 언제나 일관되게 그 원형을 밝혀 적으므로 ‘닭, 먹-, -고’에는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만 적용되며, ‘별, 보-, -니’ 등과 같이 발음이 일정한 형태

소는 이와는 달리 ‘소리대로’의 원리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형태소 모두 기본적으로는 “실제 말하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점에서 ‘소리대로’의 원리를 따르며, 또 언제나 위치에 따라 발음이 바뀌더라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점에서 ‘어법에 맞도록’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어법에 맞도록’의 예외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비고
닭	닭 (닭이)	닭 ([ㄷ] 닭)	
먹-	먹 (먹고)	먹 ([ㄹ] 먹는다)	
-고	고 (오고)	고 ([ㄱ] 먹고)	
별	별	별	교체 없음
보-	보	보	교체 없음
-니	니 (어디 가니)	니	교체 없음

3.3. ‘어법에 맞도록’의 예외

하나의 형태소는 그 발음이 변하더라도 늘 일관되게 적겠다는 ‘어법에 맞도록’에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사, 어미가 앞에 오는 형태소의 끝소리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조사와 어미들, 예를 들면 ‘-을/를, -니/으니’와 같은 것들로 비록 하나의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발음에 따라 구별하여 적기로 약속된다. 만약에 이들을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면, ‘장기를/바둑을; 가니/먹으니’가 아니라, ‘장기를/바둑를; 가니/먹니’ 또는 ‘장기을/바둑을; 가으니/먹으니’와 같이 적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 발음에 큰 왜곡을 낳게 된다.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지 않고 실제 발음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변이 형태가 나타날 경우 그 변이 형태를 그대로 적”어야 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 바로 북의 ‘소리나는대로’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더라도 그 표면적 발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3.4. 요약

이 절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어를 표기하는 도구인 한글이라는 문자가 표음문자이므로 남북 표기법의 대전제는 실제 말하는 대로 한글 자모의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이다(이를 표현한 것이 남의 ‘소리대로’이며, 표기법이 정착된 현대에는 잉여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교착어라는 한국어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소리의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이를 표현한 것이 남의 ‘어법에 맞도록’과 북의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이다). 하지만 원형을 밝힐 때 현실 발음이 심하게 왜곡되면 원형이 아닌 변이 형태를 발음대로 적는다(이를 표현한 것이 북의 ‘소리나는대로’이며, 남의 ‘소리대로’와는 다른 원리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에 맞도록’이며, 단서 조항으로 ‘소리나는대로’가 덧붙을 수 있다(북의 총칙에 표현된 ‘관습을 따르는 것’도 한국어를 적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는 원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외 조항이므로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남의 총칙에 사용된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표현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원형을 밝

히어'로 쓰기로 한다. 또한 북의 총칙에 등장하는 '소리나는대로' 역시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남북의 표기법을 비교하는 자리에서는 '소리대로'라는 표현과 혼동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쉬우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쓰기로 한다.

4. 남북 표기법의 실제

이상에서 정리한 두 가지 원리 즉, '원형을 밝히어'와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에 따라 남북 표기법에서 차이가 나는 몇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두음법칙

'남녀/녀성, 경로/노인'과 같이 ㄴ, ㄷ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어느 위치에 오든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적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원형을 밝히어'를 따르는 것이다. 이 같은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글로 표기할 때 생기는 많은 동음이의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산(陽傘)/량산(量産), 이론(異論)/리론(理論),
역학(易學)/력학(力學), 노력(努力)/로력(勞力)

하지만 남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ㄷ이 소리 나지 않는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 발음과 크게 어긋나게 되므로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 적게 된다. 만약 실제 발음인 [여자, 노인]과는 상

관없이 원형을 밝혀서 ‘녀자, 로인’으로 표기한다면, 이 표기에 따라 발음이 바뀌는 이른바 철자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이 발생하여 실제 언어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다만, 성씨 ‘柳’를 ‘류’로 적거나 유음이 두음으로 오는 외래어를 어림없이 발음하는 등, 현대에 와서 남쪽에서 두음법칙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앞으로 두음법칙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게다가 두음법칙 표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글 코드에서 하나의 한자가 두 개의 음에 중복 할당된 것은 전산화 과정에 크게 장애를 낳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4.2. 사이시옷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도 남북의 표기 규범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이며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북의 표기법은 형태소의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발음이 변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시내가, 깨잎’과 같이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있다. 반면, 남에서는 두음법칙과 마찬가지로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의 원리를 받아들여 발음의 교체를 반영하는 표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냇가, 깻잎’과 같은 표기에는 [시내까, 깻넙]과 같이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이 첨가된다는 사실이 사이시옷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시내, 깻’이 각각 ‘시냇, 깻’으로 바뀌므로 원형은 유지되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표기하면 [시내가, 깨잎]과 같이 인위적인 발음이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예: 새별/셋별, 비바람/빗바람). 게다가

‘좁쌀, 살코기’와 같은 합성어에서 ㅂ과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변이 형태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이시옷을 써 온 이유가 바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려는 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는 끊임없이 사이시옷 표기를 위협한다. 남에서 여섯 개의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어떤 식으로든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언중이 ‘최댓값, 갯과, 까치고갯길’과 같은 표기에 부담을 느끼는 까닭도 원형이 깨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시옷 표기는 ‘원형을 밝히어’와 이에 대응하는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가 첨예하게 대척하는 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의 <조선어신철자법>과 <조선어철자법>에서 시도된 절음부 또는 사이표 ‘ ’’는 ‘원형을 밝히어’와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시내’가, 깨’있, 최대’값, 개’과, 까치고개’길’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을 잘 보여 주면서도 바뀐 발음이 있음을 사이표가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의 최대 난점은 전혀 낯선 부호를 한글 자모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에서 결국 폐지된 것도 이 같은 생경함을 해결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표의 대안으로 1940년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30항에서 시도되어 1946년까지 사용된 바 있는 ‘시내ㅅ가, 깨ㅅ있, 최대ㅅ값, 개ㅅ과, 까치고개ㅅ길’과 같은 표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표기는 한글의 낱자모를 독립적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어색하기는 하다. 그러나 사이시옷 표기를 낱글자로 표기한 <<훈민정음>> 표기와도 이어질 수 있으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가ㅎ다’와 같은 표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4.3. 어미

남북이 다르게 표기하는 일부 어미들도 대부분 ‘원형을 밝히어’와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의 두 원리의 차이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본다.

어미 ‘-어/여, -었/였-’의 경우, ‘치어, 개어, 되었다, -시어’와 같은 남의 표기는 ‘원형을 밝히어’를 따르는 것이며, ‘치여, 개여, 되었다, -시여’와 같은 북의 표기는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를 따르는 것이다. 다만, ‘ㄹ’과 관련 있는 의문 어미를 된소리로 표기할 것인가에 관련된 표기에서 북의 표기인 ‘-ㄹ가, -ㄹ고, -ㄹ소냐’ 등은 원형을 밝힌 것이며, 남의 표기인 ‘-ㄹ까, -ㄹ꼬, -ㄹ쏘냐’ 등은 변이 형태의 발음을 따른 것이다.

4.4. 접미사

‘ㅂ’으로 끝나는 어근에 붙는 접미사의 경우, ‘넓다랗다, 얇다랗다’와 같은 북의 표기는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고, ‘널따랗다, 알따랗다’와 같은 남의 표기는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를 ‘원형을 밝히어’를 따라 표기하면 ‘살살이, 싹싹이’와 같은 남의 표기가 되지만,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살사리, 싹째기’와 같은 북의 표기가 된다.

4.5. 자모

한글 자모와 관련된 남북의 차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 값을 우선할 것인가에 따른 것이다. 아래에 이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남의 표기법에서처럼 모양에 따라 자모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모든 문자는 외적 형상이 직관적으로 인지된다는 보편성에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 ‘ㅅ, ㅙ’는 문자론적으로

각각 ‘ㅅ’과 ‘ㄱ’ 또는 ‘ㄴ’와 ‘ㄹ’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둘째,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ㅅ’, ‘ㄱ’가 시대에 따라 그 발음이 바뀌더라도 그 명칭이나 배열 순서는 바뀔 필요가 없다. 영어에서도 ‘honest, night’ 등과 같은 단어들의 발음은 크게 바뀌었지만 모양을 따라 명칭과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늘 일정하게 배열된다. 특히 이처럼 시대에 따라 발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른바 ‘문자의 편견’을 깨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일관성은 쉽게 이해된다. 셋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기본 자모만이 언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한글 자모가 24개라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상식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갖는다.

북과 같이 소리에 따라 자모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즉, ‘ㄱ’, ‘ㄴ’ 등을 독자적인 자모로 설정하게 되면, 이들이 우리말에서 독립적인 음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아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특히 ‘ㅇ’이 음가가 있는 종성으로 사용될 때에는 ‘ㅅ’과 ‘ㅈ’ 사이에 배열하고, ‘ㅇ’이 음가 없는 초성으로 사용될 때에는 자음 배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만을 따로 모아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ㅇ’이 가진 두 가지 성질을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모국어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5. 남북 표기법의 통합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로 남과 북의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변이 형태의 발음 대로’에 따른 표기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표기법의 통합을 위해 우리가 바꾸어야 할 인식과 공동체 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5.1. 인식의 변화

첫째, 남북의 표기 규범의 차이가 그렇게 현저한 것은 아니다. 흔히 차이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남과 북의 표기법은 동일한 맞춤법에서 출발하였기에 매우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의 표기법에 대해서 한때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은 아주 과장된 것이다.

62쪽의 글은 북의 언론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 남쪽 언론의 기사이다. 남북의 다른 표기들이 실제 문자 생활에서 표기법의 전제인 ‘읽기의 효율성’에 크게 장애를 주지 않음을 보여 준다.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남과 북의 표기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이와 같은 남북의 표기 차이를 ‘이질화’가 아니라 ‘다양화’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표기의 다름은 오히려 문자 생활에서 문체적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마치 한 언어권 내 구성원들의 방언이 다르다고 해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뿐더러 개인 차원에서 언어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표기 차이가 “단일한 언어를 표현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9호 【부제 제21455호】 주제94(2005)년 11월 25일(금요일)

평양 - 남포통일마라손대회 진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북과 남의 마라손애호가들의 참가밑에 평양-남포 통일마라손대회가 24일에 진행되었다. 통일마라손대회개막식이 청춘거리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식에는 박경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체육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오마이 뉴스》대표 오연호가 인사말을 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통일마라손대회가 혈육의 정을 나누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조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민족의 굳센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시작을 알리는 신호총소리 울리자 북과 남의 남, 녀 마라손선수들이 경기장을 출발하였다.

주로에 나선 북과 남의 선수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일념을 안고 광복거리를 지나 청년영웅도로에 있는 귀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고 또 달려갔다.

경기가 끝난 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평양 - 남포통일마라손대회 진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북과 남의 마라손애호가들의 참가밑에 평양-남포 통일마라손대회가 24일에 진행되었다. 통일마라손대회개막식이 청춘거리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식에는 박경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체육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오마이 뉴스》대표 오

연호가 인사하는 남측참가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통일마라손대회가 혈육의 정을 나누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조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민족의 굳센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시작을 알리는 신호총소리 울리자 북과

남의 남, 녀 마라손선수들이 경기장을 출발하였다.

주로에 나선 북과 남의 선수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일념을 안고 광복거리를 지나 청년영웅도로에 있는 귀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고 또 달려갔다.

경기가 끝난 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오마이뉴스》, 2005. 11. 26.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5081)

하면서 서로 다른 표기법을 사용해 일어나는 혼란과 이로 말미암아야
기되는 민족어 발전에 부정적인 저해 요소”라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를 방증하는 예로 동일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미국과 영
국의 표기 차이를 들 수 있다. 아래 예들에서 ‘/’ 앞쪽에 있는 것이 미국
식 표기이며, 뒤쪽에 있는 것이 영국식 표기이다.

-er/-re	center/centre, fiber/fibre, liter/litre, somber/sombre
-ize/-ise	analyze/analyse, civilize/civilise, organize/organise, realize/realise, recognize/recognise
-ll/-l-	counselor/counsellor, jewelry/jewellery, marvelous/marvellous, modeling/modelling, signaled/signalled, traveler/traveller
-or/-our	behavior/behaviour, color/colour, harbor/harbour, honor/honour, humor/humour, labor/labour, neighbor/neighbour
-se/ - ce	defense/defence, offense/offence, pretense/pretence
-V/-aV-	airplane/aeroplane, encyclopedia/encyclopaedia, medieval/mediaeval
그 외	ax/axe, catalog/catalogue, check/cheque, gray/grey, pajamas/pyjamas, skeptic/sceptic, tires/tyres, while/whilst

좀 장황하리만큼 예를 길게 든 이유는 남북의 표기 차이 역시 미국과
영국의 표기 차이와 마찬가지로 단지 문체적 차이일 뿐이며 뜻을 파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과 북 어느 한쪽의 표기 규범이 다른 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표기법은 언어학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중의 의식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학습의 용이성, 전통과의 일치성 등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는 그 사회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표음문자를 써서 표기하면서도 ‘nite, thru’ 대신에 ‘night, through’를 사용하는 영어의 표기법을 단지 논리적인 면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일이다.

5.2. 행동의 변화

첫째, 상대의 표기 규범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표기법이라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쉽게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문자 문화 교류가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남과 북이 자연스레 상대의 표기법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 표기법 변환기’, ‘남북 어휘 변환기’ 등을 개발하여 문서 편집기나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문자 생활이 전자화된 시대에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또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두 가지 표기의 문자 매체를 쉽게 생산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의 표기법을 각각 더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의 현행 표기법에 있는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점 등을 대폭 손질하여 더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기법은 표기법 연구와 통합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이므로 모든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예상하는 표기법 구상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

게 변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의 언어와 문자 소통 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덜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종이 사전보다는 전자사전을 이용하는 시대에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는 그저 연구자들만의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책을 물리적으로 배열할 때에도 자모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절대 위치를 전자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표기 규범이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창운(2000), 남북한 통일 어문규정 시안 마련을 위한 모색,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1~48.
- 김양진(2003),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형태 규범(표기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어문규범과 그 통일 방안》, 국학자료원, 83~119.
- 김하수·연구동(2014), 《남과 북의 맞춤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동근(2006),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89~115.
- 박형익 외(2003),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 연구동(1998),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 연구동(2014), 표기규범과 문자-한자어의 표기 원리, 《한글》 304, 한글학회, 141~176.
- 연구동(2014), 남북의 표기 차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겨레말》 1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18~21.
- 이희승(1946), 《한글 맞춤법통일안강의》, 동성사.
- 전수태(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제11권 제1호, 국립국어원, 47~60.
-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말 다듬기와 어휘 사용의 실제

서정목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특
집

1. ‘아이스크림’의 명멸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1981) 2709쪽에는 ‘얼음보숭이’라는 올림말이 있고 뜻풀이가 (1a)처럼 되어 있다. 끝에 [x아이스크림]이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얼음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외래어를 쓰지 말고 그 대신에 사용할 다듬은 말로 제안된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찾아 보면 (1b)처럼 되어 있다.

- (1) a. **얼음보숭이**: 소젖, 닭알, 사탕, 향료 같은것을 섞어서 보숭이처럼 얼쿠어만든 음식의 한가지. [x아이스크림].
b. **아이스크림**: (들어온말) (다듬은 말로) 얼음보숭이.

‘보숭이’는 ‘떡보숭이’처럼 쓰이는 말로서 ‘고물’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그러니까 ‘얼음보숭이’는 ‘크림’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보숭이’라고 보고 방언을 살려서 외래어를 다듬은 말이다. 《문화어 학습》 1981년 3월호에는 “다듬은 말을 널리 씁시다.”라는 제목 아래 ‘얼음보숭이’를

‘아이스크림’ 대신에 쓰도록 권유하는 광고가 실려 있다. 왜 ‘크림’을 ‘보숭이’, 즉 ‘고물’이라고 판단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언젠가 그 과정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에는 ‘에스키모’라는 단어가 없다. 고유 명사는 올림말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족 이름으로 보아 올림말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얼음보숭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대신 ‘아이스크림’이라는 올림말에 (2)와 같이 뜻풀이가 되어 있다.

- (2) **아이스크림**: ① 소젖, 닭알, 사탕가루, 향료 같은것을 섞어 한데
풀어서 크림 비슷하게 만들어 얼음같이 차게 한 음식의 한가지.
② =에스키모 [ice cream ㉘].

그런데 이것은 (3a)의 ‘아이스케키’를 처리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 경우에는 (3b)처럼 ‘얼음과자’에다 뜻풀이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음과자’가 주된 단어이고 ‘아이스케키’는 그에 대한 외래어로서 뜻은 다듬은 말을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3) a. **아이스케키**: → 얼음과자. [← ice cake ㉘].
b. **얼음과자**: ① 물에 사탕가루, 젖, 과일즙 같은것을 타서 얼군
것. 흔히 속에 꼬챙이를 넣어서 얼군다. ② =에스키모.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케키’는 비슷한 성격의 외래어인데도, 하나는 당당하게 주된 단어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부수적인 외래어가 되었다. 그 이유는 ‘얼음보숭이’가 잘못 다듬어진 말이고 ‘얼음과자’는

잘 다듬어진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아주 이상한 것은 ‘에스키모’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아이스크림’의 뜻도 있고 ‘얼음과자’의 뜻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스키모’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할 수 없이 다시 ‘에스키모’라는 올림말을 찾아보았다. (4)와 같이 되어 있다.

- (4) **에스키모**: ① 소젖을 기본원료로 하고 여기에 카카오가루 또는 카카오크림, 사탕가루, 젓기름, 유화제, 향기성물질 같은것을 넣어서 얼큰 아이스크림의 한가지. 흔히 곁에 초코레트를 씹우고 속에 꼬챙이를 넣어 얼구어서 종이에 싰다. ② =아이스크림. [eskimo ㄹ].

그리고 그 뒤에 ‘에스키모어’, ‘에스키모어군’과 같이 언어명이 따라온다. 민족 이름으로서의 ‘에스키모’는 역시 올림말로 하지 않으면서, 언어명이나 어족의 이름으로는 올리고 있다.

북한은 2006년에 다시 《조선말대사전》을 출판하였다. 이 사전은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물론 ‘얼음보숭이’라는 올림말은 이 사전에도 없다. 이 말은 완전히 퇴출된 것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되었을까? 찾아보니 (5)와 같이 되어 있다.

- (5) **아이스크림**(ice cream ㄹ): → 에스키모¹

‘아이스크림’이 올림말로 올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지위는 1992년 사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제는 완전히 ‘에스키모’가 주된 단어가 되었다. 이제 ‘에스키모’가 아이스크림을 뜻하는 명사인 것이다.

다시 이 사전의 ‘에스키모’를 찾아보았다. (6)과 같이 되어 있다.

- (6) a. **에스키모**¹: 소젖, 닭알, 사탕가루, 향료 같은것을 섞어 한데 풀어서 크림 비슷하게 하여 얼음같이 차게 하거나 얼음과자처럼 만든 음식의 하나. 제조기에서 균질화하여 종이에 싸거나 잔이나 종이고뿌에 담아낸다. ⊖아이스크림.
- b. **에스키모**²: 추코트반도의 동쪽 및 남쪽연안지대와 미국의 북극연안지대에 살고있는 종족.

이제 민족 이름인 고유명사로서도 뜻풀이하였고, 그 뒤에 ‘에스키모어’, ‘에스키모어군’이 따라 나온다. 제대로 된 처리이다. 그런데 ‘아이스케키’도 ‘아이스크림’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길을 걸었다. 올림말로 하기는 하였지만 (7)과 같이 처리되었다.

- (7) **아이스케키**(ice cake ㉡): → 얼음과자.

다시 ‘얼음과자’를 찾아보면 (8)과 같이 되어 있다. ‘얼음과자’에 대한 (8)의 뜻풀이는 1992년 사전의 ‘에스키모’의 뜻풀이와 같다.

- (8) **얼음과자**: 소젖을 기본원료로 하고 여기에 카카오가루, 사탕가루, 젓기름, 유화제, 향기성물질 같은것을 넣어서 얼균 음식의 하나. 흔히 겉에 초콜레트를 씌우고 속에 꼬챙이를 넣어 얼구어서 종이에 싸나.

이 사전만 보고 판단하면 이제 (9)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9)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는 데는 ‘에스키모’라는 말을 주된 단어로 하고, ‘아이스케키’를 가리키는 데는 ‘얼음과자’를 주된 단어로 한다.

그러면 왜 ‘에스키모’라는 말을 이렇게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 매우 이상한 일 같지만 이것은 언어의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한때 우리는 “진로 한 병 주세요.”라는 말로 “소주 한 병 주세요.”를 뜻하면서 살았다. 마산에서 이 말을 하면 ‘무학’을 한 병 주었고, 강릉에서 이 말을 하면 ‘경월’을 한 병 주었으며, 목포에서 이 말을 하면 ‘삼학’을 한 병 주었다. 그러나 특별히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 진로를 달라는데 왜 무학을 주십니까?”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때 ‘진로’가 누린 소주의 대명사 지위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에스키모’이다. 그것은 아이스크림의 대명사인 것이다. 지금은 “소주 한 병 주세요.” 하면 “참이슬 드릴까요? 처음처럼 드릴까요?” 하고 묻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가끔 “참이슬을 마지막처럼 주세요.”라고 답하는데, 이 ‘떨렁 개고’를 듣고 파안대소하는 분이 있는 술집은 술맛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낀다. ‘약봉가(藥峯家)’에서 만든 술 ‘약주’가 술의 대명사가 되었고, ‘호치키스사(社)’에서 만든 스테이플러를 우리는 아예 ‘호치키스’라고 불렀으며, ‘제록스사’에서 만든 복사기를 ‘제록스기’라고 부르고 ‘제록스한다’라는 동사를 만들어 쓰기까지 하였다. ‘백호(back-hoe)’를 의미하는 ‘포클레인’이 굴삭기를 생산하는 프랑스 회사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바바리 입고 가자.’는 잘못된 말을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연중이다. 이른바 대유법(代喩法)이 적용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확인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북한의 폭정을 벗어나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는 백성들’이 무수히 많아졌다. 그들을 만나 물으면 바로 확인되는 일인데, 필자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칼럼을 쓰던 1993년 《월간조선》 12월호 ‘말의 세계’에 “짐작컨대 북한에 ‘에스키모’라는 상표를 가진 아이스크림이나 얼음과자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문장을 쓴 것이 죄가 되어, 틀린 글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그 사소한 두려움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겠는가? 필자는 내 강의실에 들어온 수많은 탈북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그들의 비참하고 딱한 처지에 가슴이 미어지고 목이 메어 차마 이런 말을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2. 그 많은 ‘도시락’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81년의 그 《현대조선말사전》에는 (10)과 같이 ‘곽밥’이라는 올림말이 있고 그 뜻풀이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10) **곽밥**: ① 밥곽에 담은 밥, ② (려행하는 사람이 사먹을수 있도록) 곽에 담아서 파는 밥.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도시락’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를 다듬은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뜻풀이 ②를 보고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까지 기차에서 팔던 ‘도시락’을 떠올렸다. ‘아아, 그거. 우리 어머니는 ‘○또’라는 일본말 단어로 부르던 하

얀 밥을 담은 그릇. 대패질한 것처럼 보이는 얇은 나무판자로 사각의 그릇을 만들어 그 안에 밥을 담아 ‘○○양’이라고 부르던 ‘단무지’ 한 봉지와 함께 홍익회에서 팔던 추억의 기차간 밥. 그러면서 ‘그곳에는 여행의 자유도 없다.’고 배웠는데 웬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 ‘곽밥’을 사 먹을 호사를 부린다는 것인지, 우리가 배운 것과 그곳의 실상이 다를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져 살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곽’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곽’이 ‘郭’이나 ‘廓’, ‘櫛’이라면, 이는 ‘성곽(城郭)’, ‘외곽(外廓)’, ‘목곽(木櫛)’에서 볼 수 있듯이 ‘둘레’, ‘테두리’를 뜻하는 말이다. 결국 한자인 것이다. 일본말 단어를 우리말 속에서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럴 때는 가능한 한 고유어 언어재(言語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로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곽’도 ‘성곽’, ‘외곽’, ‘목곽’ 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세 단어 속의 ‘곽’이 한자가 다 다르고 뜻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곽’ 하나만 떼어 놓으면 그것은 의미를 지니는 요소가 되기 어렵고 뜻도 짐작이 잘 안 된다. 이 어려운 ‘곽’을 ‘밥’과 합쳐서 합성어를 만든 것이 ‘곽밥’이다.

이 사전에서 ‘밥곽’은 (11)과 같이 뜻풀이되었다. 그러니까 밥을 담은 그릇은 ‘밥곽’이고 그릇에 담은 밥은 ‘곽밥’인 것이다.

- (11) **밥곽**: 집을 떠난 자리에서 밥을 먹을수 있도록 알루미늄이나 비닐, 나무 같은 것으로 간편하게 만든 밥그릇.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닐수 있게 보통 네모나게 만든다.

그러면 북한에는 ‘도시락’이라는 말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곳에도 ‘도시락’이라는 말이 있다. 이 사전에서 ‘도시락’을 찾아 보면 (12)처럼 되어 있다.

(12) 도시락: (지난날에) 고리버들이나 대오리 같은것으로 고리짜
같이 결어 만들어 쓰던 작은 그릇. 흔히 점심밥을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썼다.

여기서 ‘(지난날에)’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것은 과거에 사용되던 말로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뜻이다. ‘도숯’이라는 말이 근대 국어 자료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이 고유의 언어재를 이용하여 ‘도시락’이라는 말을 살려서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도시락’을 일본말 단어로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광복 직후부터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어 순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이미 이 일본말 단어 ‘도또’를 ‘도시락’으로 고쳐 부르게 한 기록이 1940년대 말의 문교부 국어 순화 자료에 남아 있다. 1961년에 나온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국어대사전》의 ‘도시락’에 대한 뜻풀이를 보면 (13)처럼 되어 있다.

(13) 도시락: ① 고리버들이나 대오리로 길고 둥글게 결은 작은 고리짜. 점심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릇으로 씀. ② 얇은 나무 판자로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상자처럼 만들어, 밥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릇. 벤또.

현대어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미 이 시기에 ‘도시락’이

라는 말은 단지 고어로뿐만 아니라 현대어로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도시락밥’도 올림말로 올라 있고 줄여서 ‘도시락’으로 한다고 표시하였다.

이 ‘도시락’에 대한 북한 사전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곽밥’, ‘밥곽’에 대한 뜻풀이는 변함이 없다. 1992년의 사전에는 1981년과 똑같이 (14)처럼 되어 있다.

- (14) a. **곽밥**: ① 밥곽에 담은 밥, ② (여행하는 사람이 사먹을수 있도록) 곽에 담아서 파는 밥.
b. **밥곽**: 알루미늄이나 비닐, 나무 같은 것으로 간편하게 만든 밥그릇. 보통 네모나게 만든다.

2006년의 사전도 (15)처럼 똑같이 뜻풀이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다듬은 말로 보아도 될 것이다.

- (15) a. **곽밥**: ① 밥곽에 담은 밥, ② (여행하는 사람이 사먹을수 있도록) 곽에 담아서 파는 밥.
b. **밥곽**: 알루미늄이나 비닐, 나무 같은 것으로 간편하게 만든 밥그릇. 보통 네모나게 만든다.

그러나 ‘도시락’에 대해서는 미세한 변화가 느껴진다. 1992년의 사전에서는 ‘(지난날에)’를 지웠다. 2006년의 사전에도 ‘(지난날에)’가 빠졌다. 뜻풀이는 1992년 사전과 똑같다. 그리고 이 두 사전에는 ‘도시락밥’이라는 올림말이 ‘도시락에 담은 밥’으로 뜻풀이되어 올라 있다.

(16) **도시락**: 고리버들이나 대오리 같은것으로 고리짝 같이 걸어 만
들어 쓰던 작은 그릇. 흔히 점심밥을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썼다.

이제 왜 ‘(지난날에)’가 빠졌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 그랬을까? 지금은 북한에서도 ‘도시락’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일까? ‘(지난날에)’가 빠짐으로써 일단은 ‘지금은 이 말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그 뜻풀이가 ‘고리버들…… 썼다.’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밥곽’에 붙어 있는 뜻풀이 ‘알루미늄이나 비닐, 나무 같은 것으로 간편하게 만든 밥그릇. 보통 네모나게 만든다.’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 전체에서 ‘(지난날에)’를 쓰지 않기로 했다면 별개 문제이다.) 지금의 사전대로라면 지금 사용하는 ‘도시락’을 ‘고리버들이나 대오리’ 같은 것으로도 만든다는 말이 된다.

1981년부터 1992년 그 사이에 ‘도시락’이라는 말이 ‘지난날의’ 말에서 ‘이제의’ 말로 되살아난 것일까? 맨 마지막에 ‘썼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라는 의미가 느껴진다. 실제의 사정은 어떻든 이 두 사전만 대조해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락’이 철조망을 넘어 비무장 지대(DMZ)를 지나 북녘 땅으로도 스며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느 탈북한 동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곽밥’은 기차에서 파는 밥이고 집에서 싸는 것은 ‘오편’이라고 한다고 하던 말이 생각난다. 아직 그 일본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그 뒤로 도시락 만드는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하여 ‘보온 도시락’의 기능이 매우 진화하였다. 그런데 그 기술은 무상 급식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 많던 보온 도시락은 다 어디로 갔으며 그것을 만들던 회사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

결들이로 우리가 ‘단무지’라고 고친 그 ‘노란 무’는 그곳에서는 ‘겨절

임무우'로 다듬었다. 2006년 사전에서 그 뜻풀이를 보면 (17)과 같다.

- (17) a. **겨절임무우**: 수들수들 말린 무우를 소금을 섞은 쌀의 속겨에
 묻어서 익히는것 또는 그렇게 한 반찬감. ⊕무우겨절임.
 b. **다꾸양**: →겨절임무우.

참고로 북한은 ‘무우’를 문화어로 유지하는데, 우리는 ‘무우’를 표준어로 하던 것을 ‘무’로 바꾸었다. 1980년대 말의 표준어 사정에서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 정한 것이다. ‘단무지’ 때문에 ‘무우’를 ‘무’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무’는 장음이다. 그런데 우리 맞춤법에 장음 표기를 반영하지 않으니 ‘무우’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논리가 서지 않는다. ‘무우’는 단순한 장음이 아니다. ‘1음절 단어’가 길게 발음되는 것이 장음이다. 그러나 ‘무우’는 ‘2음절 단어’이다. 중세 국어는 ‘무수’이고 방언형은 ‘무시, 무수, 무꾸’ 등이다.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국어심의위원들 속에 목소리 크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라도 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이 표준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한번 잘못 정하면 알면서도 못하고 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문 규범의 숙명이다.

3. ‘길췌’에도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일본식 한자어 ‘노견(路肩)’은 영어의 ‘숄더(shoulder)’를 번역한 것이다. 음으로 읽으면 ‘노견’이 되고 음과 훈을 섞어 읽으면 ‘로〇타’가 된다. 영어의 이 ‘어깨’라는 단어가 길과 관련하여 원래 어떤 것을 가리켰는지 모호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의 주행선 옆에 있는 좁은 길, 비상 구

난차가 다니는, 길 아닌 길을 가리킨다. ‘노견 주행 금지’를 온 고속도로의 가에 써 붙여야 할 시점에 마침 문화부 장관은 이어령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노견’을 참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우리는 1992년 가을의 국어심의회에서 ‘갓길’로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 말을 그곳에서는 어떻게 다듬었을까? 1981년 사전에서 ‘로견’을 찾아보면 (18)처럼 되어 있다.

(18) 로견: (다듬은 말로) 길췌.

다시 이 사전에서 ‘길췌’를 찾아보면 (19)처럼 되어 있다. [×로견]으로 표시하였으니 원말을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19) 길췌: ① 길의 가장자리. ② 길의 옆, 길넉과 같은 말. ③ ((운수))길에서 차길의 량쪽으로 차길과 가지런한 부분. [×로견].

1992년 사전의 ‘로견’, ‘길췌’를 찾아보면 거기서도 (20)처럼 거의 같이 되어 있다. ③의 의미로서의 용법에 대한 뜻풀이가 더 자세해졌다.

(20) a. 로견: (건설) (다듬은 말로) 길췌. [路肩].

b. 길췌: ① 길의 가장자리. ② 길의 옆, 길넉과 같은 말. ③ ((운수)) 자동차길 같은것의 량옆부분. 포장을 지지해 주고 보호하며 차들이 다닐 때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로견].

2006년의 사전에서는 (21)과 같이 ‘로견(路肩)→길췌’으로 하였다. 거의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21) a. 노건(路肩): → 길썰

b. 길썰: ① 길의 가장자리. ② =길턱. ③ ((운수)) 자동차길 같은것의 량옆부분. 포장을 지지해 주고 보호하며 차들이 다닐 때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③의 용법으로서의 ‘길썰’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그 의미가 ‘숄더(shoulder)’의 현재의 뜻이 아니다. ‘포장을 보호하고 운행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말은 ‘숄더(shoulder)’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그냥 길가의 풀이 나 있는 좁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 ‘길썰’은 길 가다가 지치면 주저앉아 쉬어 갈 수 있는 길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물론 ‘길썰’으로는 차가 다닐 수 없다. 따라서 ‘길썰 주행 금지’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길썰’으로 차를 몰고 달릴 운전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해당 용법으로 사용되는 ‘숄더(shoulder)’를 번역한 ‘노건’은 평지보다 높은 고속도로의 바깥에 있는 좁은 길로부터 둥그스름하게 휘어지는 부분—‘길’을 사람으로 보았을 때 ‘어깨’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미국 중서부의 끝없이 곧게 뻗은 평지보다 높은 고속도로를 보지 않고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개념이다. 비상 구난 차나 경찰차가 다니는 이 좁은 길로 주행하지 말라는 것이 ‘노건 주행 금지’의 원뜻이다. 그러면 ‘노건’은 ‘길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1992년에 ‘갯길’로 하기로 합의를 본 후에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이제 ‘갯길’ 하면 적어도 고속도로 가에서는 그 좁은 길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갯길’은 그 사전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1981년 사전에는 ‘갯길’이나 ‘가길’이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사전에는 올림말로 올라 있고 (22a)와 같이 뜻풀이가 되어 있다. ‘갯길’을 2006년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22b)처럼 되어 있는데

둘이 똑같다.

(22) a. 갓길: ① 큰길에서 떨어져서 난 변두리의 길. ② 《보람이 없는 생활》을 비겨 이르는 말.

b. 갓길: ① 큰길에서 떨어져서 난 변두리의 길. ② 《보람이 없는 생활》을 비겨 이르는 말.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갓길’이라는 말을 알았으면 ③의 뜻으로 ((운수))의 용법을 뜻풀이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갓길’을, 우리가 새로 뜻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그 용법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그곳에는 ‘갓길 주행 금지’가 필요할 만큼 고속도로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길썰 주행 금지’를 써 붙여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 ‘노견’은 ‘길썰’으로 하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그곳에서도 ‘훈제 연어’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훈제’라고 쓰는 말, 그 말은 사실 어려운 한자어이다. ‘훈제 연어’는 연어를 연기에 그을려서 오래 두고 보관하여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훈제(燻製)’의 ‘훈(燻)’은 ‘훈(熏)’과 같은 글자로서 ‘연기 낄 훈’이다. 밑에 있는 ‘불 화(火)’가 충분히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곁에 ‘화(火)’를 붙여 강조했다고나 할까? 어쨌든 이 한자가 ‘불 화(火)’ 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혼하지 않다.

1981년 사전에는 ‘내굴쏘임’이라는 올림말이 있다. 필자에게는 전혀

낯선 말이었다. 그 뜻풀이는 (23)처럼 되어 있다. [×훈연] 표시가 있어 ‘훈연’도 찾아보았다.

(23) a. **내굴쏘임**: 연기를 피워서 그슬리는 것 또는 그 그슬린 연기.

[×훈연].

b. **훈연**: (다듬은 말로) 내굴쏘임.

[×훈연]이라는 표시는 ‘훈연’이라는 말을 다듬어서 ‘내굴쏘임’이라고 하기로 했으니 ‘훈연’은 쓰지 말라는 뜻이다. 그다음 올림말로 ‘내굴썸’이 있다. 거기에는 (24)와 같은 뜻풀이가 붙어 있다.

(24) **내굴썸**: 고기나 물고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서 내굴에 그슬려 오

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것 또는 그러한 식료품.

그러니까 ‘내굴’은 ‘연기’라는 말이다. 실제로 북녘 여러 지방에서는 ‘내, 내굴’을 연기의 방언형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도 ‘내’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다. 필자는 ‘연기가 독하여 눈물이 날 지경인 상태’를 형용하는 ‘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 ‘내굴길’은 [×연도]라고 표시하여 ‘연기길’임을 알 수 있다. ‘내굴막’은 ‘어떤 군사 행동을 적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우는 짙은 내굴’로 [×연막]이라는 말을 다듬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에 대하여 (같은 말)로 ‘내굴, 연기’를 두고 있다. ‘ㄴ’은 근대 국어 자료에서 볼 수 있다. ‘내’는 우리 언어 재를 살려 쓴 ‘연기’를 뜻하는 말인데 ‘내굴’은 낯선 것이다.

‘훈제’는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1981년 사전에는 (25)와 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훈연’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대로 (23b)와 같이 처리하였다.

(25) **훈제**: 오리나 닭 같은것을 연기에 그슬려서 오래두고 먹기에
알맞게 만드는것. [다듬은 말로: 내굴찜].

(23b)의 ‘훈연’에 대해서는 아예 뜻을풀이를 하지 않고 ‘내굴쏘임’을 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훈연’은 아주 어려운 한자어라고 판단하여 쓰지 않을 단어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훈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한자어로는 보지 않아 거기에도 뜻을풀이를 하고 다듬은 말인 ‘내굴찜’에도 뜻을풀이를 하였다. ‘훈제’ 정도는 사용해도 되는 한자어로 판단한 것이다.

1992년 사전에서 ‘내굴쏘임’과 ‘훈연’을 찾아보면 (26)과 같다. 이것은 거의 1981년 사전과 같다. 그런데 (26b)의 ‘훈연¹’과 ‘훈연²’는 한자가 바뀌어 있다. 1992년의 사전이 매우 서둘러서 출판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26) a. **내굴쏘임**: 연기를 피워서 그슬리는것 또는 그 그슬린 연기.
[×훈연].
- b. **훈연¹**: 냄새가 좋은 연기. [薰煙].
- 훈연²**: (다듬은 말로) 내굴쏘임. [薰煙].

그러나 1992년 사전의 ‘내굴찜’은 (27a)처럼 1981년 사전과 거의 같이 뜻을풀이하였으면서도, 1981년 사전에는 없던 [×훈제]라는 표시를 덧붙였다. 그리고 뜻풀이가 약간 변하였다. 이제 ‘훈제’도 사용하지 않도록 지정된 것이다. ‘훈제 연어’를 쓰지 않고 ‘내굴찜 연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 (27) a. **내굴찜**: 고기나 물고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서 내굴에 그슬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것 또는 그러한 식료품. [×훈제].
b. **훈제**: 물고기나 육불이 등을 소금에 절구고 연기에 그슬려서
오래 두고 먹기에 알맞게 만드는것 또는 그런 제품. [다듬은
말로: 내굴찜].

2006년 사전은 (28)과 같이 처리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연], [×훈제] 표시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굳이 쓰지 말아야 할 순화 대상 단어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 한자어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순화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 (28) a. **내굴쪼임**: 연기를 피워서 그슬리는 것.
b. **내굴찜**: 고기나 물고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서 내굴에 그슬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것 또는 그러한 식료품.
c. **훈제**(燻製): 물고기나 육불이 등을 소금에 절구고 연기에 그
슬려서 오래 두고 먹기에 알맞게 만드는것 또는 그런 제품.

(28b)의 ‘내굴찜’은 뜻풀이가 1981년의 (24), 1992년의 (27a)와 똑 같다. (27a)에서 [×훈제]라 표시했던 것이 (28b)에는 없다. (28c)의 ‘훈제’는 뜻풀이가 1992년 사전의 (27b)와 똑같고 (다듬은 말로: 내굴찜)이라는 표시가 없다. 이것은 이제 이 ‘훈제’가 ‘내굴찜’과 거의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훈제’ 대신에 ‘내굴찜’을 사용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굴에 그슬려서’와 ‘연기에 그슬려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훈’을 ‘내굴에 그슬려서’로 다듬었는데 그 말을 뜻풀이하면서 다시 ‘연기’를 사용하고 있다. ‘연기’는 어

떨 수 없이 사용하는 한자어인데 ‘훈연’의 ‘연’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2006년 사전에는 ‘훈연’이 (29)와 같이 처리되었다. ‘훈연’¹에는 뜻풀이를 하였고 ‘훈연’²에는 하지 않았다.

(29) a. 훈연(薰煙)¹: 냄새가 좋은 연기.

b. 훈연(燠煙)²: → 내굴쏘임.

‘훈연’²에 뜻풀이를 하지 않고 다듬은 말을 권장하는 것은 ‘훈제’와는 차이를 둔 것이다. ‘훈연’은 어려운 한자어로서 바꾸어 쓸 대상이고 ‘훈제’는 쉬운 한자어여서 그대로 써도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도 ‘훈제 연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992년 사전에서는 이 두 ‘훈연’의 한자어가 뒤바뀌어 있었는데, 2006년의 사전에서는 한자를 제대로 바로잡았다.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이 서둘러 만들어졌음을 보여 주는 예는 또 있다. 이 사전의 가장 큰 결함은 236쪽의 편집 오류였다. 거기에는 ‘고향하다’라는 올림말이 나오고 나서 ‘고혈’²가 나온다. 왜 갑자기 ‘고혈’²가 나올까? 필자는 1994년쯤 이 사전을 검토할 때 깜짝 놀랐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21개의 올림말을 헤아려 내려가면 ‘고혹’이라는 올림말이 나온다. 그다음에 ‘고향’이라는 올림말이 나오고 다시 22개의 올림말을 헤아려 나아가면 그 아래에 ‘고혈’¹이 나온다. 그러니까 ‘고향’부터 ‘고혈’¹까지의 부분이 ‘고향하다’와 ‘고혈’²의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잘못 편집되어 ‘고혈’²부터 ‘고혹’까지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편집 오류임에 틀림없었다. 마침 의학 용어들을 검토한 것을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이를 서정목(1996: 48)에서 지적하였었다.

필자는 2006년 사전을 처음 접하자마자 바로 이 부분을 찾아보았다. 그 사전의 342쪽 ‘고혈’ 다음에는 정확하게 ‘고혈²’가 와 있었다. 그리고 ‘고향’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 ‘고향하다’의 바로 아래 올림말로 자리 잡았다. 2006년 사전에서는 ‘고향내기’, ‘고향친구’의 두 올림말이 더해져서 ‘고향’부터 ‘고혈’까지의 24개의 올림말이 앞으로 옮겨가 제자리에 놓인 것이다. 이것이 고쳐진 것을 보고 필자는 그곳의 우리 동업자들이 참으로 성실하게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고혹(蠱惑)¹’과 ‘고혹(固惑)²’가 있다. ‘고혹(蠱惑)¹’에는 지난날에 쓰이던 한자말이나 한문 투의 말에 대한 표시인 (낱)이라 표시하고 ‘치우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것.’이라 뜻풀이하였다. 새로 등재된 ‘고혹²’는 ‘몹시 반하거나 마음이 끌리는 것’으로 뜻풀이되었다.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이가 ‘하늘소기침’을 한다

이제 전문 용어 다듬기가 진행된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1960년 7호 《말과 글》에는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의학 부문)’에 ‘방광-오줌통(오줌개)’이 있다. ‘방광’이라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우리말인 ‘오줌통’과 ‘오줌개’로 고치자는 제안이다.

1981년 사전에서 이 말들을 찾아보니 (30)과 같이 되어 있다. ‘오줌통②’가 ‘오줌개’와 같고, ‘오줌주머니’와 더불어 그 셋이 ‘방광’을 다듬은 말이다. [×방광]이라고 표시해 ‘방광’은 일단 안 쓰기로 권장되었다.

(30) a. **방광**: ((생리))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일단 받아두는

주머니모양의 기관.

- b. **오줌통**: ① 오줌을 누거나 받아서 담아두는 통, ② =오줌개.
- c. **오줌개**: ((생리))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일단 받아두는 주머니모양의 기관. (같은말) 오줌통, 오줌주머니. [방광].

1992년 사전도 역시 ‘방광’을 올림말로 하였다. (31b)의 ‘오줌통’이 약간 변화가 있다. 이제는 ‘오줌통’의 제① 뜻이 ‘오줌개’가 되었다. (31c)도 큰 변화는 없지만 [방광] 표시가 없어졌다.

(31) a. **방광**: ((생리))=오줌개. [膀胱].

- b. **오줌통**: ① 오줌개, ② 오줌을 누거나 받아두는 통.
- c. **오줌개**: ((생리))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일단 받아두는 주머니모양의 기관. ⊕ 오줌통①. 오줌주머니.

2006년 사전에도 역시 ‘방광(膀胱)’을 올림말로 하였고 (32)와 같이 처리하였다.

(32) a. **방광(膀胱)**¹⁾: ① =오줌개. ② 고려의학에서, 귀침혈에 속하는 침혈이름. 큰 귀테아래모에 있다. 방광염 신우콩팥염, 신경쇠약 등에 침을 놓는다. ③ 고려의학에서, 코침혈에 속하는 침혈이름. 코날개가 끝나는 곳에 있다. 방광 및 오줌관결석수술때에 침마취혈로 쓴다.

- b. **오줌통**: =① 오줌개, ② 오줌을 누거나 받아두는 통.
- c. **오줌개**: ((생리))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일단 받아두는 주머니모양의 기관. ⊕ 방광①. 오줌주머니, 오줌통①.

1981년의 사전이 가장 강력하게 ‘방광’을 쓰지 말고 ‘오줌개’, ‘오줌통’, ‘오줌주머니’를 쓰도록 한 것 같지만, 1960년에 제안되어 40년 동안 추진해 온 ‘말 다듬기 운동’이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방광 퇴출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아주 특이한 것은 1960년 7호 《말과 글》의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의학 부문)’에서 제안된 ‘백일해-당나귀기침(백날기침)’의 경우이다.

1981년 사전에는 (33)처럼 되어 있다. ‘백날기침’에만 뜻풀이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백날기침’이 주된 단어임을 의미한다.

(33) a. **백일해**: (다듬은 말로) 백날기침.

b. **백날기침**: ((의약)) 돌림병의 한 가지. 공기전염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린다. (같은말) 당나귀기침.

c. **당나귀기침**: 《백날기침》을 달리 이르는 말.

1992년 사전에는 (34)와 같이 되어 있다. ‘백날기침’에 뜻풀이를 하여 이 단어가 주된 단어임을 나타내었다. [×백일해로 표시해, ‘백일해’는 안 쓰기로 하였다. (34c)의 ‘긋는다’는 ‘기침을 긋는다’는 동사로 ‘긋다’가 등재되어 있다.

(34) a. **백일해**: (다듬은 말로) 백날기침. [百日咳]

b. **백날기침**: ((의학)) 백날기침막대균의 감염으로어린이 호흡기성 전염병. ⊖ 당나귀기침. [×백일해].

c. **당나귀기침**: 《백날기침》을 당나귀울음같이 긋는다고 하여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2006년 사전에도 ‘백일해(百日咳)’가 올림말로 되어 있다. (35b)의 ‘하늘소 우는 소리’가 매우 이상했다. 1992년 사전에서는 ‘당나귀울음’이라 한 것이다. 그래서 ‘당나귀’를 찾아보았더니 (35c)처럼 되어 있다. ‘당나귀’를 ‘하늘소¹’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하늘소¹’을 찾아보았더니 과연 ‘하늘을 보며 우는 소’라고 하여 ‘당나귀’의 뜻을 주고 있었다. 그 밑에는 ‘하늘소²’가 나온다. ‘돌드레’라고 뜻을 주었다.

(35) a. **백일해**: → 백날기침.

b. **백날기침**: ((의학)) 백날기침막대균의 감염으로 ……어린이 호흡기성 전염병. 마지막에 가서는 들이쉬는 숨소리가 마치 하늘소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c. **당나귀**: → 하늘소¹

d. **당나귀기침**: → 하늘소기침

e. **하늘소¹**: 말과에 속하는 짐승의 한가지. 말보다 몸이 작고 귀가 길고 종긋하며 털빛이 누런 갈색, 재빛이 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이다. 힘이 세여 부리기에 좋다. 《하늘소》는 하늘을 보며 우는 소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f. **하늘소²**: 《돌드레》를 달리 이르는 말.

g. **하늘소기침**: 백날기침을 하늘소울음같이 낫는다고 하여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h. **돌드레**: <《돌드레과에 속하는 곤충》>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힘이 세여 돌도 든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하 생략)

이 부분을 쓰고 있을 때 마침 곽충구 교수가 전화를 걸어 왔다. 곽 교

수에게 물었더니, 그의 첩보는 함경도 방언에서는 ‘장수하늘소’를 ‘돌드레’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백일해, 백날기침, 당나귀기침, 하늘소기침’이 같은 말이 되었다. 본질적으로는 46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다. 한자어는 사라지지 않았고, 고유어 쪽이 자꾸 새로 만들어지고 바뀌면서 2중 어휘 체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만 할 따름이다.

6. 영화 자막의 ‘나오는 사람들’은 ‘배역’이라고 해야 하겠다

북한의 말 다듬기는 공산 체제 확립을 위한 문맹 퇴치에서 출발한다. 광복 당시 북한 지역에만 230여 만 명의 문맹자가 있었다고 한다. 소련 군 장교 출신을 중심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하여 북한 정권을 수립한 그들은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데 문맹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주민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위해서는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는 일, 그 지름길은 한자를 폐지하는 일이었다.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달성하는 길이었다. 한자를 폐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다듬는 일이 필요하였다.

1948년 2월 앞으로 출판물에 한자를 쓰지 말고 우리 글자만으로 쓰는 데 대한 방침이 발표되었다. 1948년 10월 내각 지시 38호 ‘동기 문맹 퇴치 및 성인 재교육 추동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남은 문맹의 최종적인 퇴치를 위한 조치로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까지 4개월간 ‘제2기

돌격 운동 기간, 제2차 동기 문맹 퇴치 및 성인 재교육 돌격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949년 3월까지의 문맹 퇴치가 기본적으로 완료되고 신문, 잡지, 단행본 등 일체의 출판물에서 한자를 쓰지 않고 순한글만 쓰게 되었다.

한자를 폐지하고 나서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만 적다 보니 독해력이 저하되었다. 그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꾸어 쓸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한자어는 일제 시대의 유산이라는 의식이 작용하여 바꾸어 써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보되었다. 결국 말 다듬기는 공산화 고착을 위한 사상 교육에 방해가 되는 문맹을 퇴치한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출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 기술 용어를 비롯한 학술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이들을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 과학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2월 교육성에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때 한자어 문제에 관한 (36)과 같은 3원칙이 발표되었다.

- (36) a. 한자말과 순조선말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순조선말로 한다.
- b. 새말을 만들 경우 순조선말로 한다.
- c. 순조선말에 없는 한자말도 더 좋은 순조선말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친다.

1964년 1월 3일에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라는 담화가 발표되었다. 말 다듬기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37)과 같다. 1964년에 국가 심의 기관으로 '국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37) a. 단어체계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2중 체계로 할 것이 아니라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 b. 굳어진 한자어는 버릴 필요가 없다. 과학 논문이나 정치 보
고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쓸 수 있다.
- c. 정치 술어는 좀 복잡하다. 한자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중국
어를 발음만 고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d. 외래어는 고유어로 다듬어야 한다. 영어나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는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

1966년 5월 14일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교시가 발표되었다. 말 다듬기 관련 중요 사항을 정리하면 (38)과 같다.

- (38) a. 평양말을 중심으로 다듬어진 공통어를 문화어로 부른다.
- b. 고유어와 한자어가 뜻이 같을 때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어를
사전에서 삭제해야 한다.
- c. 방언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어 써야 한다.
- d. 새로운 말은 고유어로 만들어 써야 한다.
- e. 일본식 한자어는 무조건 고친다.
- f.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 우리 말로 고친다.
- g. 학술용어는 너무 풀어쓰지 말아야 한다.
- h.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중의 평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 i. 일상용어부터 하라. 군사 용어는 앞으로 사정을 보아 고치
겠다.
- j. 학술용어는 중앙에서 하라.

이 교시에 의하여 1966년부터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 원 국어사정지도처, 언어학연구소의 18개 전문 용어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말 다듬기를 정부 주도로 전개하였다. 그런데 정치 용어와 군사 용어는 뒤로 미루었다. 대중이 강요된 사상 교육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정치, 군사 용어들이 한자어의 성역 지대로 남은 것이다. 정치, 군사 종사자들은 거리낌 없이 한자어를 상용하는데 일반 민중과 전문가들에게는 어려운 한자어 쓰지 말고 쉬운 말 골라 쓰라고 해서야 제대로 될 리가 없다. 1970년대부터는 이른바 주체의 언어 이론이란 이름으로 주체사상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 1981년의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이다.

그러나 1992년 사전, 그리고 2006년 사전을 보면 1981년의 사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한자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다듬기가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자를 사전에 노출한 점이다. 1992년 사전에는 한자를 뜻풀이 뒤에 []에 넣어 표시하였다. 2006년 사전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광(膀胱)’과 같이 직접 한자어에 한자를 표시해 주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1985년의 《문화어 학습》에 ‘영화예술론’이 발췌되어 실린다. 이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에서 말 다듬기에 관한 것을 요약하면 (39)와 같다.

- (39) a. 널리 알려지고 굳어진 말은 다듬지 말아야 한다.
- b.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고착된 말은 한자어에서 온 것이라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
- c. 영화의 자막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쓴 것은 뜻이 맞지 않으므로 ‘배역’이라고 해야 하겠다.

- d. 지금 말 다듬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미 굳어진 말까지 쓸데없이 풀어쓰다 보니 오히려 뜻이 모호하고 어색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인쇄공장’, ‘인쇄날자’라고 하면 될 것도 ‘책 찍은 곳’, ‘책 찍은 날’이라고 하고 있다.
- e. 말을 다듬어 쓴다고 하여 망탕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 1992년 사전이고, 이를 보완한 것이 2006년 사전이다.

7.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60년 동안 진행된 북한의 말 다듬기에 대하여 외래어,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전문 용어 등에서 대표적인 구체적 예들을 뽑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말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버지’에 의하여 시작된 인위적 언어 순화 정책이 ‘아들’에 의하여 종식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남북한 언어 순화 대조 자료집들을 모두 검토하였다. 총체적인 느낌은 순화 대상으로 삼은 말들도 비슷하고 순화한 말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남북한의 순화한 말이 차이 나는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여 주는 말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이 글만 보면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자어를 다듬은 고유어는 대부분 일치한다. 그 한자에 그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수표’가 ‘서명’이나 ‘돈 대용품’이나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2006년의 사전에는 명쾌하게 (40)과 같이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 (40) a. 수표(手票)¹: 증명이나 확인을 위하여 도장 같은 것을 찍는 대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이름 또는 이름을 나타내는 일정한 표식을 하는 것 또는 그 표식.
- b. 수표(數表)²: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함수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계산하여 차례로 적어놓은 표.
- c. 수표(手標)³: 돈이나 물건의 대차관계 등에서 주고받는 증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수표’는 ‘수표³’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수표’라고 할 때 ‘서명’을 뜻할 때도 있다는 교육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6년 사전에는 한자어도 많이 등재되어 있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한자, 한문을 모르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지하철역에 써 붙인 시의 제목으로 <미물(美物)>이 있어 무슨 시인가 하고 보았더니, 내용은 ‘미물(微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인도 의미 있는 ‘미물’같이 살고 싶다는 구절의 ‘미물’을 버젓이 ‘미물(美物)’이라고 쓰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되겠는가? 어안이 병병해질 뿐이다. 최고의 중앙 일간지라 자부하는 신문의 기자가 전자 신문에 실은 중국 기행문에서 ‘관우(關羽)’를 모신 ‘관림(關林)’을 가는 길을 안내하면서 ‘관림’으로 가는 버스에는 ‘미림(美林)’으로 적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아는 척하는 세상이다. ‘관(關)’을 중국 간체자로 쓴 것이 그에게는 ‘미(美)’자로 보인 것일까? 최근 필자는 《삼국유사》의 번역

서들을 검토하면서 너무나 오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가 막혀 앞으로 고전 연구가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많은 한자어를 다듬는 노력으로 초등학교 아동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자를 가르쳤다면 이 지경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래어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도 많다. 다만 많은 국명, 지명 등의 외래어가 러시아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서 ‘헝그리아(헝가리), 뿔스카(폴란드), 캄빠니아(캠페인)’ 등 낯선 것이 많다. 된소리를 적는 것도 우리와 달라 낯설게 느껴진다.

남북한의 사전은 서로 매우 다르다. 올림말 배열 순서가 북한은 ‘아버지, 어머니’ 등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맨 뒤로 가 있다. 모음도 우리는 ‘아, 애, 야, 얘, 어, 에, 여, 예……’ 순서인데, 그쪽은 ‘아, 야, 어, 여…… 애, 예……’ 순서이다. 단어의 배열 순서가 다 달라진다. 어문 규범도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이를 절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사전은 실용할 책이다. 쓰이지 않는 사전은 불필요한 사전이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전을 절충하여 새로운 통일 사전을 만들면 남북한 아무 데서도 사용할 수 없는 불필요한 사전이 된다. 괜히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쪽으로 통일되면 우리 것은 다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쪽으로 통일되면 관용을 베풀어 저쪽의 좋은 점을 최대한 받아들이면 된다.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81), 《현대조선말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6),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목(1996), 북한의 전문 용어 다듬기에 대하여-의학, 약학 용어를 중심으로,
《의학용어와 의학교육》, 대한의사협회.

국어 정보화의 방향

문자 코드를 중심으로

박진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국어 정보화의 기본 개념

이 글에서는 국어 정보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앞으로 국어 정보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정보화란 무엇인지, 국어 정보화의 기본 개념들을 알아본다.

1.1. 무엇을 정보화한다는 것의 의미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와 명령을 2진수로 표상한다. 그것은 컴퓨터의 저장 장치와 연산 장치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기억 소자는 두 가지 상태(켜져 있는 상태와 꺼져 있는 상태, 즉 1과 0)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연산은 궁극적으로 ‘어떤 위치의 기억 소자 상태를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바꾸라’는 원초적인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X 정보화’란 X를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X를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X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데에는 입력, 내부 처리, 출력의 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X가 무엇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X가 음악 또는 소리이면 입력은 공기 중에서 음파의 형태로 구현되는 소리 정보(아날로그 사운드)를 마이크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흡수하는 것이 된다. 내부 처리는 아날로그 사운드에 포함된 여러 정보(파형, 주파수, 세기 등)를 일정한 규약에 따라 디지털화(2진수로 표현)하여 디지털 파일의 형태(wave, mp3 등)로 저장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출력은 디지털 사운드 파일을 스피커, 이어폰 등의 출력 장치를 통해 아날로그 사운드(음파)로 재현하는 것이다.

X가 시각적 이미지이면 입력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시각 정보(아날로그 이미지)를 스캐너, 카메라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흡수한다. 내부 처리는 아날로그 이미지에 포함된 여러 정보를 일정한 규약에 따라 디지털화하는 방법이 관건이 된다. 예컨대 아날로그 이미지가 펼쳐져 있는 공간을 일정한 수의 격자(화소)로 분해하고 각 격자의 색채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각 화소의 색채를 $R \cdot G \cdot B$ 의 세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0~255 사이의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 정수도 궁극적으로는 2진수로 표현되겠지만 말이다.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미지 파일도 bmp, jpg, gif 등 여러 가지 포맷이 생겨났다. 이미지를 이런 파일 형태로 표상하면 매우 손쉽게 저장하고 유통할 수 있다. 출력 단계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모니터,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를 통해 아날로그 이미지로 재현하게 된다.

1.2. 국어 정보화의 의미

X가 국어를 포함한 언어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언어는 음성과 문자의 두 가지 매체로 표현된다. 음성 언어 정보를 매체의 특성까지 살려서 정보화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음악·소리를 정보화하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 문자는 위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정보화를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즉, 국어 정보화의 두 가지 측면 중 문자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문자 정보화의 입력 단계에서는 키보드나 터치 패드상의 가상 키보드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일정한 규약에 따라 정해진) 키 스트로크 연쇄와 문자 간의 매핑 관계에 따라 문자 정보를 입력한다. 내부 처리 단계에서는 미리 정해진 규약에 따라 문자를 2진수 형태로 변환하여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유통한다. 출력 단계에서는 2진수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정해진 규약에 따라 문자로 매핑하여 각 문자를 모니터·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에 시각적 형태의 문자로 재현한다. 하나의 문자가 폰트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언뜻 생각하면 입력→내부 처리→출력의 순서로 일이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입력을 포함한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어 정보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2. 문자 코드의 기초: 아스키 코드

문자를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문자를 2진수로 어떻게 표상할지 결정되어야 한다. 각 문자와 2진수 사이의 매핑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문자 코드라고 한다.

0 또는 1의 한 자리 2진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를 비트(bit)라고 한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최소의 기억 소자가 이에 해당한다. 1비트의 저장 공간으로는 두 가지 기호밖에 구분할 수 없다. 8비트의 묶음을 1바이트(byte)라고 한다.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기호의 개수는 $2^8=256$ 개이다.

컴퓨터 기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 문자 정보화를 추진할 때 역시 문자 코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는 로마자(영문자)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0~9), 기호 등을 모두 합쳐도 100개 남짓이어서, 모든 문자를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다. 미국국가표준기구(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이 문자들과 2진수 사이의 매핑 관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아스키(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부른다.

아스키 코드에 영문자 대문자는 65~90, 소문자는 97~122에 배정되어 있고, 숫자는 48(0)~57(9)에 배당되어 있다. 여기서 A의 코드 값이 65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10진수 65를 2진수로 나타내면 1000001이 된다. 즉, 1바이트의 저장 공간에 01000001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다.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충실하게 묘사하려면 2진수가 가장 좋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불편하므로, $2^4=16$ 진수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6진수를 표기할 때에는 앞에 '0x'를 붙

여서 10진수와 구별한다. 즉, A라는 문자의 코드 값은 0x41이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메모장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열고 키보드를 이용하여 ‘Hello!’라고 입력하면 메모리에는 ‘01001000 01100101 01101100 01101100 01101111 00100001’과 같이 2진수들의 연쇄로 기록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2진수들의 연쇄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이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둔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열면 각 2진수들이 미리 약속된 매핑 관계에 따라 모니터에 문자로 변환되어 표시된다.

3. 1바이트 문자와 2바이트 문자

한글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만 따져도 수천 개나 되기 때문에, 1바이트 가지고는 모든 한글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없다. 반면에 2바이트로는 모든 한글 문자들을 나타낼 수 있다. 2바이트는 16비트이고, $2^{16}=65,536$ 개의 기호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한글을 다 표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예컨대 한글 문자 ‘가’는 ‘10110000 10100001(16진수로는 0xb0a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할 때, 저장 공간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1바이트짜리인지 2바이트짜리인지 어떻게 알까? 그것은 각 바이트의 첫 번째 비트(MSB, Most Significant Bit)를 보고 알 수 있다. 1바이트 문자는 MSB가 0이고, 2바이트 문자는 MSB가 1이라고 규약을 정해 놓으면 된다.

4. 문자 코드의 국가 표준

문자 코드의 표준이 없고 회사마다 기계마다 다르다면 A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텍스트 문서를 B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소프트웨어로 열어 보면 완전히 다른 문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호환성이 없게 된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처리를 위해서는 문자 코드의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문자 코드의 국가 표준으로 정했고, 그 후 전 세계에서 아스키 코드가 국제 표준처럼 자리 잡았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로마자를 많이 사용하므로 어차피 이들에 대한 문자 코드를 배정해 놓아야 하고, 문자 코드를 미국 국가 표준과 굳이 다르게 정해서 호환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스키 문자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 특히 1바이트 문자뿐 아니라 2바이트 문자까지 사용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문자 코드의 표준을 정하는 일이 그리 단순치 않을 수 있다. 경제성(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할수록 좋음)과 효율성(연산을 빨리 수행할수록 좋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종종 충돌하기 때문이다.

5. 한글 문자 코드의 초기 역사

한글 문자 코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초기에는 한글 한 글자를 3바이트로 표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한글 한 글자가 초성 1바이트, 중성 1바이트, 종성 1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글 한 글자가 초성, 중성, 종성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초창기에는 저장 공간이 비쌌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가능한 한 적게 차지하는 방안이 선호되었고, 2바이트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3바이트로 표현하는 방안은 환영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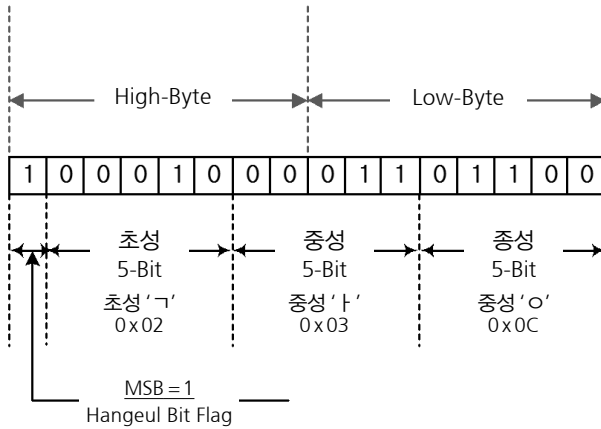
그 외에 가변 바이트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는 한글 한 글자를 구성하는 자소의 개수만큼 바이트를 배당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는 2바이트, ‘강’은 3바이트, ‘읽’은 4바이트가 된다.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나 역시 경제성의 측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 후 한글의 구성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경제적인 방안이 모색된다.

6. 조합형 한글 코드

조합형 한글 코드(KSSM)는 한글 한 글자를 2바이트, 즉 16비트로 표현한다. 다만 첫 비트(MSB)는 1로 고정되어 있다. 2바이트 문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15비트 중 앞 5비트는 초성, 그다음 5비트는 중성, 마지막 5비트는 종성을 나타낸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초성, 중성, 종성 모두 5비트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5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기호의 개수는 $2^5=32$ 가지이고, 한글의 초성은 19개, 중성은 21개, 종성은 28개이므로 모두 5비트로 표현 가능하다.

조합형은 2바이트라는 적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한글의 구성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즉, 글자의 코드 값을 보고 약간의 연산을 수행하면 초성, 중성, 종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의 한글 글자를 분해하여 초성, 중성, 종성이 무엇



[그림 1] 조합형에서 '강'을 표상하는 방법

인지 알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의 뜻을 알려 주는 일종의 사전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사전에 들어 있지 않으면 “~은/는 사전에 안 들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조사로 ‘은’을 쓰지 ‘는’을 쓰지는 해당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이라는 한글 글자는 초성 ‘ㄱ’, 중성 ‘ㅇ’, 종성 ‘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성 ‘ㄱ’은 2진수 ‘00010’(16진수 0x02)’으로 나타내고, 중성 ‘ㅇ’은 2진수 ‘00011’(16진수 0x03)’로 나타내고, 종성 ‘ㅇ’은 2진수 ‘01100’(16진수 0x0c)’으로 나타낸다. 즉, ‘강’의 코드 값은 2진수 ‘10001000 01101100’(16진수 0x886c)’이 된다.

조합형 한글 코드에서 각 초성, 중성, 종성에 배당된 코드 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합형에서 각 초성, 중성, 종성에 배당된 코드 값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초성	채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ㅅ	ㅈ
중성		채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ㅟ	ㅡ	ㅓ	ㅕ
종성	채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ㅅ	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초성	ㅊ	ㅋ	ㅌ	ㅍ	ㅎ										
중성			ㅓ	ㅕ	ㅗ	ㅛ	ㅜ	ㅟ	ㅡ		ㅛ	ㅡ	ㅓ	ㅕ	
종성	ㅈ	ㅊ		ㅍ	ㅍ	ㅅ	ㅈ	ㅊ	ㅅ	ㅈ	ㅊ	ㅌ	ㅍ	ㅎ	

7. 완성형 한글 코드

조합형이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정부에서 국가 표준으로 채택한 것은 완성형 한글 코드였다(KSC 5601, KSX 1001). 조합형이 초성·중성·종성 코드를 조합·결합하는 방식인 데 비해 완성형은 그렇지 않다.(그래서 ‘완성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완성형 역시 한글 한 글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1만 1,172자(초성 19×중성 21×종성 28) 전부에 코드를 배당하지 않고, 현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글자 2,350자만을 추려서 코드를 배당하였다. 두 바이트 중 앞 바이트는 0xb0~0xc8(25개), 뒤 바이트는 0xa1~0xfe(94개)를 한글 영역으로 사용한다(25×94=2,350자). 한편 앞 바이트 0xca~0xfd(52개), 뒤 바이트 0xa1~0xfe(94개)의 영역은 한자를 위해 배당되었다. 즉, 완성형 한글 코드에서 한자는 52×94=4,888자가 표현 가능하다.

8. 완성형의 문제점

애초에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2,350자에서 배제되었던 글자 중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예컨대 <똥방각하>라는 소설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똥’은 2,350자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글자들이 여럿 생기자 완성형(정확히 말하면 KSC 5601)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98을 출시하면서 이 문제를 보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통합형 한글(Microsoft Unified Hangul) 코드를 내놓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1만 1,172자 중 배제되었던 한글 8,822자에 새로 코드를 배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 배당하는 글자의 코드 영역이 기존 글자의 코드 영역과 겹치면 안 된다. 이것은 하위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이라는 컴퓨터 세계의 대원칙 때문이다. 컴퓨터 관련 규약을 업데이트할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만 해야지, 기존의 약속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의 규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이 새 버전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코드를 배당받은 8,822자는 기존 코드 체계의 빈자리를 찾아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문자 코드 값 배열 순서가 한글 자모 배열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ㄱ’은 ‘각’보다 자모순으로 뒤에 와야 하지만 코드 값은 ‘ㄱ’이 ‘각’보다 앞에 오게 된 것이다. 이는 소팅에 문제를 불러온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코드 값에 따라 소팅을 한다. 그런데 코드 값에 따라 소팅을 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이

[표 2] 완성형에서 코드 순과 자모순의 불일치

연번	KS C 5601 코드	통합형 코드	한글
1	0xB0A1	0xB0A1	가
2	0xB0A2	0xB0A2	각
3	-	0x8141	각
4	-	0x8142	값
5	0xB0A3	0xB0A3	간
6	-	0x8143	값
7	-	0x8144	값
8	0xB0A4	0xB0A4	간
9	0xB0A5	0xB0A5	갈
10	0xB0A6	0xB0A6	값
11	0xB0A7	0xB0A7	값
12	-	0x8145	값
13	-	0x8146	값
14	-	0x8147	값
15	-	0x8148	값
16	-	0x8149	값

다. 물론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문자 코드 정책을 정했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완성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소 분해를 하려고 할 때 드러난다. 조합형은 코드 자체만 보면 초성·중성·종성을 알 수 있지만, 완성형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성형 한글에서 자소 분해를 하려면, 미리 완성형-조합형 매핑 테이블(그림 2 참조)을 만들어 놓고, 분해하고자 하는 한글의 완성형 코드 값과 대응되는 조합형 코드 값을 얻어서 이를 바탕으로 자소 분해를 해야 한다.

1	0xb0a1,	0x8861,	가
2	0xb0a2,	0x8862,	각
3	0xb0a3,	0x8865,	간
4	0xb0a4,	0x8868,	간
5	0xb0a5,	0x8869,	갈
6	0xb0a6,	0x886a,	갑
7	0xb0a7,	0x886b,	갸
8	0xb0a8,	0x8871,	감
9	0xb0a9,	0x8873,	갑
10	0xb0aa,	0x8874,	갸
11	0xb0ab,	0x8875,	갓
12	0xb0ac,	0x8876,	갓
13	0xb0ad,	0x8877,	강
14	0xb0ae,	0x8878,	갓
15	0xb0af,	0x8879,	갓
16	0xb0b0,	0x887b,	갈
17	0xb0b1,	0x887c,	갸
18	0xb0b2,	0x887d,	갈
19	0xb0b3,	0x8881,	개
20	0xb0b4,	0x8882,	객
21	0xb0b5,	0x8885,	간
22	0xb0b6,	0x8889,	갸
23	0xb0b7,	0x8891,	갸
24	0xb0b8,	0x8893,	갸
25	0xb0b9,	0x8895,	갸
26	0xb0ba,	0x8896,	갸
27	0xb0bb,	0x8897,	갸
28	0xb0bc,	0x88a1,	가
29	0xb0bd,	0x88a2,	각
30	0xb0be,	0x88a5,	간

[그림 2] 완성형-조합형 매핑 테이블

9. 일본, 중국, 대만의 문자 코드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1바이트 문자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름의 2바이트 문자 코드 체계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JIS(Japan Industrial Standard)라는 코드 체계와 이를 간소화한 시프트 JIS(Shift-JIS)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 EUC(Extended Unix Character set)-JP도 많이 사용한다. 간체(簡體)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에서 채택된 표준은 GB라고 하고, 번체(繁體)를 주로 사용하는 대만에서 채택된 표준은 BIG-5라고 한다.

10. 문자 코드의 국가 간 충돌

각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글자에 어떤 코드 값을 배정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신경을 썼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코드 값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글자가 각 문자 코드 체계에서 서로 다른 코드 값을 배정받게 되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의 코드 값(code point)이 각 코드 체계에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문서 내에서 한글, 한자(번체자, 간체자), 가나 등을 섞어서 쓰기가 어렵게 되었고, 모든 텍스트 문서는 “이 문서는 ~ 코드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이라는 정보를 포함해야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인코딩을 오인하면 문자 깨짐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가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때, 가끔 이런 문자 깨짐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그것은 해당 웹사이트의 HTML 파일의 헤더에 인코딩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illegible]

그림 3 | 왼쪽부터 S-JIS, EUC-JP, GB, BIG-5 코드 체계 테이블

11. 유니코드의 대두

이러한 국가 간 코드 영역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세계의 모든 문자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면서 각 문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 통일된 문자 코드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세계 공통의 문자 코드를 통해 자사 제품의 지역화(localization) 비용을 줄이려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한 후원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성된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유니코드(Unicode)의 제정과 업데이트를 주관하고 있으며(<http://www.unicode.org> 참조), 국제 표준 기구(ISO)에서도 유니코드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였다(ISO/IEC 10646).

12. 유니코드의 문자 인코딩 방식

유니코드에서 문자를 인코딩하는 방식에는 UTF-32, UTF-16, UTF-8의 세 가지가 있다. UTF-32는 모든 문자를 4바이트=32비트로 표현한다. 따라서 $2^{32}=4,294,967,296$ 개(약 43억 개)의 문자들을 구별하여 표상할 수 있다. UTF-32는 모든 문자를 일관되게 4바이트로 표현하므로, 소프트웨어가 특별한 고려를 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게 문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는 데 너무 많은 저장 공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반도체 가격이 빠른 속도로 싸지고 있으므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대용량 서버를 운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저장 공간은 곧 돈과 직결된다.

UTF-16은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는 2바이트로 표현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글자는 4바이트로 표현한다. 전자의 글자들은 BMP(Basic Multilingual Plane)에 속한다고 하고, 후자의 글자들은 SP(Supplementary Plane)에 속한다고 한다. 하나의 글자가 2바이트짜리인지 4바이트짜리인지를 컴퓨터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BMP에 속하는 글자는 $2^{16}=65,536$ 개의 코드 값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4바이트 문자가 사용하는 영역을 서로게이트(surrogate) 영역이라고 하는데, 앞의 2바이트(High-Surrogate)는 U+D800~U+DBFF(즉, 상위 6비트는 110110으로 고정되고, 나머지 10비트만 사용), 뒤의 2바이트(Low-Surrogate)는 U+DC00~U+DFFF(즉, 상위 6비트는 110111로 고정되고, 나머지 10비트만 사용)에 해당한다. BMP에 속하는 문자는 이 서로게이트 영역은 비워 두어야 한다. 그래도 영문자, 한글, 한자 등 상당수의 문자들을 BMP 내에서 표상할 수 있다.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는 적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글자는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한결음 더 발전시킨 것이 UTF-8이다. UTF-8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1~4바이트로 표상된다. 하나의 글자가 몇 바이트로 표현되는가는 첫 바이트의 상위 비트(들)로 표현한다. 1바이트 문자의 MSB는 0, 2바이트 문자의 첫 바이트의 상위 비트는 110, 3바이트 문자의 첫 바이트의 상위 비트는 1110, 4바이트 문자의 첫 바이트의 상위 비트는 11110으로 고정되어 있다. 멀티 바이트(multi-byte) 문자의 첫 바이트가 아닌 나머지 바이트들은 상위 비트가 10이다. 이는 한 문자에 대한 바이트 표현이 다른 문자에 대한 바이트 표현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를 허용한다면, 문자열(string) 내에서 하위 문자열(substring)을 찾는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해진다. UTF-8의 장점은 아스키와 호환

[표 3] UTF-16과 UTF-8의 대응 관계

코드 범위(16진수)	UTF-16 (2진수)	UTF-8 (2진수)	설명
000000-00007F	00000000 0xxxxxxx	0xxxxxxx	ASCII와 동일한 범위
000080-0007FF	00000xxx xxxxxxx	110xxxxx 10xxxxxx	첫 바이트는 110 또는 1110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바이트들은 10으로 시작함
000800-00FFFF	xxxxxxx xxxxxxx	1110xxxx 10xxxxxx 10xxxxxx	
010000-10FFFF	110110yy yyxxxxxx 110111xx xxxxxxx	11110zzz 10zzxxxx 10xxxxxx 10xxxxxx	UTF-16 서로게이트 쌍 영역 (yyyy = zzzz - 1). UTF-8로 표시된 비트 패턴은 실제 코드 포인트와 동일

가능(ASCII-compatible)하다는 것이다. 즉, 아스키 코드 체계에서 코드를 배정받은 문자들은 UTF-8에서도 동일한 코드 값을 가진다. 그 덕분에 아스키 코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UTF-8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의 글자를 표현하는 데 소요되는 바이트 수가 들쭉날쭉하므로, 컴퓨터나 프로그래머가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13. 유니코드와 한글

이론적으로 가능한 현대 한글 1만 1,172자 전부가 BMP의 코드 영역 0xAC00~0xD7A3에 배당되어 있다. BMP에서 한글은 한자 다음으로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니코드의 한글은 초성·중성·종성 조합식은 아니나, 자모순대로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계산에 의한 자모 분해가 가능하다. 한글 글자의 코드 값을 X라 하면

$$\text{초성값}=(X-0xAC00)/588$$

$$Y=(X-0xAC00)\% 588$$

$$\text{중성값}=Y/28$$

$$\text{종성값}=Y \% 28=(X-0xAC00)\% 28$$

과 같은 간단한 식에 의해 초성·중성·종성을 알아낼 수 있다. KSC 5601의 전철을 밟지 않고 1만 1,172자 모두 코드 값을 배당하여, 한글의 컴퓨터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음과 모음 각 자소(옛 한글 포함)도 따로 코드를 배정받았다.

14. 옛한글과 구결자의 정보화

국어사 자료에는 옛한글, 구결자 등 특수한 문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아스키·완성형·조합형 등의 코드 체계에서는 옛한글, 구결자를 표상할 수 없다. ‘보석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에서 처음으로 옛한글에 코드를 배당하여 표상하기 시작했고, 한글과컴퓨터사의 ‘훈글’ 워드프로세서의 HNC 코드에서도 옛한글에 코드를 배당하였다.

옛한글에 이어 구결자도 코드를 배정받게 되었다. 1992년 ‘훈글 2.0 전문가용’에서 HNC 코드번호 1D00~1DF3(244자)이 처음으로 배정되었고, ‘훈글 3.01’에서 16자가 추가되었으며(HNC 코드번호 1DF4~1E03),

‘훈글 97’에서 9자가 추가되어(HNC 코드번호 1E04~1E0C), 총 269자를 표상할 수 있게 되었다.

15. 유니코드와 옛한글

2000년 무렵 한글과컴퓨터사(훈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삼성전자(훈민워드)는 각각 자사의 워드프로세서 제품을 유니코드 기반으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유니코드에서 코드를 배정받지 못한 옛한글, 구결자 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3사가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문자 코드가 통일되어 있어야, 타사 제품으로 작성한 문서를 자사 제품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영역(private use area)에 옛한글과 구결자를 배당하였다. 옛한글은 U+E0BC~U+F66E 영역에 5,299자가 배당되었고, 그 외의 옛한글은 초성·중성·종성 조합식 총 6바이트로 표상하게 되었다(옛한글 자소 영역: U+F785~U+F8F7). 구결자는 U+F67E~U+F77c 영역에 255자가 배당되었다. HNC의 269자 중 자형이 동일한 것은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화면상에 표현할 수 있도록 글꼴도 제작하였다. ‘훈글’의 한컴돋움, 한컴바탕 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새굴림, 새돋움, 새바탕, 새궁서 등이 그런 글꼴이다.

사용자 정의 영역을 이용한 것은 당시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통용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16. 옛한글 표현 방식의 변화

사용자 정의 영역을 사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7, 한글 2010부터는 옛한글 표현 방식이 조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유니코드의 BMP에 코드 값을 배정받은 초성·중성·종성을 조합하여 하나의 한글 글자(음절)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글자를 표현하는 데 소요되는 바이트 수가 일정하지 않게 되었다. 종성이 없는 옛한글 글자는 초성 2바이트+중성 2바이트=4바이트, 종성이 있는 옛한글 글자는 초성 2+중성 2+종성 2=6바이트, 현대 한글은 모두 2바이트로 표상된다. 하나의 글자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옛한글 한 글자를 표현하는 데 소요되는 바이트 수가 현대 한글보다 많아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하위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이 깨졌다는 것이다. 구버전(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3 이하, 한글 2007 이하)에서 작성한 옛한글 문서와 신버전에서 작성한 옛한글 문서의 문자 코드가 달라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글 2010에서 입력한 옛한글은 조합식이므로, 한글 2007 이하 버전에서 열면 초성·중성·종성이 조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나온다.

17. 북한의 문자 코드

북한의 문자 코드 표준은 KPS 9566(국규 9566)이라 불린다. 여기서 상위 바이트 0xA1~0xFE, 하위 바이트 0xA1~0xFE에 해당하는 2바이트 문자의 코드를 배당해 놓았다(94행×94열=8,836자). 16~44행에 한

[표 4] 북한의 자모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ㅎ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종성	채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ㅎ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종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ㅎ

컬 행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2	▽	▼	▷	◁	▶	◀	○	●	◆	▲
3	h	i	j	k	l	m	n	o	p	q
4	김	일	성	김	정	일				
5	П	Ч	Ш	Щ	Ъ	Ы	Ь	Э	Ю	Я
6	VIII	IX	X							i
7	⁸	⁹	1/2	1/3	2/3	1/4	3/4		0	1
8	Pa	kPa	MPa	GPa	ℓ	μℓ	mℓ	dℓ	kℓ	gal
9										

[그림 4] KPS 9566의 특수 문자 영역



[그림 5] 북한 운영 체제 '붉은별 3.0 서버용'의 특수 문자 영역

글 글자들이 북한의 자모순대로 배당되어 있고, 45~94행에 한자 4,653자가 배당되어 있다. 한자의 배열 순서도 역시 각 한자 독음의 북한 자모순이다.

KPS 9566-97에서는 한글 2,679자만 배당했으나, KPS 9566-2003에서는 나머지 8,493자(=11,172-2,679)를 사이사이 비어 있는 영역에 배당했다. 한국의 완성형 코드의 전철을 북한도 똑같이 밟은 것이다.

KPS 9566의 특징 중 하나는 한글 몇 글자가 특수 문자 영역에 특별히 배당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2013년 개발된 운영 체제 '붉은별 3.0 서버용'에서는,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는 한글 글자에 3자가 추가되었다.

유니코드의 대두 이후, 북한에서도 국가 표준인 KPS 9566 이외에 유니코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니코드에 들어 있는 한글 1만 1,172자는 한국이 제안한 것이므로, 북한의 자모순이 아니라 한국의 자모순을 따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한때 자기들 나름대로 순서를 재배열해서 사용했었다. 그러나 2010년 나온 운영 체제 ‘붉은별’부터는 유니코드 한글을 표준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모 배열 순서나 문자 코드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일대일로 협상을 해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터이나, 유니코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8. 한글 문자 코드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지금까지 살펴본 한글 관련 문자 코드의 역사는, 국어 정보화의 방향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어와 한글을 정보화할 때 한글의 특성을 컴퓨터에서도 잘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완성형보다는 조합형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둘째, 정보화 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KSC 5601에서 한글 2,350자만 코드 값을 배당한 것은 근시안적 결정이었다. 셋째, 하위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깨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깨지면 구버전에 입각한 데이터와 신버전에 입각한 데이터가 호환 불가능하게 된다. 옛한글 처리 방식의 변화로 호환성이 깨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국제 표준(예: 유니코드), 국제 동향에 민감·신속·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옛한글과 구결자

를 사용자 정의 영역에 배당한 것은 국제 표준에 둔감한, 국제화에 역행하는 조치였다. 옛한글과 구결자는 이들 글자를 지원하는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출력된다.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예컨대 외국)에서는 옛한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화하고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문자 코드라는 인프라가 국제 표준에 맞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사람

—

음성 인식을 넘어서는, 언어 인공 지능을 위하여

이윤근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장을 만나다

—



답변자: 이윤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장)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5. 5. 20.

곳: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대전)

1990년대 후반, 휴대 전화에 대고 “우리집”을 다정하게 속삭이거나 “본부”를 다급하게 외치던 광고를 기억할 것이다. 한국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번째 장면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이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버튼이 아닌 음성으로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었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언제나 기술의 진보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빨라서 그사이 음성 인식 기술은 많이 발달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새로운 디바이스(device) 시장이 형성되면서 음성 인식 기술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음성 인식 기술이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애플의 시리(Siri)? 구글과 안드로이드?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음성 인식 기술은 이미 정확도 90%를 웃도는 수준이며, 이를 자동 통·번역 시스템이나 더 향상된 인공 지능 시스템으로 응용하기 위한 기술 연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음성 인식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묻기 위해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이하 에트리)을 찾아 이윤근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장을 만났다.

권창섭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곳의 정확한 이름이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이지요? 이곳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윤근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음성 정보와 언어 처리에 대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센터 내에는 네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첫째가 음성 처리연구실, 둘째가 언어처리 연구실, 셋째가 자동통역연구실, 넷째가 지식마이닝연구실입니다. 음성처리연구실에서는 주로 음성 인식 기술을 연구합니다. 사람의 말을 문자로 바꾸어 주고 약간의 이해를 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언어처리 연구실은 두 영역의 연구를 하는데, 우선 자동 번역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특정 언어의 텍스트 정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대화 처리 기술 연구인데요, 이는 음성 인식 기술과 맞물려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예전에 혹시 채팅 로봇 같은 것을 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컴퓨터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던지면 거기에 응답을 하는 프로그램 말입니다.

권창섭 ‘심심이’ 같은 프로그램 말씀인가요? 애플의 시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윤근 그런 프로그램의 기본이 대화 처리 기술입니다. 텍스트 입력이든 음성 입력이든 그 입력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또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화 처리 기술입니다.

권창섭 자동통역연구실은 어떤 연구를 하나요? 좀 전의 자동 번역 기술과 연구 영역이 겹치는 건 아닌가요?

이윤근 자동 통역 기술은 좀 전에 언급된 자동 번역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이 혼합된 것입니다. 여기에 음성 합성 기술까지 더해져 세 기술이 혼합되어야 하지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음성을 인식하고, 다른 언어

로 번역한 후에, 이를 그 언어로 음성 합성을 하여 출력해 내는 것이 자동 통역입니다. 음성처리연구실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연구하고, 언어 처리연구실에서 자동 번역 기술을 연구하지만, 둘이 통합된 기술은 별도로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통역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곳이 바로 자동통역연구실이지요. 이곳에서 ‘지니톡(Genie Talk)’¹⁾이 나왔지요. 물론 자동통역연구실만의 성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동통역연구실이 주관했다는 뜻이지요.

권창섭 지식마이닝연구실은 이름만으로 그 기능을 눈치 채기 어려운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윤근 ‘아이비엠 왓슨(IBM Watson)’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권창섭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근 그럼 <제퍼디 쇼(Jeopardy Show)>라는 미국의 퀴즈 쇼는요?

권창섭 네. 그 쇼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근 몇 년 전에 그 퀴즈 쇼에서 아이비엠(IBM)에서 만든 왓슨 컴퓨터와 인간이 대결을 했는데, 왓슨 컴퓨터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지요. 왓슨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인공 지능 컴퓨터입니다. 그런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 지식마이닝연구실입니다. 질의가 들어올 때, 그 질의의 의미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질의의 초점도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아내 답을 주는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술의 이름이 지식 마이닝(mining)이에요.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양방향 자동 통역 애플리케이션.

권창섭 설명을 들으니 전체적인 큰 그림도 그려집니다.

이윤근 큰 틀에서는 인공 지능, 그중에서도 언어나 음성에 기반을 둔 기술이라고 보면 되지요.

구글보다 진일보한 자동통·번역 시스템, ‘지니톡’

권창섭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지니톡’이 자동통역연구실 주관으로 개발해 인천 아시안게임 때 공개된 프로그램이지요?

이윤근 ‘지니톡’은 사실 인천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인천 아시안게임 때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널리 알려진 것이지요. 그 이전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서비스해 왔습니다.

권창섭 2012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지요?

이윤근 네. 처음에는 한국어-영어 사이의 통역만 할 수 있다가 차차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권창섭 애플리케이션이 공개된 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윤근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현재 220만 건 정도입니다.

권창섭 실제로 제 친구 한 명도 일본 여행 가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더라고요.

이윤근 네. 다운로드 횟수를 보면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로그 데이터가 저희 서버에 저장되어서 대략적인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용량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섭 아무래도 우리가 이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던 구글 통·번역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다뤄진 바 있듯

이 ‘지니톡’은 구글의 통·번역 시스템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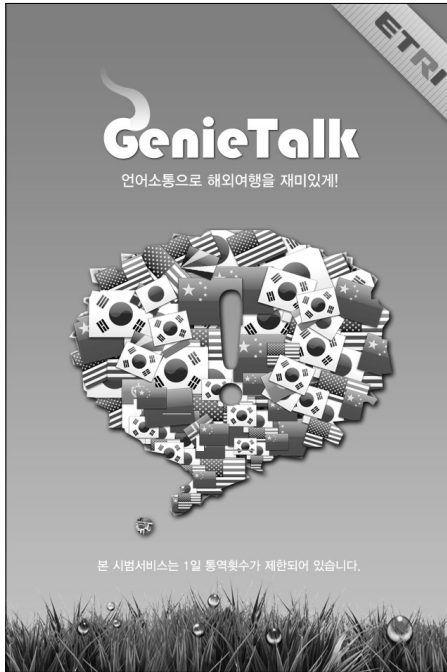
이윤근 일단은 그 둘이 기술의 형태가 다릅니다. 구글은 통계적 방식을 사용해요. 이미 구글에서는 한 언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 뜻이 일치하는 대응 쌍들이 축적된 바이링구얼 코퍼스(bilingual corpus)를 상당한 정도로 축적해 놓았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통계 처리를 하여, 입력된 문장에 가장 적절한 짝이 되는 대응 언어의 문장을 찾아내는 식으로 번역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어족 내부의 언어들, 혹은 가까운 어족 사이의 언어들끼리는 잘 맞습니다. 번역 성능이 좋죠. 인구어(印歐語, Indo-European)들끼리는 번역이 잘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인구어들과는 잘 되지 않죠. 어족이 다르니까요. 한편 한국어와 일본어는 또 괜찮게 번역됩니다. 즉, 다른 어족들끼리는 오류가 매우 많은 단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식 학습 기반 자동 번역 기술을 새로 개발하여 사용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설명 드리자면 매우 길고 어렵습니다. (웃음) 어쨌든 그래서 ‘지니톡’이 현재 구글의 시스템보다 10~15% 정도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권창섭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그 정도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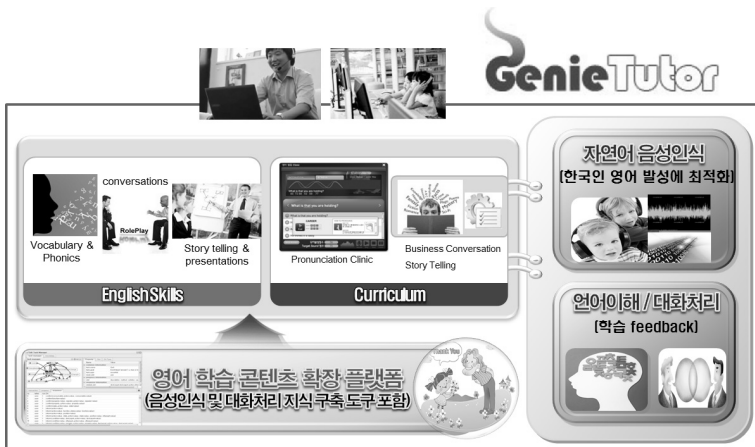
이윤근 그렇죠.

권창섭 그리고 구글은 클라이언트 서버(client server) 방식이니까 반드시 웹과 연결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윤근 구글 내부에는 임베디드 방식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외부로 공개된 것은 모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니톡’은 반드시 웹에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림 1] '지니톡'의 초기 화면



[그림 2] '지니 튜터' 개념도



[그림 3] 2013년 9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여행 박람회에 한일 '지니톡'을 전시했다.



[그림 4] 2'지니톡'은 2012년 스마트 콘텐츠 어워드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권창섭 단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윤근 가장 기본적으로 구글에 비해 언어 세트(set)가 적지요. 구글은 통계적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으면 언어 세트 늘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대신 전반적으로 질이 낮은 것이고요. 우리가 취하는 방식인 지식 학습 기반 자동 번역은 전통적인 규칙 기반 번역 기법에 비해서는 언어 확장이 쉽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 세트를 확장하는 데 시간과 품이 더 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번역 세트만 우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한국어와 양방향 통·번역이 가능한데요, 차후 어떤 언어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윤근 현재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어와 러시아어도 계획 중입니다. 2018년까지 이를 완료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권창섭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부터 진행되는군요. 언어 세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어족에 따른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까? 가령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인구어를 연구하고 시스템에 도입하는 일이 더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은지요?

이윤근 그렇진 않습니다. 품은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들어요.

음성 인식 기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권창섭 자동 통·번역 기술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술은 자동 통·번역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음성 인식 기술이 화두로 떠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윤근 무엇보다 스마트폰 때문이겠지요. 음성 인식 기술 자체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상용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인데, 주로 많이 사용된 분야가 자동응답서비스(ARS, Automatic Response Service)입니다. 그런데 ARS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이 정체를 겪었지요. 그러다 다시 부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스마트폰의 출현입니다.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이지요.

또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분야의 빅 플레이어(Big Player: 큰손)들이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음성 인식 기술에 달려들었다는 점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 엠에스(MS) 등이 대표적이고 아이비엠(IBM)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애플의 시리가 음성 인식에 이용한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이고, 구글에서는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지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음성 인식 기술을 오래 개발해 왔습니다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빅 플레이어들이 참가하다 보니 시장이 자연스레 커지고 관심도 많이 받고 활성화된 것이지요.

권창섭 한국에서 음성 인식을 연구하는 곳이 이곳 외에 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이윤근 벤처 기업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큰 규모의 일이다 보니 벤처 기업 독자적으로 구글이나 뉘앙스 등 음성 인식의 선두 주자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지요. 그래서 보통 저희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창섭 한국의 빅 플레이어들은 음성 인식 연구를 하지 않나요?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이나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윤근 네이버나 다음도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검색 서비스에만 특화되어 있지요.

권창섭 응용 기술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군요?

이윤근 네. 최근의 음성 인식 기술은 거의 대화 음성 인터페이스로 확장되는데, 거기까지 연구 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일 겁니다. 검색을 위한 음성 인식 기술은 포털이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삼성이나 엘지(LG) 등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윤근 엘지와 삼성도 자체 연구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든 음성 기술이 뉘앙스에서 개발한 것이잖아요? 자체 기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겠지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세트의 한계입니다. 기술 수준만으로는 비슷한데 뉘앙스는 이미 50여 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판매할 때 매번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탑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미 개발된 뉘앙스의 기술을 이용하게 된 것이지요.

권창섭 다른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에트리의 음성 인식 기술 역량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이윤근 저희도 자동 통·번역 기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

에서도 다국어로 확장해야만 하지요. 원천 기술의 수준은 미국의 선두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언어 세트만 늘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언어 세트의 수를 확장하고 차후에 아랍어나 동남아 쪽 언어까지 확장하면 추월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권창섭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음성 인식의 방법론에는 크게 임베디드 방식과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글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뉘앙스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이윤근 뉘앙스는 두 방식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는 자동 통·번역을 하는 업체는 아니고 음성 인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임베디드 방식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창섭 그럼 임베디드 방식과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윤근 임베디드 방식의 장점은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지니톡’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메모리나 중앙처리 장치(CPU)와 같은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애플리케이션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고요. 서로의 장단점이 딱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상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가벼운 편이고 리소스 제한이 덜하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권창섭 음성 인식이 자동 통·번역의 전제가 되듯이 음성 인식의 전제는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일 겁니다. 이를 구축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윤근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한 대본을 주고 읽게 한 뒤 녹음하고, 그것을 다시 전사해 다른 곳에 공급하는 업체들이지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개해서 판매하는 외국 업체들도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일정량을 모아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 후에는 서비스를 하면서 입력되는 각종 로그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계속 성능을 높여 가는 것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권창섭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음성 인식에 활용될 수 있으려면 레이블링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겠지요? 그 자동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윤근 일정량은 사람이 직접 다뤄야 합니다. 음성 인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일일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음성 인식기라면 음성 인식기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레이블링되거든요. 완벽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면 통계적으로 그런 부정확함을 가려내면서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섭 아무래도 ‘한국어’ 음성 인식을 주로 연구하다 보면 ‘한국어’라는 언어의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어의 특수성 중에 주로 어떤 특성이 연구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주된 고려 대상이 되는지요?

이윤근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특정 언어와 기술의 관계가 종속적인(dependent) 경우도 있고 독자적인(independent) 경우도 있습니다. 음

성 인식은 거의 독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특히 통계 기반이나 기기 학습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는 것은 배제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언어 확장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별 언어가 음성 인식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권창섭 제 예상과 많이 다르네요.

이윤근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텍스트가 소리로 변환될 때 자음접변이나 구개음화 등의 음운 현상이 적용되잖아요? 즉, 문자열이 발음열로 변환될 때의 규칙(Grapheme to Phoneme Conversion Rule) 같은 것은 언어마다 다르니까 고려 대상이 되지요. 그 밖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다음 과정들은 이미 언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창섭 한국어의 특수한 음소들, 가령 모음 ‘ㅡ’나 ‘ㅣ’ 같은 경우는 특이한 모음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윤근 어차피 음성 인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한국어 화자들이 발음한 것들이기 때문에 매칭만 잘 되도록 설계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편차는 있겠네요. 음소의 수가 많은 언어가 있고 적은 언어가 있잖아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음소의 수가 적으니까 음성 인식의 변별력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난점들이 있지요. 문자에 한자를 섞어 쓰기 때문에 텍스트와 음성 사이의 전환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표기법의 문제점이 있고요. 언어마다 기술을 개발할 때 약간씩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것이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권창섭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문자와 음성을 대응시키고 전환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윤근 네. 아무래도 표음문자이다 보니 쉬운 편이지요.

권창섭 같은 표음문자라도 영어는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묵음이 있는 단어도 많고, 또한 문자와 음소가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윤근 네. 그래서 영어는 아까 언급한 문자열이 발음열로 변환될 때의 규칙 사전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규칙 중심이기는 하나 형태소나 단어의 지위에 따라 음운 규칙이 달리 적용되기도 해 그런 경우들은 따로 사전 정보를 부여하기도 하지요.

권창섭 자료를 수집하는 데 간투사가 들어간다는가, 버벅거린다는지, 혹은 어순이 도치된 문장 등 비정형적인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요? 그리고 그런 문장들에 대한 음성 인식도 가능한 수준입니까?

이윤근 아직은 비정형적인 문장들은 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남은 과제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지금처럼 두 명 이상의 실제 대화도 인식되고 문자화가 될 텐데,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안 되어 사용할 때 매우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외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에트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연구가 바로 그런 비정형적인 발화나 문장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비정형 자연 언어 음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권창섭 워낙에 그 변이의 범위가 넓어서 아주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윤근 네. 어려운 숙제예요.

권창섭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국어학계나 언어학계 등 학계와도 많은 협력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근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가까워진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일까

권창섭 음성 인식 기술에서나 자동 통·번역 기술의 개발에서 향후 계획이나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윤근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중심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니톡’이란 자동 통·번역 기술이나 음성 인식 기술이나 그 수준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 세트의 수가 아직은 적다는 점,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겹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단기적인 목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시장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술들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겠죠. 가령 아까 언급된 비정형적인 문장 인식이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일단의 목표입니다.

권창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윤근 궁극적인 목표는, 글썄요……, 선도적인 기업이나 우리나라 이 분야에서는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할 텐데, 이 기술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고, 특히 음성 인식 기술은 가장 오래 연구가 지속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지식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축적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언어잖아요? 언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가 다루게 하는 것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음성을 단순히 문자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문장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하고 적절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능이란 것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 아까 언급된 지식 마이닝처럼 상식이나 전문 지식 체계 등이 갖춰지면 점점 인간에 가깝게 진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 분야의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달성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이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 세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정도로 진화하였을 때의 모습을 대개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과학자나 공학자로서는 달성해 내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지요.

권창섭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말씀이네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이 동반된 기술의 진보라면 인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윤근 감사합니다.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쓰는 동시

신현배
시인

올해는 내가 동시를 쓰기 시작한 지 36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세 번 반 바뀌었는데도 겨우 동시집 네 권을 묶어 냈고, 얼마 전에 동시 선집 한 권을 펴냈다. 36년 묵은 나무라면 제법 큼직하게 자라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을 줄 터인데, 내가 키워 놓은 ‘동시 나무’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꽃도 아름답지 못하고, 열매도 부실하기만 하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시 선집을 낸 것은 동시 쓰기를 평생의 시업(詩業)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동시를 쓰게 된 것은 1979년 서점에서 월간 《소년》을 접하고 나서였다. 스무 살 때 나는 소설가를 꿈꾸던 문학청년이었다. 소설이 풀리지 않는 날은 버스를 타고 시내를 쏘다녔다. 동화서적, 종로서적에 들러 신간 서적이나 문예지를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만난 잡지가 《소년》과 《시조문학》이었다. 두 잡지를 만나면서 동시와 시조를 알게 되었고, 생각지 않게 동시와 시조를 쓰게 되었다.

아동 잡지인 《소년》에는 아름다운 삽화를 곁들인 동시가 여러 편 실려 있었다. 처음 접해 본 동시들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쉬운 우리

말을 시어로 쓰고 있어 우선 시가 어렵지 않아 좋았다. 성인 시는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 많아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동시는 누구나 알기 쉽게 쓰여 한번 맛을 들이니 자꾸 찾아 읽게 되었다. 개울 물을 들여다보듯 맑은 동심이 살아 있는 시들은, 소설을 쓰느라 메마른 내 가슴을 흠뻑 적셔 주었다. 그때 문득 나도 동시를 써 봤으면 하는 충동을 느꼈다. 거기에 불을 댕긴 것이 그 지면에서 발견한 ‘신인 추천 작품 모집’ 공고였다. 무엇에 홀린 듯 하룻밤 새 동시 세 편을 썼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한 편이 추천작으로 뽑혔다.

당시엔 2회 추천제여서 동시 1회 추천을 받은 뒤 추천을 끝내려고 《소년》에 열심히 작품을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작품을 보내면 함흥차사였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 떨어뜨린다는 발표라도 났으면 좋으련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오기가 생겨 계속 작품을 써서 보냈고, 3년이 지난 1982년에야 동시 〈강아지풀〉로 추천을 마칠 수 있었다.

3년쯤 그렇게 습작을 하고 나니 비로소 동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거기에 욕심도 생겨서 신춘문예를 기웃거렸고, 1986년 《조선일보》에 동시 〈보리뿌리점〉이 당선되었다.

보리뿌리점을 친다. / 입춘날 / 아이들이 보리밭에 모여 / 언 손 호호
 불며 / 보리뿌리점을 친다. // 고추장빛 노을에 밥을 비벼 먹고 싶은
 남이, 송눈 빗깔 하늘의 별이 되고 싶은 영이, 진달래 꽃잎 붙여 지진
 떡 먹고, 꽃굴레 쓰고 노는 산놀이가 꿈인 순이 // 한자리에 모여 /
 불 지핀 소망을 안고 / 보리뿌리점을 친다. // 얼어붙은 땅을 파내 보
 리 뿌리가 세 가닥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작, 가닥이 보이지 않
 으면 흉년이라며 올해의 가난을 엿본다. // 모두들 / 밥풀눈이 된다.

— 신현배, 〈보리뿌리점〉 전문

‘보리뿌리점’은 입춘 날 농가에서 보리 뿌리를 파 보고 그해 농작물의 풍흉을 점치는 일이다. 보리 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작, 가닥이 보이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한다. 내가 보리뿌리점을 소재로 동시를 쓴 것은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풍속적이고 향토 서정·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내가 동원한 우리말 어휘들은 ‘고추장빛 노을’, ‘송늬 빛깔 하늘’, ‘진달래 꽃잎’, ‘꽃굴레’, ‘밥풀눈’ 등이다.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말을 최대한 살려 동시를 썼기 때문에 입춘 날 아이들이 모여 보리 뿌리점을 치는 정경을 더 정겹고 실감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동시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이다운 생각과 느낌을 글감으로 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시’다. 어른인 아동문학가가 지은 시를 ‘동시’, 어린이가 지은 시를 ‘아동 시’라고 하여 동시를 아동 시와 구분하기도 한다. 어쨌든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생각, 느낌 등을 작품에 담는 것이 동시인데, 누구에게나 잘 읽힌다. 독자 대상이 어린이여서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다 시가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작품을 살펴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암만 배가 고파도 / 느릿느릿 먹는 소. // 비가 쏟아질 때도 / 느릿느릿 걷는 소. // 기쁜 일이 있어도 / 한참 있다 웃는 소. // 슬픈 일이 있어도 / 한참 있다 우는 소.

—윤석중, 〈소〉 전문

“야야, 이참에 너도 좀 / 앉아서 쉬지 그래!” // 새참을 내온 엄마가 / 정겹게 말을 걸어도 // 갈다 만 / 밭 한가운데에 / 뭇뭇뭇 서 있는 소 // “그 식구 아니랄까, / 닭기는 와 그키 닭노.” // 새참을 다 드

실 동안 / 말씀 없는 아빠처럼 // 피약별 / 고 한자리에서 / 새김질하
는 순둥이

- 김용희, 〈우리 집 누렁소〉 전문

위의 두 편은 소를 소재로 하여 쓴 동시이다. 윤석중의 〈소〉는 소의 느릿느릿한 맛을 살려 쓴 작품이고, 김용희의 〈우리 집 누렁소〉는 소를 한 식구로 여기는 소에 대한 엄마의 깊은 애정을 보여 준 작품이다.

맹사성의 스승인 학자 권근은 “소를 타는 것은 더디고자 함이다.”라며 소를 타는 것을 최고의 풍류로 꼽았다. 옛날에 선비들이 소를 타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 풍류적인 멋 때문이었다. 말에 비해 매우 느리지만 그 느릿느릿한 맛에 소를 타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중의 〈소〉에서 소는 배가 고파도 느릿느릿 먹고, 비가 쏟아질 때도 느릿느릿 걷는다. 행동이 느려 답답해 보이지만 소는 그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빠름’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소에게 배워야 할 점은 성급함을 버리고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느림의 미학 아니겠는가.

김용희의 〈우리 집 누렁소〉에는 우직하게 일만 하는 누렁소가 나온다. 새참을 내온 엄마가 “야야, 이참에 너도 좀 앉아서 쉬지 그래!” 하고 말해도 “갈다 만 밭 한가운데에 멀뚱멀뚱 서 있”다. 가축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던가? 우리 집 누렁소는 “새참을 다 드실 동안 말씀 없는 아빠처럼 피약별 고 한자리에서 새김질하는 순둥이”다.

“신라 지증왕 3년(502년) 소로 논밭을 갈기 시작했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농사에 소를 이용해 왔다. 따라서 소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했다. 옛날에는 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인 ‘식구(食口)’와 구별하여 한 집에서 사는 종을

‘생구(生口)’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소를 ‘생구’로 여겨 정성을 다해 보살피 주었다. 외양간을 부엌 옆에 두고 쇠죽가마와 밥 짓는 가마를 나란히 걸어 놓는 등 소를 사람처럼 대접했던 것이다. <우리 집 누렁소>에 나오는 누렁소는 ‘생구’ 정도가 아니라 ‘식구’ 대접을 받고 있다. “느그 식구 아니랄까, 닭기는 와 그키 닭노.”라는 엄마의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 <우리 집 누렁소>나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다. 쉬운 우리말로 동시를 빚어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동시만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동시는 우리말을 갖고 다듬어 독자인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의성어·의태어와 운율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쓴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리글자인 우리말의 특성을 살려 뛰어난 언어 감각과 리듬감이 느껴지는 동시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진천장 5일장 / 고무통 안에 / 오리새끼들. // 꺹꺹. / 동무 밀치고 /
 박을 보네. // 꺹꺹. / 동무 등을 밟고 / 바깥세상 보네. // 꺹, 밀치고
 / 꺹, 밟고 // 꺹꺹, 꺹꺹 / 눈버둥 / 발버둥이네.

— 김마리아, <꺹꺹 꺹꺹> 전문

풀잎은 / 껍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 우리가 ‘풀잎’ 하고 그를
 부를 때는, / 우리들의 입 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 소나기가 오
 는 날의 풀잎들은 / 왜 저리 또 몸을 통통거릴까요. // 그러나, 풀잎
 은 / 껍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 우리가 ‘풀잎’, ‘풀잎’ 하고 자

꾸 부르면, / 우리의 몸과 맘도 어느덧 /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

—박성룡, 〈풀잎〉 전문

풀 한 잎 또옥 따서 / 냇물에 띄웁니다. // 생각 한 잎 또옥 따서 / 내
마음에 띄웁니다. // 잠길 듯 / 배 되어 가는 / 풀 한 잎, 생각 한 잎. //
풀 한 잎 생각 한 잎 / 자꾸 따서 띄웁니다. // 숙이네 아랫마을 / 돌아
앉은 꽃마음로 // 잠길 듯 / 아, 잠길 듯이 / 내 하루가 떠갑니다.

—서벌, 〈풀 한 잎 생각 한 잎〉 전문

김마리아의 〈꽤꽤 꺾꺾〉은 소리시능말인 의성어를 최대한 살린 작품이다. ‘꽤꽤’, ‘꽤’, ‘꺾’, ‘꽤꽤, 꺾꺾’ 등이 적재적소에 쓰여 새끼 오리들이 고무 통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의성어의 쓰임이 효과적이어서 한때 유행했던 어설픈 ‘말놀이 동시’와는 격이 다른 우리말의 재미와 말맛을 느끼게 한다.

박성룡의 〈풀잎〉에서 시인은 ‘풀잎’이라는 이름에 주목한다. 풀잎은 “꽤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며, ‘풀잎’ 하고 부르면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휘파람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눈에 보이는 듯 “푸른 휘파람 소리”라고 하여 풀잎의 맑고 싱그러운 이미지를 잘 나타냈다. 둘째 연에서는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과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풀잎의 역동적인 모습과 싱싱한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마지막 연에서는 “우리가 ‘풀잎’, ‘풀잎’ 하고 자꾸 부르면, / 우리의 몸과 맘도 어느덧 /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라고 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보여준다. 이 동시는 ‘풀잎’이라는 낱말 하나로 우리말의 맛과 리듬을 살려 쓴 시인의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서벌의 〈풀 한 잎 생각 한 잎〉에서 ‘나’는 “풀 한 잎 또옥 따서 / 냇물에 띄”우고, “생각 한 잎 또옥 따서 / 내 마음에 띄”운다. “풀 한 잎 생각 한 잎”은 “잠길 듯 / 배 되어” 떠간다. 생각에도 잎이 있어 생각 한 잎 또옥 판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풀 한 잎 생각 한 잎 / 자꾸 따서 띄”웠을까? 그 이유는 “숙이네 아랫마을 / 돌아앉은 꽃마을”로 띄워 보내기 위해서다. ‘나’는 아랫마을에 사는 숙이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숙이를 향한 생각, 그 사랑의 마음을 풀잎에 담아 냇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죽 간절했으면 온종일 풀 한 잎 생각 한 잎 자꾸 따서 띄워, “잠길 듯 / 아, 잠길 듯이 / 내 하루가 떠” 간다고 했을까?

이 작품은 우리 가락을 가진 동시인 동시조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시로서 우리말을 갖고 담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 시조가 아니겠는가. 시조에 ‘동(童)’자가 붙었으니 동시조는 우리 민족이 지키고 보존해 온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고유의 가락에 동심을 잘 담아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풀 한 잎 생각 한 잎〉은 동심을 잘 드러내고 문학적 형상화에도 성공한 동시조 작품이다.

‘시는 상상의 언어’라고 했다. 특히 동시는 상상력 없이는 쓸 수 없는 갈래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동시는 상상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미적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김기택 시인의 문학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김기택 시인은 그 강연에서 “시가 즐거운 이유 중의 하나는 어린이처럼 상상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했다. 여러 해 전에 김기택 시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틀니를 뺐다 끼웠다

하더라. 신기하게 바라보던 손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할머니, 할머니, 눈알도 한번 그렇게 해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기택 시인은 안에서 무언가 ‘뽕!’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이가 다 빠져 틀니를 쓰는 게 얼마나 괴롭고 불편할까, 늙어서 온몸이 빠져거리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는 생각은 어른들의 것이다. 이를 통째로 뺐다가 다시 끼우는 일은 아이에게는 신기한 마술이다. 아이는 제 몸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변신하는 마징가제트처럼 할머니가 위대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는 할머니의 다른 마술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김기택 시인의 해석이다. 그는 어린이의 상상력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오랫동안 시를 써 오면서 시가 어린이의 말을 닮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고 했다. 시나 어린이의 말은 관습을 깨는 자유로운 말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동시는 어떻겠는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관습을 깨는 자유로운 말을 쓰고 어린이의 말을 닮은 동시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동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인이 어린이처럼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갖지 못하고 고정 관념에 매어 있거나 상투성의 그물에 갇혀 있다면 관습적인 상상력에 의해 뻔한 발상과 진부한 언어의 시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

사나운 바람을 견디느라 / 등 굽은 / 팔배나무 빨간 열매 / 콩배나무
까만 열매 / 새들의 도시락이다 // 춤고 배고픈 새들 먹으라고 / 나무
가 마련한 / 맛깔스런 도시락 // 새를 기다리는 / 빨강고 까만 도시락
을 / 짧은 햇살이 데우고 있다.

— 조영수, 〈새들의 도시락〉 전문

산은 웅달샘이 콧구멍이다. / 산이 숨 쉬는 모습을 볼래? / 산은 하늘
을 들이마시고 맑은 노래를 물길로 내보내지. / 날마다 산이 푸르고
건강한 이유를 알겠다.

- 남진원, 〈산〉 전문

조영수의 〈새들의 도시락〉에서 시인은 동심의 눈으로 팔배나무와
콩배나무를 바라보며 색다른 상상을 해 본다. “팔배나무 빨간 열매 / 콩
배나무 까만 열매”는 “춡고 배고픈 새들 먹으라고 / 나무가 마련한 / 맛
깔스런 도시락”이라고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인은 춡고 배고픈
새들에게 차가운 도시락을 먹일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따뜻한 햇
살로 눈길을 돌린다. 그러고는 “새를 기다리는 / 빨강고 까만 도시락을
/ 짧은 햇살이 데우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런 상상력은 매우 신선하
다. 관습적인 시각에서 한참 벗어나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
다. 시인의 그 상상력은 식물적 상상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나무 열
매를 면밀히 관찰하여 “새들의 도시락”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남진원의 〈산〉 역시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상상력의 눈으로 산
을 바라보면서 “산은 웅달샘이 콧구멍”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이 숨 쉬
는 모습을 볼래?”라고 말하면서 “산은 하늘을 들이마시고 맑은 노래를
물길로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시의 이미지는 시인
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언어의 그림’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만큼 독
창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산이라는 시적 대상을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
로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했다. 이 시는 산을 신격화된 산이 아닌
인간화된 산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예부터 산은 신이 내려오는 곳이자 산신이 사는 신의 공간이었다. 고
려 때나 조선 때에도 특정 산들에 신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수호신으로

서 나라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 그려진 산은 전통적인 숭배의 대상인 ‘성스러운 산’이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누워서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산이다. 산은 웅달샘이 콧구멍이기 때문에 웅달샘에 비치는 하늘을 들이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숨을 내쉴 때에는 맑은 노래를 물길로 내보낼 수 있다.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날마다 산이 푸르고 건강한 이유”가 산이 숨쉬기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마지막 구절이 공감을 준다. 이 시는 산도 숨을 쉰다고 밝힘으로써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 작품으로 시인은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가 잊고 사는 자연의 숨결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동시라는 갈래의 특징과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말의 쓰임새를 알아보았다. 동시는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며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쉬운데, 이것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시가 다양한 의성어·의태어와 운율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쓴다는 점과, ‘동시는 상상의 언어’로서 상상력 없이는 쓸 수 없다는 점도 밝혀 두었다.

아동 문학은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문학이다. 그런데 동시 문학은 ‘동(童)’자가 붙은 ‘시 문학’으로서 어린이는 물론 동심을 가진 어른까지 독자로 한다. 즉, 동심의 시가 동시인 것이다. 동심이 살아 있는 작품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힌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동시는 시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다. 모든 시의 근원은 동시이고, 시심의 원천은 동심이다. 그리고 원초적인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아름답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갈래가 동시다. 그래서 좋은 동시는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흔히 시는 ‘우리말의 보물 창고’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동시는 ‘동심의 텃밭’이자 ‘우리말의 공간’이라 부르고 싶다. 동시를 쓰는 시인은 독자인 어린이를 생각하며 먼저 동심을 일구고, 그 밭에서 동시를 경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36년째 동시 농사를 짓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알곡은 없고 씨라기만 가득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동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알곡 같은 작품들을 갈무리하여 시의 공간에 들이고 싶다. 이것이 평생 동시와 함께 살아 온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

그분을 그리며

—

나의 영원한 스승, 허웅 선생님

—

김차균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나는 1958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했다. 1965년에 선생님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국어 음운학의 양대 분야 중 하나인 성조론, 그중에서도 우리말의 성조를 연구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51년 동안 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 언어학자로서 나의 삶은 즐겁고 보람 있다. 그러나 선생님 가신 지 올해 11년, 해가 갈수록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쌓여 갈 뿐이다.

선생님은 1945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래 1947년 부산대학교 조교수, 1953년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1955년 연세대학교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1957년에 서울대학교 전임 강사가 되셨다.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연희전문학교 중퇴였다. 1967년(50세)에 교수가 되었고, 1968년(51세)에 서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선생님과 함께한 첫 원서 강독의 기억

학부 때 선생님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여느 학생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다.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걸어서 통학할 정도로 빈곤했던 나

는 둘째 학기 때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가는 가을 학술 답사에 참석하지 못해,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고 입대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한 것은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 3월이었다. 당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뒤숭숭한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셋째 학기에 복학하여 한두 살 후배인 학생들과 같이 강의를 듣게 되었다. 언어학과에 개설된 강의는 거의 모두 수강했다. 부전공으로 독문과 강의 30학점을 합하여 185학점 가까이 이수하고 졸업했다. 그 가운데서 허웅 선생님의 ‘음운론’과 ‘언어학 강독’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었다.

선생님의 음운론 강의는 음운 이론은 물론 실질적인 음운 분석과 음운 체계 기술의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만큼 이론과 실습을 두루 갖춘 훌륭한 강의였기 때문에 다른 과의 학생들도 많이 수강했다. 나는 ‘음운 변화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논문을 써서 A학점을 받았고 허웅 선생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

선생님은 ‘언어학 강독’ 강의에서 트래거(G. L. Trager)와 블로흐(B. Bloch)가 지은 《언어 분석의 개요(Outline of Linguistics Analysis)》라는 원서를 교재로 택하셨다. 대학에서 원서 강독은 처음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책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에게 발음과 해석까지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의 원서 강독은 비교적 긴 영어 문장이라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적절한 지시어나 대명사, 접속어를 사용해서 앞에서 뒤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나는 1964년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그해에 연구 조교(봉급이 없는 무급 조교)가 되어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연구 조교에

게 주어지는 혜택은 연구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무직자라는 불명예(?)를 면하고, 교수님들의 곁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학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남이 할 수 없는 학문을 하는 학자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지냈던 시기였다. 학과 사무실 생활은 열악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고! 김 군, 이거 큰 고생하네. 건강이나 잘 챙기게.” 하고 나가시면 그것으로 피로가 다 풀렸다.

석사 학위 과정 3년 동안, 선생님께 받은 인격적 감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선생님은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이었다. 보통은 삼선동 집에서 왜보로 30분 정도 걸어오시는데, 가끔 전차를 이용하실 때에도 혜화동에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서 9시 30분쯤이면 학교에 도착하셨다.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시다가 12시 조금 지나서 걸어서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오셔서 연구를 하셨다. 선생님의 퇴근 시간은 6시쯤이었다.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녁 드시고 다시 밤 늦게까지 연구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문리대 동부 연구실 1층에 자리했던 선생님의 연구실과 삼선동 집의 벽면을 가득 채웠던, 잉크로 손수 쓰신 연구 카드를 보면 잠작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컴퓨터가 없었던 당시에 카드로 자료 정리를 하지 않고는 넓고 깊은 학문의 연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후 6시 30분이나 7시쯤 뜻이 통하는 동료 교수님과 맥주 집에 들러서 때로는 시국 담론으로, 때로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셨다. 주말에는 벗들과 함께 또는 홀로 등산을 즐기며 체력 단련을 하셨다. 선생님의 반듯한 삶은 당신에게는 일상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밥을 먹고, 걷고, 잠자고, 전차 타고 하는 선생님의 행

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감격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학문을 하겠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유학해 학문을 배워 와야지, 국내에서 무슨 학문을 하느냐는 심리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국학 계열의 학문을 제외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은 외국 유학을 위한 준비 과정쯤으로 여겨졌다. 동기생들은 물론이고 나와 같은 처지였던 조교들마저도 학위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는 내게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선생님은 “외국에 가야만 할 수 있고 국내서는 못하는 학문이 어디 있느냐?”며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다.

평생 제자가 되기로 맹세하다

석사 과정 2학기를 마치고 겨울 방학 때 선생님의 저서 《중세국어 연구》(정음사)를 읽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국어 성조 연구”는 한 번 더 읽었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국어 성조 연구”는 중세 국어와 김해 방언 성조 체계를 각각 공식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다음에 둘을 통시적으로 비교한 것이었다. 나는 그 논문에 크게 감동받아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가 큰절을 올리고는 “목숨을 걸고 우리말 성조를 연구하여 큰 학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 선생님은 “뭘 목숨까지 걸 거야 있느냐?” 하고 빙그레 웃으며 허락하셨다.

그 뒤 어느 날 선생님께 “저는 머리가 보통밖에 되지 않는데, 이 머리로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인문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초부터 단단히 하여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 필수이다.”라

고 격려해 주셨다. 1966년 8월에 “경남 창원 방언의 성조 체계”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일본과 미국에서는 자연 언어 운율 분야 연구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어 연구를 위해 와 있었던 젊은 학자들에게는 정확한 청취력으로 분석한 방언 자료가 필요했다. 나의 석사 학위 논문은 그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학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셈이었지만,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는 그때까지도 박사 학위 과정이 없었다. 석사 학위를 받는 날, 그때까지 언제나 담당했던 내 마음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대학원 학생도 아니니 그야말로 백수건달이 되었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그래도 어느 중등학교에라도 취업이 될까 하고 1967년 2월까지 서울에서 버티고 있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기가 딱하셨던지 김방한 선생님께서 “목포에 동광중고등학교라는 사립학교가 있으니, 교사로 가겠느냐? 거기에 가면 자네 한 해 선배인 박양구 선생도 있으니 외롭지는 않을 거야.”라며 취업을 알선해 주셨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교직이니 어디든 무슨 상관이었습니까?”라고 대답하고 목포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허웅 선생님을 찾아뵈었더니 선생님께서는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박사 학위 과정을 꼭 만들어 놓을 테니 학생들 잘 가르치고 학문을 놓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건강을 잃지 말라고도 당부하셨다.

나의 첫 직장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로 호남선의 종점인 목포역까지는 보통 7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그날은 연발과 연착이 심하여 11시간 가까이 걸렸다. 정거장마다 그 지방 특유의 억양을 가진 방언을 쓰는 토박이들이 내리고 또 타면서 자신들의 방언을 소박하게 그대로 들려주었다. 열차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나누어지는 이리역(지금의 익산역)을 지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목포와 광주

로 가는 분기점인 송정리역을 거쳐 목포역까지 가는 동안은 그야말로 방언 연구의 현장이었다. 승무원이 목포역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하는 순간, 나는 전남 서남부 방언의 운율 체계를 환하게 깨쳤다는 확신을 가졌다. 깨달음에서 오는 희열이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때 깨친 내용은 간단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분절음이 운율 체계의 변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말 방언 성조 연구사에서 처음 발견한 것이었다. 이 내용은 목포에 거주하는 18개월 동안 무안군, 해남군, 나주군, 목포시의 여러 토박이들의 방언 조사와 그 후의 6개월 동안 광주시의 방언 조사를 통해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논문으로 써서 1969년 9월 《한글》 144호에 실었는데, 허웅 선생님의 칭찬이 대단했다. 호남에 있는 동안 두 번이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해주셨다. “꿈에 자네를 만났는데,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이 건강하냐?”는 전화였다. 너무 행복했다.

1969년 3월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에 1년 기간의 조교자리가 났으니 와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연락이 왔다. 4월 1일에 조교 발령을 받았다. 봉급은 연구비를 제외하면 전임 강사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조교 1년 근무가 끝나기 두어 달 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험을 쳐 두었다. 목포와 광주에서 교사로 있는 동안 문교부 주관의 준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준교사 자격증 두 개(외국어과(영어), 외국어과(독어))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채용시험에 응할 수가 있었다.

1970년 3월에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에 있는 공립학교인 강남여자중학교 교사로 발령 받았다. 강남여자중학교에서는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어과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중에 근무하는 동안 학술 활동을 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으나 주말이나 방학 때 한글학회, 국어학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등에서 열리는 학술 발표 대회에 단순한 참가자로, 때로는 토론자나 발표자로도 나갈 때도 있었다.

올바른 학자의 길을 몸소 보여 주시다

조교 1년과 여중 교사 3년, 합쳐서 4년 동안 허웅 선생님의 가르침은 나의 인생관과 학자로서의 삶에 더없이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학자에게 학문은 ‘삶 자체’이다. 학문은 명예나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정해 그림을 그려 놓고, 또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업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지 말 것이며, 남을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끈기 있게 일하라. 잡문을 써서 원고료 받는 일에 버릇을 들이지 말라. 학자가 잡문 쓰는 일에 맛을 들이면 학문에 큰 진전이 없다. 연구비를 타서 규격품(보고서 쓰는 일)을 생산해 내려고 하지 말라. 그러한 규격품은 멀리 내다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 말씀들은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힘 있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연구재단이나 연구비를 주는 국가 기관은 연구 계획서를 심사해서 연구비를 줄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가끔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돈을 받기 위해 연구 계획서를 써 내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선생님은 국어학의 4대 분야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이라고 보고, 이들 중에서 앞 3개 분야의 연구를 시대별로 15세

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나누어서 진행하셨다. 공시적인 연구가 끝나면, 이들을 다시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셔서 그 연구를 완성하셨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포부는 참으로 컸다. 선생님께서는 늘 언어학은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학문이므로 세계의 평화와 인류 행복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겨레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국어학을 하신 이유는 겨레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1972년 3월 25일 경상대학교 외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 담당 전임 강사로 발령을 받았다. 허웅 선생님은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 떠나는 제자에게 충고 한마디를 빠뜨리지 않으셨다. “대학에서 보직 맡는 재미를 붙이면 학문은 그것으로 더 나아가기 어려운 것임을 명심하라. 마지못해 보직을 맡아야 할 처지가 되면 사리사욕에 떨어지지 말고, 평교수들에게 공정하게 학문할 기회를 주는 데 힘쓰고, 보직 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뒤 정년 퇴임 때까지 31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의 이 말씀을 지켰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정확하게 2년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에 논문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를 써서 《한글》 147호에 낸 것이 중요한 성과였다. 이 논문을 보고 허웅 선생님께서는 ‘성조를 포함하는 자연 언어의 운율에 대한 연구는 평생을 바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정해 주셨다.

1972년은 나에게 특별한 해였다. 허웅 선생님과 김방한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들 모두가 바라 마지않던 언어학 전공 박사 학위 과정이 신설된 것이다. 나는 언어학 전공 박사 학위 과정의 첫 대학원생으로 입학했다. 석사 과정에서의와 마찬가지로 박사 과정

에서도 우리말의 성조 연구를 계속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말의 성조 연구는 유럽과 미국보다 600년이나 앞섰고, 문헌 자료도 세계에서 가장 많으니 서구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이론에 매이지 말고, 우선 대상 언어나 방언의 운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색하라. 그런 다음에 특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특징에 맞는 이론과 체계를 세우고 논문을 써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참으로 쉽고 평범하면서도 성공이 보장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선생님께서 대학원에 들어온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달랐다. 아마도 사람의 됴됨이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학위 논문 지도를 받은 경험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논문을 부분적으로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반드시 읽어 보시되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으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원고를 가지고 계시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에 “더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서야 “그렇게 하게.” 하고 원고를 돌려주시고는 당신의 공부에 열중할 뿐이셨다. 그러나 반드시 가까운 시일 안에 “논문은 특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 하는 방법으로 쓰되 그 가운데서 뛰어나야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넌지시 깨우쳐 주시고,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러한 지도 방법은 조급함에서 오는 독단을 피하게 하고 참을성을 길러 주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선생님의 지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한 예로 음조의 높낮이 자료 정리 방법을 들 수 있다. 당시 나의 높낮이에 대한 자료 정리법은 지나치게 수리적이었다. 음조형의 기술이 지각 심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여러 개 있었다. 박사 과정 5학기째 초부터 논문 원고를 써서 제출했는데, 선생님께 구체적인 지적을 받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인문학, 특히

방언음운론과 같은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요하는 학문은 남이 꿈틀하면 나는 기어가고, 남이 기어가면 나는 서서 걸어가고, 남이 서서 걸어가면 나는 뛰어가는 정도라야지, 남이 기어가는데 내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비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셨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유형론을 도입하고 서술 방법도 생성음운론 식(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일부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희망하셨지만 논문은 큰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선생님은 그 후에 “우리의 인문학은 서구 학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학문의 선두에 서서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1918년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2004년(87세)에 돌아가셨다. 이루신 일들은 크고도 섬세했다. 나라 안에서는 물론이고 나라 밖에서도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뵈러 다녀갔다. 선생님의 성품은 겸손하고 덕성스러우며 자상스러웠다.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나 홀로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듯이 흐뭇해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갔다.

1958년(41세)에서 2004년(87세)까지 46년 동안 선생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만에 하나도 갚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선생님께 제자가 되기를 맹세한 지 5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 나는 그 51년 동안 계속한 성조 연구를 결산하는 《방점법에 바탕을 둔 우리말의 성조》라는 책의 발간을 앞두고 있다. 그 책의 교정을 보다가 이 글을 쓰기 위해 잠시 옷깃을 여미고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선생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자혜로운 마음으로 나를 살피주시는 것 같아 즐거움과 그리움이 강물이 되어 흐른다.

다민족 다중 언어 국가 인도의 언어 정책

김도영

국제교류재단 파견 교수 · 델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동아시아학과

1. 들어가는 말

다민족 다중 언어 국가인 인도는 1971년 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보면 아리안어군, 드라비드어군, 오스트로 아시아어군, 티벳-버마어군, 세마-이토 햄리틱어군의 5개 어군에 1,652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GOI 1971). 이 언어 중에서 87개 언어로 미디어가 인쇄되고, 22개의 공용어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는 2015년 현재 12억 8,200만 명으로 월드미터에 보고되었다. 그 구성이 다양하고 인구가 방대한 만큼 역사적으로 인도의 언어 정책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복잡한 역사적 근거, 문화적 구성, 정치적 이념, 사회적 이슈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념과 이슈에 따라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와 실제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해졌다. 특히, 독립 이후 언어 정책은 다원적인 요소를 흡수·조화하며 발전해 나가도록 섬세히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1964년 이래로 언어 사용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영어, 힌디어,

각 주 공용어의 3개 언어 원칙을 적용해 왔다. 이 내용은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1961년 코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인도 교육 정책의 하나로 확정된 것이다. 인도의 이러한 3개 언어 원칙, 공용어 정책, 소수 언어에 관한 정책, 외국어에 관한 정책 등 행정, 교육, 국제 관계에 관련된 언어 정책의 배경, 조화와 합의, 최근까지의 변화와 발전은 한국 사회가 더 다원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자체의 방향을 볼 때도 언어 정책 결정 이후 50여 년이 경과한 2015년, 새로운 중앙 정부의 출범에 이어서 인도 언어 정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도 공용어로서 영어의 역사

현대까지 영향을 주는 인도의 언어 정책은 무굴 제국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무굴 제국 시대의 통치를 위한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였다. 공용어 이외에 국민들의 언어에는 간섭하지 않았고 인도 교육을 위한 언어로 각 지역의 모어 사용을 허용했다. 대영 제국 시대로 들어서자 1835년 베네팅크 총독은 인도의 언어를 ‘빈약하고 거친’ 언어로 규정하고, 당시 총독위원회 법률위원이며 대중교육위원회 의장이었던 메콜리가 제안한 서구 교육을 영어로 진행시키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식 학교 교육은 영어만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이 영어가 인도에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카스트 사회의 성격상 당시 인도 내 서구 교육은 거의 상층 카스트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계급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계급의 엘리트들이 서구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지도층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 정책은 영어 학자와 동양 학자 사이에서 언어 정책의 대립을 불러왔다. 동양 학자들은 영어만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인도 고유 언어의 사용과 발전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대영 제국하에서 인도국민의회당도 데바나가리(힌디어 문자)로 쓰인 힌디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서 언어 정책상 인도의 고유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영어를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어의 하나인 힌디어 사용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다. 산스크리트어를 모어로 하는 언어 사용을 지원하면 이를 사용하는 힌두교도들과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회교도의 마찰이 불가피해 인도 국민들 간에 종교로 인한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적 이유로 간디는 인도 전역에 힌디어와 우르두어의 중간 성격을 띠는 ‘힌두스탄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간디의 언어 정책에 관한 이러한 시각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 통치 언어인 영어에 대한 견제보다는 인도 국민들 내부의 힌두교도와 회교도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으로 인도는 우르두어나 힌두스탄어를 국어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인도는 독립과 더불어 인도인의 언어를 결정해야 했다. 방대한 인도 전역에서 전 국민에게 정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간에 소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통합을 가져오고 인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언어 정책 원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잠재적인 기준은 영어를 국어나 공용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영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게 틀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영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인

정한다는 것은 인도의 식민 상태의 상징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세계화의 시각에서 볼 때 영어 사용은 인도인에게 유익한 능력이 된 것은 맞다. 그러나 대영 제국의 식민 통치 기간에 인도에서 영어가 확산된 것은 인도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영어 사용 인구는 독립 당시 인도 인구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종합하여 보면 인도의 언어 정책 기조는 식민지 시대의 통치 언어인 영어 사용을 종식시키고 정부가 전달하는 법령을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국민 상호 간에 쉽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도 언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Das Gupta 1970: 109).

그렇지만 인도 상류 지배층이 이미 영어를 습득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어는 지배층의 언어이면서 남·북 인도를 망라하여 통치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결 언어이기도 하였다. 즉, 영어를 배제하면 중앙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각 주 간의 의사소통도 상당수 불가능해지며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마찰을 흡수할 완충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언어 정책에는 대영 제국의 식민 통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어서 주별 상황과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인도 정부는 영어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로써 영어는 사용 인구 수는 많지 않은데도 계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며 지난 65년간 힌디어 다음 부공용어의 공식 위치를 유지해 왔다.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영어는 고등 교육 언어로 현재는 발전과 부요한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국가적 활동과 국제적인 생활의 상징으로 비쳐지고 있다. 반면에 전술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인도 고유어 발전을 가로막는 언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어는 인도인에게 애증의 대상인 언어다.

3. 독립 이후의 공용어 정책

인도 정부는 독립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언어도 국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중앙 정부가 주 정부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수의 공용어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용어를 선정하는 언어 정책에는 영어의 위치를 확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민 상호간에 소통하는 다수의 인도 고유 민족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논란은 <1963년 공용어법(The 1963 Office Languages Act)>이 공포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어서 1976년 중앙 정부는 공용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1987년에는 그 수정안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인도 정부의 언어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용어는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1987년 당시의 18개, 또는 2015년 현재의 22개 지정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주 정부, 주 정부 상호 간의 기능과 소통을 위한 공용어로서 힌디어와 영어이다. 요약하자면 인도는 ‘국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의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 두 가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도에는 인도 헌법 18장에서 인정하는 중앙 정부의 공용어인 힌디어와 부공용어인 영어, 그리고 22개 지정 언어가 존재한다.

위에서 말한 공용어 법안은 힌디어와 더불어 영어를 중앙 정부의 공용어로 사용할 것과 중앙 정부와 각 주 정부, 그리고 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 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정부의 결의안이나 훈령, 법규, 명령, 공고, 통지, 기자 회견문, 연방 또는 지방 의회의 의사 보고 등에는 힌디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세부 지침을 보면 인도는 전국을 공용어 사용에 따라서 3개의 지

역으로 구분한다. A 지역은 비하르 주 · 하리아나 주 · 히마찰 프라데시 주 · 마드야 프라데시 주 · 라자스탄 주 · 우타르 프라데시 주 · 텔리 지역 및 안다만 니코바이고, B 지역은 구자라트 주 · 마하라슈트라 주 · 편잡 주 · 찬디가르 지역, C 지역은 기타 모든 주와 지역이다. 이 가운데 A 지역은 모든 소통은 힌디어로 하며 영어로 발행되는 것은 힌디어 번역을 동반해야만 한다. B 지역은 통상적으로 힌디어로 소통하는 것을 제외하면 A 지역과 같으며, C 지역은 정부기관은 중앙 정부나 A, B 지역 정부기관과 교신은 힌디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

4. 3개 언어 원칙

공용어 정책과 더불어 인도 정부는 국민들의 통합과 조화, 다음 세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3개 언어 원칙을 확정하게 된다. 이 3개 언어 원칙은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인도 남부의 카르나타카,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 나두와 같은 주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49년 각 주 교육부 장관들이 소수 언어, 또는 모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초하였고, 1961년 각 주 총리들의 회의에서 입안되어 코타리위원회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968년 교육부가 입안한 ‘인도 교육 정책’에서 발표되었다. 코타리위원회는 언어 발전을 위한 방향을 지역어, 3개 언어 원칙,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외국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항. 지역어: 인도 어문학의 강력한 발전은 교육,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창조적인 예

너지가 나오지 않고, 교육 수준이 향상될 수 없으며, 지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없고,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 사이의 차가 더 커지거나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역어는 초·중등 교육 언어로 이미 사용 중이다. 이 언어들이 대학 교육에도 채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2항. 3개 언어 원칙: 두 번째 단계로 각 주 정부는 힂디어를 사용하는 주에서는 힂디어와 영어를 제외한 현대 인도어 하나, 가능하면 남인도어를, 힂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에서는 지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힂디어 공부를 포함하는 3개 언어 원칙을 적극적으로 채택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대학 수준에 맞는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힂디어와 영어가 대학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3항. 힂디어: 힂디어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해야 한다. 힂디어를 연결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법 351조에 언급된 대로 인도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힂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에서 힂디어를 교육어로 사용하는 대학 및 기관 설립이 권장되어야 한다.

4항.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의 인도 언어 성장과 발전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과 인도의 문화적 통일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학교 및 대학 교육 시설이 더 전향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산스크리트어 교육 방법 개발이 권장되어야 하며, 그 지식이 1차적, 2차적 단계에서 유용한 (현대 인도어, 인도 고대사, 인도학, 인도 철학) 과정에 산스크리트어 연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5항. 국제 언어: 영어 및 여타 국제 언어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세계 지식,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이 성장에 맞출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영어 학습은 특별히 강화될 가치가 있다.

-인도교육위원회(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1970)

이 내용을 요약하면 힂디어를 사용하는 주는 힂디어, 영어 외에 1개의 현대 인도어(가능하면 남인도어)를 지역어로 배워야 하며, 힂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는 힂디어, 영어, 지역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회교도들이 사용하는 우르드어는 이들의 모어인데 이 우르드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어가 아닌 지역어를 제1 언어로 선택하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수정안이 제시, 적용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힂디어를 사용하는 주에서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로, 힂디어와 더불어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거나, 둘째, 우르드어와 현대 인도어 중 하나, 셋째, 영어와 현대 유럽어 중의 하나를 배우도록 한다. 힂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에서는 첫째로 지역어, 둘째로 힂디어, 셋째로 우르드어 또는 전술한 지역어와 힂디어를 제외한 현대 인도어, 넷째, 영어 또는 현대 유럽어 중 하나를 배우도록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3개 언어 원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3개 언어 원칙은 푸디체리, 타밀 나두 주, 트리푸라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적용되고 있고, 힂디어, 영어, 각 주 공용어가 각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달리 나타났다. 힂디어 사용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인도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았으며, 특히 남인도어를 배우는 일

은 드문 일이었다. 또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힌디어가 인도의 국어나 공용어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정서가 강해서 전술한 3개 지역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힌디어 사용 인구가 5%를 전후하는 주 인구의 현황을 보면 이러한 정서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힌디어만을 본다면 정부의 힌디어 보급과 확대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인도 전국적으로 그 사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힌디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의 세계 속에서 힌디어를 매개체로 하는 국가 통합과 정체성 형성은 인도 정부의 언어 정책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서 힌디어 사용 인구는 1991년 전체 인구의 39.29%에서 2001년 센서스에서는 41.03%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힌디어가 전국의 주 공용어로서 역할과 위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민족주의적 성향의 현 정부 정책은 데바나가리를 사용하는 힌디어 사용을 강화하여 인도의 정체성을 힌디어와 더 붙여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힌디어는 영화, 드라마, 언론 등 미디어의 발달과 정부의 힌디어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그 사용자와 이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힌디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서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나타나는 실제 적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어 중앙연구소는 각 주에서 3개 언어 원칙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22개 지정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었다.

1986년에는 인도 교육 정책에서 이 3개 언어 원칙을 재확인하고 2005년 국가 교과 과정 안에서 언어 교육의 6개 사항을 확정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언어 교육은 언어의 수효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발전된 전략에서도 다중 언어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가정 언어가 학교 교육 언어이어야 한다.

셋째, 만일 학교가 고학년에서 아동의 가정 언어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초등학교 교육은 가정 언어로 교육되어야 한다. 아동의 가정 언어를 존중해야만 한다. 헌법 350조 A항에 각 주와 각 주 내 구역의 기관들은 소수 언어에 속하는 아동들에게 모어로 초기 단계 교육을 할 적절한 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넷째, 아동들은 초기부터 다중 언어 교육을 받는다. 3개 언어 원칙은 다중 언어 국가에서 다중 언어 소통을 증진하면서 정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의 아동들은 힌디어를 배운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주의 아동들은 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배운다. 산스크리트어는 이 언어에 부가하여 현대 인도어로 간주하여 학습할 수 있다.

여섯째, 후기 단계에서 고전 및 외국어를 도입할 수 있다. 3개 언어 원칙의 주목적은 10년의 교육 기간 중 3개 언어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언어들 간의 조화와 평등을 진흥시키는 것이다. 국립 교육연구 교원양성소(NCERT)가 제시한 2005년 국가 교육 과정 안은 3개 언어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다. 이 안은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가 명확한 인지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3개 언어 원칙은 인도 언어 상태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다. 더 많은 언어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문자와 정신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 으뜸 목적은 다중 언어 주의와 국가적 조화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학교 교육 언어를 분석해 보면 초·중·고 교육 중 교실 내에서 여러 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며,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라도 더 고등 교육으로 이행하면서 다중 언어 사용을 권장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는 북동부 일부 외에는 남인도 지역인데, 이 지역 초·중·고교의 힌디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5. 전망

인도의 언어 정책은 전국적인 조화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언어 교육으로 진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힌디어 사용이 강화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용어 정책과 3개 언어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5년 2월, 15인으로 구성된 ‘인도언어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언어 정책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골자는 힌디어를 전국의 주공용어로, 각 주의 공용어를 부공용어로, 영어를 제3 언어로 바꾸는 정책 연구다. 위원장인 카필 카푸르 교수는 “영어는 인도인의 모어가 아니라서 창조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소통을 위한 언어로 필요하므로 제3 언어로 존재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모국어로 사고하고 소통할 때 창조성이 살아나므로 모어인 인도어를 강화하고, 영어는 소통을 위한 보조어로 유지시킨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서 힌디어는 정부의 주공용어로서, 3개 언어 원칙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공통 언어로서, 교육 기관에서는 기본 교육어로서 위치를 확보하였고, 3개 언어 원칙 실천의 핵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스크리트어의 교육과 회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사회적 확산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3차 언어로 위치를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일치하는 새로운 정부의 언어 정책을 최종 결정할 위원회 위원장의 언급도 인도 미래 언어의 방향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Baldrige, Jason(1996), *Reconciling Linguistic Diversity: The History and the Future of Language Policy in India*, University of Toledo.
- Brass, Paul R.(2005), *Language, Religion and Politics in North India*, iUniverse.
- Chopra, Ritika(2015.1.8.), German language row: HRD ministry to draft new language policy for education sector, *The Economic Times*, ET Bureau.
- Das Gupta, Jyotirindra(1970), *Language Conflict and National Development: Group Politics and National Language Policy in Ind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109.
- Nayar, Baldev Raj(1969), *National Communication and Language Policy in Ind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 Sridhar, Kamal(1989), *English in Indian Bilingualism*, Manohar Publication, Delhi. 9.
-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5-01-08/news/57838184_1_three-language-formula-language-policy-education-sector
- <http://www.archive.india.gov.in>
- <http://www.britishcouncil.org/Ramanujam> Meganathan, Paper 4 Language policy in education and the role of English in India: www.constitution.org/cons/india/p17343.html
- <http://www.dise.in/Downloads/KothariCommissionVol.1pp.1-287.pdf>
- <http://www.ling.upenn.edu/~jason2/papers/natlang.htm>, “APPENDIX B Topics for Discussion on Language Policy in India. which had just been ousted, English was to many a "symbol of slavery" (Nayar 1967, p.12).”
- <http://www.ncert.nic.in>
- <http://www.lawmin.nic.in/coi/coiason29july08.pdf>
- <http://www.rajbhasha.nic.in>
-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threelanguage-formula-not-implemented-effectively-mha/article6287829.ece>
- The Hindus: Three-language formula not implemented effectively: MHA, New Delhi, August 6, 2014.

인터뷰

Prof. Kapil Kapoor, Chairman, Language Expert Committee, Ministry of Education, Government of India.

국어 산책

신문 언어, 《독립신문》에 길을 묻다

홍성호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부국장)

“신문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세금 폭탄’이란 게 있는데,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세금=폭탄’이란 구조화를 통해 세금을 걷는 국가를 악당이고 납세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틀을 바꿔야 합니다. 세금은 ‘모두의 재산’이고 ‘국가의 생계 비용’이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악당이 되는 거죠.”

지난 4월 23일 저녁 서울 공덕오거리 인근 한 건물에 자리 잡은 한글문화연대 강의실. 인지언어학자인 나익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이 ‘생활 속의 은유’를 주제로 일상에 스며든 은유의 사례를 풀어냈다. 어렵게 느껴지던 은유의 세계에 대해 이론과 일상의 언어를 넘나들며 설명하는 나 연구원의 말에 참석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 언어의 우울한 미래

이론은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양분이다. 특히 현업에 있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끈따끈한’ 지식을 접한 뒤 신문을

보니 평소에는 흘러보냈던 은유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명품학교.”(이 역시 나 연구원이 소개한 예이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명품교육을 전개…….” “이른바 ‘명품학교’로 불리는 서울 지역 사립 초등학교에서…….” 이런 말들에는 학생을, 교수를, 학교를, 나아가 교육을 상품화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 학생과 학교는 ‘팔려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팔려야만 살아남는다’는 명제를 은연중에 주입해 교육을 생존 경쟁의 장(場)으로 몰아붙인다. 인성이나 전인 교육은 후순위가 된다.

신문 언어에서 은유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체로 경쟁의 산물이다. 신문에서 조어나 약어 등 넓게 보아 은유의 일종인 수사적 표현이 넘쳐 나게 된 것은 1997년 말 외환 위기 때부터였던 것 같다.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엄혹한 구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는 전시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전쟁이나 전력(戰力)을 염두에 둔 ‘연봉 錢爭’, ‘외국 錢力’(각각 ‘돈 싸움’, ‘돈의 힘’을 암시하는 상징어), 외환 자금이 고갈된 것을 나타낸 ‘弗難 집’ 같은 ‘요상한’ 표현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연상케 하는 ‘錢禍爲福’(환율이 올라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의미), 외화가 부족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錢錢 궁궁’ 같은, 동음이의어(칼랑부르) 수법을 활용한 은유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좋게 봐서 ‘시적 언어’의 기발함으로 독자 눈길을 사로잡는 데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회용에 그친 말들이다. 우리말의 조어법에서 벗어난, 국적 불명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아마도 ‘IMF’가 아닐까 싶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지 요즘도 ‘1997년 말 IMF 때’, ‘IMF를 맞아’, ‘IMF 때문에’, ‘IMF

를 당해', 'IMF를 극복하고' 식으로 쓰이곤 한다. 물론 잘못 쓰는 말이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을 가리키는 영문 약자이다. 외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 'IMF=외환 위기'인 것처럼 자리 잡은 듯하다. 일종의 환유인 셈이다. 하지만 IMF의 도움으로 우리 경제가 혹독한 '군살빼기' 과정을 거쳐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입말에서야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다가도 그것이 막상 기사의 일부로 쓰일 때는 당혹스럽다.

식물국회, 방탄국회, 총풍, 여풍, 쪽지예산, 관피아, 정피아, 불통장관, 꼭두각시 정부, 짜고 치는 고스톱, 사오정, 오류도,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오폭세대…….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신문 언어의 역할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실은 은유와 상징이 난무한다. 신문 언어가 지나치게 은유화할 때 자칫 우리말 어휘 체계까지 어지럽혀 국어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신문에서 만들어 내는 '관습화된 은유'가 일상의 사고를 지배하고 고착시켜 당연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실의 언어와 은유화한 언어 사이의 갈등과 다툼, 그것이 신문 언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윤기 선생이 걱정한 '명사의 사막화'

신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건강하게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념어가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사점이 많다. 작가이자 신화 연구자이셨던, 돌아가신 이윤기 선생은 오래전에 한 월간지에 '동집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말 명사가 사라져 간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술집에서 우리는 닭의 모래주머니 구운 것을 즐겨 먹었지요. ‘똥집, 똥집’ 하기는 싫고 ‘모래주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길고 해서 주인과 ‘꼬꼬집’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만 그건 우리 마음에 지나지 않았지요. 주인은 주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랬지요. “똥집 한 사라 (접시를 뜻하는 일본말-필자 주)”

복잡한 사회에서는 분화된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새로운 우리말 창출은커녕 있는 말조차 외래어의 홍수 속에 사라져 가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를 ‘명사의 사막화’라고 비유했다.

명사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개념어가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대개는 한자가 사라진 자리를 외국어(영어가 태반이지만)가 메우게 된다. 그러니 외국어의 위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만하다. 그 자리에 단단한 우리말이 자리를 잡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우리말 명사의 70%가 한자어이지만 한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한자어는 뿌리마저 허약해져 자칫 오용되기 십상이다. 정교한 의미의 분화는커녕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마저도 무뎌지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이미 우리 언어생활에서 넘쳐나고 있다. 가령 ‘임대료’와 ‘임차료’를 구별하지 않고 두루 통용해 쓴다거나 “프랑스 남성이 미국 남성보다 평균 3배 낮은 심근경색 발생률을 보였다.”에서 보이는 ‘배(倍)’의 오용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시철만 되면 여전히 “학생들은 마감 시간 직전까지 눈치작전을 펼치다 원서를 접수했다.” 같은 표현이 쓰인다. 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을 학생이 접수했다고 한다. 그것이 한자 의미 체계가 약해진 탓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입도선매’도 자의적으로 비틀어 쓰는 사례가 많다. ‘대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3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주는 등 ‘입도선매(立稻先

賣)’ 작전을 펼치고 있다.”처럼 쓴다. ‘입도선매’는 예전에 지주들이 돈에 쫓들린 소작농들에게 여물기도 전에 벼를 미리 ‘팔게’ 강요한 데서 생긴 말이다. 그래서 ‘매(賣)’자가 들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농민들을 수탈하던 수단으로 쓰인, 아픈 역사가 담긴 말이다. 그나마도 이 말은 ‘팔다’는 뜻의 말인데, 요즘은 대부분 이를 ‘사다(남보다 먼저 확보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이를 ‘입도선매(立稻先賈)’로 바꿔 쓰는 게 차라리 의미에 맞을 것이다. 우리말을 이치에 맞게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쓰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수입산’이나 ‘부족난’ 같은 정체불명의 말이 걸러지지 않고 쓰이는 것도 우리말 진화에 역행한다. 일본산이나 중국산은 있어도 ‘수입산’은 성립하지 않는 말인데, 이런 엉터리 조어가 의외로 많다. ‘부족난’도 ‘공급난, 식량난, 전력난, 구인난, 구직난’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을 어법에 안 맞는 말을 만들어 쓴다. 모두 비논리적인 말들이다.

인사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자’도 우리말의 모호성에 한몫하는 말이다. 지명자는 말 그대로 ‘지명하는 사람(nominator)’으로 영어에서는 지명자(nominator)-피지명자(nominee)가 확실히 구별되지만 요즘 우리말에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접두사 ‘피(被)-’가 있지만, 한자의 쓰임새가 줄어들면서 ‘지배자-피지배자’ 등 일부 말을 제외하곤 현실 언어에서 활발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에도 이미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자. 또는 그렇게 지명을 받은 자’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 풀이해 놨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나뉘고 추천자-피추천자, 포상자-피포상자, 초청자-피초청자 등이 다 구별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루뭉술하게 쓰인다.

신문 언어, 나아가 우리말에서 진행되는 개념어의 퇴보는 결국 우리말 의미 체계를 모호한 상태로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런 사례들은 우리말을 잘못 쓰는, 우리말 진화에 역행하는 작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가 사라진 자리엔 외국어가 넘쳐 나고……

말에도 경쟁력이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다 보면 불편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자연스레 힘이 약해진다. 언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말은 사라진다. 언어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말들 간에 경쟁으로 살아남는 말과 도태되는 말이 결정되는 게 언어 생태계의 순리이다. 말을 억지로 틀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언어의 각축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핫하다’가 그중 하나다.

“요즘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다.” 한 신문에서 따온 이 문장은 대부분의 신문에서 오십보백보로 나타난다. 좀 더 나아가면 ‘핫 플레이스’, ‘핫 분양’도 나온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아파트 분양이 잘된다고 하니까 언론에선 너도나도 ‘핫’을 애용한다. 그것도 모자라 기사마다 아찔한 ‘핫 보디’를 넘어 ‘핫한’ 여배우들까지 ‘핫! 핫! 핫!’이다.

이 ‘핫한’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말과 외국어가 뒤섞여 더 어리둥절하다. 우리말에서 ‘핫’이 쓰인 말로는 얼른 떠오르는 게 ‘핫바지’이다.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를 말한다. ‘핫’은 ‘솜을 둔’이란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당연히 투박하고 모양새가 영 나지 않는, 서민의 옷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이 이 핫바지는 몰라도 핫보디나 핫팬츠는 알 것이라는 우울한 생각마저 든다.

‘핫’을 국어사전은 ‘짜을 갓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도 풀이하고 있다. 홀어미, 홀아비에 대응하는 핫어미, 핫아비가 대표적인 예이다.

‘핫핫’이라 하면 입을 한껏 벌리고 호탕하게 웃는 소리나 모양을 뜻한다. (아쉽게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말을 북한어로 처리했다.) 요즘은 이 말도 자칫 ‘핫! 핫!(hot! hot!)’으로 알아들을지 모르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핫바지나 핫어미의 뜻을 아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혹여 ‘핫’을 우리말 ‘핫’으로 알기보다 영어의 ‘핫(hot)’으로 읽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핫바지’도 자칫 ‘핫(hot)바지’로 오인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핫팬츠가 있어서 그럴 개연성은 더하다.

결국 우리말 ‘핫’은 이제 죽어 가는 말이고, 영어의 ‘핫’은 이른바 ‘뜨는 말’인가? 이런 전제가 타당성이 있다면 신문 언어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공공 언어 정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굿 스테이’ 제도도 곤혹스럽다. 중저가 숙박 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이 ‘굿 스테이(Good Stay)’다. 정부에서도 ‘굿 스테이’로 홍보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냥 받아쓴다. ‘우수 숙박 시설’이라 하면 괜찮았을 말이다. 이런 경우 신문에서는 ‘우수 숙박 시설’이란 말보다 ‘굿 스테이’를 먼저 쓰게 된다.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명칭이고, 이미 고유 명사화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정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굿 스테이(Good Stay)’를 부제 정도로 병기하면 그만이었을 일이다.

올 들어서는 국토교통부가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놨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내용은 ‘기업형 임대 주택’ 사업이다. 또는 ‘기업형 전 · 월세 주택’이라 해도 된다. 이 역시 대외 홍보용 이름

은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다.

공공 기관에서 여전히 ‘영어를 써야 먹힌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언론 보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어를 걸러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립신문 정신’으로 돌아가야

뉴스 언어는 과학의 언어와 시적 언어의 중간에 놓인 ‘모호한’ 실체이다. 말의 사용이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의적이어서 더더욱 안 된다.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속되거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언어 사용에서 언제나 규범과 일탈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한다.

신문 언어가 외국어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정교하고 논리적이며 분화된 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까닭은 독자와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쓴 기사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다.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쓴다는 것은 곧 ‘우리말답게’ 쓴다는 뜻이다. 모국어 화자라면 특별히 훈련받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법, 즉 말하듯이 풀어내는 게 ‘우리말다움’의 요체이다. 몸에 익은 말을 쓸 때 신문과 독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가 업인 기자들에게 ‘우리말답게’ 글을 쓴다는 것은 평생의 숙제이다.

120여 년 전 《독립신문》 창간호에 ‘읽기 쉽고, 알기 쉽게’란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
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세여 쓴 즉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중
 략)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
 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 하니 첫지는 빅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 보기가 쉬홀터이라**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첫 호를 냈으니 꼭 119년 전 글이
 다. 창간호에서 창간사격인 1면 ‘론설(지금의 사설)’을 2개 면에 걸쳐
 실었는데, 그중 절반을 할애해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 방침 등 우리말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한문 대신 국문으로만 쓰고, 그 까닭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하기 위
 한 것이란 점을 밝혔다. 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보기 쉽고 말
 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글자가 한문
 보다 배우기가 쉬워 좋은 글이고,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
 다 같이 알아보기 쉽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 언론의 태동기인 당시에 《독립신문》이 이 같은 혁신적인 기
 사 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창간 회원들이 우리말의 중요성을 명
 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문 기자’ 주시경
 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신문이 지향해야 할 기사 작성법을 ‘알기 쉽고, 읽기 쉽게’로 제시한
 점은 선구적이다.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까닭을 “……상하
 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
 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고 했다. 이미 당시에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신문 언어가 가야 할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알기 쉽고 읽기 쉽게’란 다른 말로 하면 독자 눈높이에 맞춘, ‘독자 친화적 글쓰기’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맞춤법을 갖게 된 것은 1988년에 현행 〈한글 맞춤법〉을 고시하고, 1989년에 시행하면서부터다. 맞춤법의 역사야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시작하지만 일제 때의 굴곡과 광복 뒤 수십 년간의 혼란을 감안하면 언어, 문자 생활에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간 것은 불과 30년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 언어로서의 신문 언어는 지금 한글 기반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로마자나 일본의 가나도 수시로 한글과 함께 섞인다. 더구나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누리 소통망(SNS) 등 다변화된,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 언어와도 싸워야 한다. 신문 언어는 말 그대로 ‘날것’들이 넘쳐 나는 속에서 ‘도전과 응전’을 강요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 “상하 귀천이 모두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신문 언어가 가야 할 길이다. 《독립신문》의 창간호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1.1. ‘드론’ 대신 ‘무인기’

- 드론(drone)의 다듬은 말: 무인기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의 다듬은 말: 즉시 퇴출

‘드론’은 ‘무인기’라는 뜻으로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로 유도해 비행 및 조정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항공기’를 이르는 말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때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또는 기업, 영업소 등의 특정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를 뜻하는 말로, ‘즉시 퇴출’로 다듬었다.

1.2. ‘인포그래픽’ 대신 ‘정보 그림’

-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의 다듬은 말: 정보 그림
- 스핀 오프(spin off)의 다듬은 말: 파생작
-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의 다듬은 말: 정보 가림 평가
-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의 다듬은 말: (정보) 추천 서비스
- 시그니처 아이템(signature item)의 다듬은 말: 대표 상품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또는 뉴스 그래픽(News graphics)’이라고도 하며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 그림’이라고 다듬었다. ‘스핀 오프’는 ‘주

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만화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존의 작품(본편 또는 원작)에서 파생된 작품을 이르는 말이므로 ‘파생작’이라고 다듬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실험에 참가하게 한 다음, 반응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실험 방법’을 뜻하며, ‘정보 가림 평가’라고 다듬었다. 이때 ‘평가’는 문맥에 따라 ‘실험’, ‘시험’, ‘검사’ 등으로 대체하여 쓸 수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추천 서비스’로 다듬었는데,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적절한 꾸림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이다. 다듬은 말 ‘(정보) 추천 서비스’는 ‘정보’ 외에 ‘뉴스’나 ‘도서’ 등 추천하는 대상을 넣어 ‘뉴스 추천 서비스’, ‘도서 추천 서비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아이템’은 ‘대표 상품’으로 다듬었다. ‘각 회사’의 상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품이나 제품을 뜻한다.

1.3.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 공모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말터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을 공모하고 있다. 다듬은 말로 선정된 말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터’ (<http://malteo.korean.go.kr>)의 ‘이렇게 바꿨어요!’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5년 제2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중국의 어문 정책과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
- 발표자: 정인갑(전 북경청화대 교수)
- 일시: 2015년 3월 16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 북경청화대 중문학과 정인갑 교수가 ‘중국의 어문 정책과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라는 주제로, 중국 어문 정책의 제정·집행 구조 및 언어 정책의 역사와 방향성, 한어(漢語)를 바탕으로 본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중국은 1954년 12월에 중국 최초의 어문 정책 등을 제정 및 집행하는 기관인 ‘중국어문자개혁위원회(中國文字改革委員會)’를 설립하였다. 그 에 소속된 ‘문자개혁(文字改革)출판사’는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문 정책 등을 반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의 언어 문자를 연구하는 ‘어언학(語言學)연구소’가 있으며, ‘고대한어연구실’, ‘현대한어연구실’, ‘방언연구실’, ‘《중국어문(中國語文)》잡지실’ 등이 있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출판사’에 ‘공구서(工具書)편집실’이 있으며, 주로 현대 한어(現代漢語)에 관계되는 업무를 실행한다. ‘중화서국(中華書局)출판사’에 ‘어언 문자편집실(語言文字編輯室)’이 있으며 주로 고대 한어(古代漢語)와 관계되는 업무를 실행한다. 위의 1기관, 1연구소, 3출판사가 중국 언어 문자의 정책 및 사업 전반을 이끈다.

‘중국어문자개혁위원회’는 한자의 정리와 간체화, 한자 독음의 규범화,

한어 병음 자모의 제정, 표준어 보급 등을 통해 중국 어문 정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0~1965년에는 ‘한자 자형(字形)의 규범’, ‘간체자의 제정’, ‘한자 음독의 규범’, ‘병음 자모의 사용’, ‘표준어 보급’ 등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로 홍콩, 대만과 세계 각국 화교의 언어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영어 등 외래어가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어문자개혁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의 변혁이 불가피하였다. 1985년 12월에 ‘중국어문자개혁위원회’를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이하 ‘국가어위’)’로, ‘문자개혁출판사’를 ‘어문출판사’로 개명하였다. 1998년 2월 ‘국가어위’를 중국 교육부 산하로 귀속시키고, 부부급(副部級) 단위(차관급)로 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어위’의 역할을 “국가 언어 문자 사업의 방침, 정책 및 법령을 관철·집행하고,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촉진하며, 문자 개혁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90년대부터 ‘국가어위’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어의 순결성과 규범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래에 제시하는 기준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첫째, 번역상의 오류가 있다.

古郡主獻青牛。

-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제1권 24쪽.

번역: 고타군주가 푸른 소를 바쳤다.

정정: 고타군주가 검은 소를 바쳤다.

※ 青牛: 털이 검은 소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靑牛: 黑毛的牛。

고대 중국어에서 ‘靑’을 ‘검다’는 뜻으로도 썼다.

둘째, 쉽게 피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汝今忍害老兄乎?

-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제1권 169쪽.

번역: 네가 지금 늙은 형을 차마 해칠 수 있느냐?

정정: 네가 지금 차마 형님을 해치겠느냐?

※老: 여기에서 ‘老’는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칭하는 접두사이다. 한국어 ‘-님’의 용법과 비슷한 현대 중국어의 용법이다.

셋째, 현대 중국어 단어를 틀리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嘗入朝尙早, 立紫宸殿門。

-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제1권 330쪽.

번역: 일찍이 조정에 알현하러 들어가다가 아직 일러서 자신전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정정: 조회하러 간 것이 아직 일러 자신전 문에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한국 고전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한문과 현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현 고전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문으로 사고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인갑 교수의 발표에 이어 중국의 간체자, 번체자 사용 정책, 향후 중국의 외래어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문 정책 교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2. 2015년 제3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성경 번역과 한국어 문법 및 문체
- 발표자: 전무용(대한성서공회 번역실 국장)
- 일시: 2015년 4월 6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전무용 국장이 ‘성경 번역과 한국어 문법 및 문체’라는 주제로, 성서 번역의 특징과 성서 번역자들이 고민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성경의 문체는 옛 시대의 것으로 그것이 번역되던 시대의 일상적인 문체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독자를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현대 한국어의 문법과 문체를 고려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중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번역어를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하니라/-하였다’와 ‘-이니라/이다’ 중에서 어떤 종결형 어미를 사용할 것인지, 또 ‘약대’와 ‘낙타’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토박이말인 ‘약대’와 한자어인 ‘낙타’를 두고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도 ‘약대’를 쓰고 있으니 《성경전서 새번역》에서도 ‘약대’를 쓰자는 의견과 ‘낙타’가 훨씬 더 익숙하니 ‘낙타’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다. 번역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서 ‘낙타’로 쓰기로 결정하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도 이 말은 모두 ‘낙타’로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총 2회 사용된 중세 국어의 ‘괴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모두 ‘사랑’으로 바꾸었다.

- ‘개역 에스더기’ 2:15 에스더가 …… 모든 보는 자에게 꿈을 언더라
→ ‘개정 에스더기’ 2:15 에스더가 ……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 ‘개역 에스더기’ 10:3 유다인 모르드개가 …… 그 허다한 형제에게 꿈을 받고
→ ‘개정 에스더기’ 10:3 유다인 모르드개가 ……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개역개정판 성경》 개정 작업을 할 때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계집’을 ‘여인’ 또는 ‘여자’로 고치기도 하였다. 원래 중세 국어에서 ‘계집’은 비속어가 아니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계집’이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성경에서 ‘계집’을 ‘여인’으로 개정한 것 역시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하겠다.

한국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에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롭게 만든 말,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빌려 쓴 말 등이 있다. 특히 ‘구원, 십자가, 성령, 선지자, 제사장, 성전, 세례, 구속(救贖)’ 등 많은 낱말들을 중국어 성경에서 차용하였다.

한국 교회에서 사용해 온 중요한 용어는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시대에 맞는 용어나 개념으로 새롭게 번역할 필요도 있다.

- ‘개정 민수기’ 28:10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 ‘새번역 민수기’ 28:10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 ‘개정 창세기’ 21: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 ‘새번역 창세기’ 21:22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편 문화 차이 때문에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사물들이 많다. 성경 원문에서는 ‘빵’이지만 ‘떡’으로 번역한 경우가 그러하다. 한국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온 사람에게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빵을 떼며’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분/여러분들’처럼 한국어 복수접미사 ‘-들’을 사용할지, ‘고마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처럼 형용사의 높임을 인정할지, 또 ‘빛이 있어라’ 등의 명령형을 사용할지에 대한 번역자들의 고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전무용 국장의 발표 후 종교 경전의 번역 문제가 국어에 미친 영향, 선교사들의 사전 편찬과 보급 활동 내용, 성경 번역의 외래어 표기법, 차용어 사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성경 번역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문법과 문체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감하며 원내 토론회를 마쳤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연구 결과’→‘기타 자료’→검색: 검색어 ‘실무소위’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1차 심의 확정안(2015. 2. 16.)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2차 심의 확정안(2015. 3. 2.)
 - 제119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3. 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3차 심의 확정안(2015. 3. 1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4차 심의 확정안(2015. 3. 2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5차 심의 확정안(2015. 3.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6차 심의 확정안(2015. 4. 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7차 심의 확정안(2015. 4.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8차 심의 확정안(2015. 4. 1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9차 심의 확정안(2015. 4. 24.)
- 제120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4.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10차 심의 확정안(2015. 5. 1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11차 심의 확정안(2015. 5. 22.)

4. 제10대 국립국어원장에 송철의 서울대 교수 취임

2015년 5월 26일자로 송철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제10대 국립국어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5월 25일까지 3년이다.

송철의 신임 원장은 국어학, 한국어 교육학, 국어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주시경의 언어 이론과 표기법”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신임 원장은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성품으로 국어학, 국어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국어학계의 신망을 두루 받고 있으며, 행정 능력을 겸비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년간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국외 한국어 교육, 남북한 어문 규범 단일화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어 한국어 세계화, 남북한 언어 통합, 공공 언어 개선, 국어 정보화, 언어 복지 증진 등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조사 결과 발표

국립국어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 대중 매체 139개에 등장한 새 낱말(신어) 334개를 조사하여 2014년 신어를 발표했다.

우리말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신어 조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은 이번 2014년 신어 자료집에 ‘넉프족’(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 비용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 ‘일자리 절벽’(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신어들을 수록하였다.

5.1.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

이번 신어에는 특정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어휘가 27%(92개)나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모루밍족**: 실속 있는 소비 경향과 관련된 말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 **출퇴근 쇼핑족**: 숨 가쁜 일상을 반영한 말. 출퇴근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따위로 쇼핑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오포 세대**: 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반영했다.
- **앵그리맘**: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분노하여 적극적으로 그 해결에 참여하는 여성을 뜻한다.

그리고 ‘금사빠녀’(‘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꼬돌남’(‘꼬시고 싶은 돌아온 독신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남녀의 특징을 반영한 어휘도 등장했다. 이렇게 특정 부류를 가리키는 접사로 ‘-족(族)’, ‘-남(男)’, ‘-녀(女)’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앵그리맘’과 같은 외래어를 기반으로 만든 신어의 비율도 64%로 높게 나타났다.

5.2. 주제별로는 사회·경제, 통신 순

주제별로는 사회·경제(24%, 80개), 통신(14%, 47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와 관련된 신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임금 절벽**: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말이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반하여 임금은 오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주거 절벽**: 급격하게 오른 주거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디 공포**: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를 가리킨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창업 절벽’ 등으로 설명한 <<절벽사회>>(고재학 씀)에서 유래한 ‘절벽’계 어휘들이 다수 등장했다.

다음으로는 통신 관련 어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과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의 사용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먹스타그램**: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올리는 일.
- **인생짤**: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을 말함.
- **광삭**: 빛의 속도와 같이 매우 빠르게 삭제함.

이 밖에도 ‘맛저’(‘맛있는 저녁’을 줄여 이르는 말), ‘부먹파’(탕수육을 먹을 때에 튀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에 반하여, 튀긴 고기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의 무리) 등 음식 관련 어휘, ‘돼지맘’(은어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에 정통하여 다른 어머니들을 이끄는 어머니를 이르는 말), ‘자동봉진’(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줄여 이르는 말) 등 교육 관련 어휘들도 여럿 나타났다.

5.3. 감정을 표현하는 신어

감정을 표현하는 신어도 10개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급지다’(고급스러운 멋이 있다), ‘심멋’(심장이 멋을 만큼 멋지거나 아름답다는 말), ‘핵꿀잼’(매우 많이 재미있음) 등의 긍정적 어휘가 8개인 반면에 ‘노관심’(관심이 없음), ‘극혐오하다’(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와 같은 부정적 어휘는 2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최근 불경기와 취업난에 비추어 보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매해 조사 전 12개월에 걸쳐 발간된 대중 매체의 언어를 대상으로 자동 신어 조사기를 활용하여 신어 후보 항목을 추출하고, 비속어 제외 등의 신어 선정 기준에 따라 그해 신어를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신어는 이후 지속적인 사용 양상을 관찰하여 사전의 등

재 여부 및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4년 신어 자료집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4년부터 구축한 신어를 국민 참여형 웹사이트로 개발 중인 ‘우리말샘’(2016년 개통 예정)에 포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6. 국립국어원,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 마련

국립국어원은 재난 보도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담은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8쪽 분량)을 마련하여 전국의 신문·방송사에 배포했다.

6.1. 세월호 사고 방송 보도 내용 분석, 유형별 기준 제시

작년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이후 9월 16일에 10개 언론 단체가 공동으로 ‘재난 보도 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재난 보도 준칙’은 신속·정확성,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보도 계획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언어, 영상, 자막, 그래픽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도 준칙이 있어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재난 보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2014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 세 곳과 종합 편성 채널 네 곳의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보도들을 분석한 결과, 소통성이 떨어지

는 보도 33.1%(구체적이지 않은 표현 19.3%,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13.8%),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26.4%(자극적 표현 10.7%, 편파적 표현 9.4%, 과장된 표현 6.3%), 부정확한 보도 21.1%(추측에 근거한 표현 12.9%,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8.2%) 등의 순서로 유형별 빈도를 보였다.

6.2. 여덟 가지로 재난 보도 언어 사용 기준 제시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은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 표현을 유형화하여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로 언어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풀이와 오류 용례를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1. 근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2. 추측 표현을 피한다.
3.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구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5. 재난 상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6. 뉴스 전달자의 개인적 감정 표현을 자제한다.
7.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8.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은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 총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의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배포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자료 찾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은 청소년들이 또래 간의 대화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 자료'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7.1. 청소년의 대화 갈등 기초한 자료 개발

2011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생의 97%, 중·고등학교생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고, 글말이나 통신 언어에 비해 입말에서 욕설 등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더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로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할 때'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응답하여, 대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격적인 언어,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대화 중 나타나는 갈등을 폭력적인 언어로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소통 문제에 주목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청소년들이 또래 간에 대화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각각의 갈등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을 담고 있다.

7.2.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활용도 높여

청소년들의 대화 장면을 담은 영상과 교수 학습 자료로 구성된 이번 자료는 각각의 주제가 현 교육 과정(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학년별 국어, 화법 영역의 내용 요소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정규 교과 과정 중에

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개인이 영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와 교사용 지도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활용도를 높였다.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주제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줌.” ↔ “하고 싶은 말이 뭘데.”
-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 비언어적 표현: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 대화 구도 인식 차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특히, 대화 방법은 실제 대화 장면 없이 교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대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를 지도 자료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동영상의 내용을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의 순서로 구조화하되 줄거리가 있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흥미를 높였다.

7.3. 국외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화 프로그램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교육은 청소년 언어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미국의 ‘자기 방어 언어 표현(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호주의 ‘응대 말(Comebacks)’ 프로그램, 핀란드의 ‘키바 따돌림 방지(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등과 같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기 방어 언어 표현 프로그램(미국): 정신과 감정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폭력을 방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언어 사용법.
- 응대 말 프로그램(호주):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받아 넘기는 언어 표현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언어 프로그램.
- 키바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핀란드): 언어적 · 신체적 · 사이버 괴롭힘 모두를 다루며 학생들의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교육을 지향하는 언어 프로그램.

영상 자료 및 교수 학습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자료 찾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겪는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지도 자료가 일선 학교뿐 아니라 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청소년 유관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2015년 2분기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너무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먹다/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너무 <u>가깝다</u> /너무 <u>많다</u>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몰라라 한 것도 사실이다. <최일남, 거룩한 응달>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너무 <u>좋다</u> /너무 <u>예쁘다</u> /너무 반갑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몰라라 한 것도 사실이다. <최일남, 거룩한 응달>	뜻풀이 수정
노 ¹⁶	「어미」『방언』<(용언의 어간이나 ‘-았’, ‘-겠’ 뒤에 붙어)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경상).>	「어미」『방언』<(의문사가 있는 의문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았’, ‘-겠’ 뒤에 붙어)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경상).>	문법 정보 수정
담 ⁰⁹	-	담이 결리다. 「관용구」 담병이 들어 몸의 어떤 부분이 뜨끔뜨끔 아프거나 빠근한 느낌이 들다.	관용구 추가
도inken	-	도inken-개inken 「명사」 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	표제어 추가
도inken개inken	-	도inken-개inken 「명사」 →도inken개inken.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도우미	행사 안내를 맡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요원.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쓴 말이다.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거들어 주기 위해 채용된 사람.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자원 봉사자에게 처음 쓴 말이다.	뜻풀이 수정
들통나다	-	들통-나대-나, -나니 「동사」 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나다. ❶어제 하루 자신의 부재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들통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은…《이동하, 도시의 늪》	표제어 추가
떼다 ⁰¹	[3] 【…을】 「1」 함께 있던 것을 홀로 남기다. 「2」 봉한 것을 뜯어서 열다. 「3」 걸음을 옮기어 놓다. 「4」 말문을 열다. 「5」 부탁이나 요구 따위를 거절하다. 「6」 버릇이나 병 따위를 고치다. 「7」 아기를 유산시키다. 「8」 배우던 것을 끝내다. 「9」 수표나 어음, 증명서 따위의 문서를 만들어 주거나 받다. 「10」 권리를 없애거나 직위를 그 만두게 하다. 「11」 화투로 점 따위를 치다.	[3] 【…을】 「1」 함께 있던 것을 홀로 남기다. 「2」 봉한 것을 뜯어서 열다. 「3」 걸음을 옮기어 놓다. 「4」 말문을 열다. 「5」 부탁이나 요구 따위를 거절하다. 「6」 버릇이나 병 따위를 고치다. 「7」 아기를 유산시키다. 「8」 배우던 것을 끝내다. 「9」 <u>성장의 초기 단계로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그치다. ❶것을 떼다./이유식을 떼다.</u> 「10」 수표나 어음, 증명서 따위의 문서를 만들어 주거나 받다. 「11」 권리를 없애거나 직위를 그 만두게 하다. 「12」 화투로 점 따위를 치다. ❶하도 심심해서 화투나 떼고 있던 참이다.	뜻풀이 추가
상생 ⁰³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는 목(木)과, 목은 화(火)와, 화는 토(土)와, 토는 금과 조화를 이룬을 이르는 말.	「1」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는 목(木)과, 목은 화(火)와, 화는 토(土)와, 토는 금과 조화를 이룬을 이르는 말. 「2」 <u>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❶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갖춘 사람만이 그 조화로움으로 이 세상에 {상생의} 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최명희, 혼불》</u>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새벽	「2」 《이른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 앞에 쓰여》'오전'의 뜻을 이르는 말.	「2」 《주로 자정 이후 일출 전의 시간 단위 앞에 쓰여》'오전'의 뜻을 이르는 말.	문법 정보 수정
식 ⁰⁴	[11] 「의존 명사」 일정하게 굳어진 말투나 본새, 방식. 「1」 그렇게 농담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사내는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나마 그를 상대해 주고 있는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이청준, 잔인한 도시》	[11] 「의존 명사」 《관형사형 다음에 쓰여》 일정한 방식이나 투. 「1」 그렇게 농담하는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사내는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나마 그를 상대해 주고 있는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이청준, 잔인한 도시》	뜻풀이 수정
어미 ⁰¹	「1」 '어머니 ⁰¹ 「1」'의 낮춤말. 「2」 '어머니 ⁰¹ 「2」'의 낮춤말. 「3」 결혼하여 자식을 둔 딸을 이르는 말. 「4」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내인 며느리를 이르는 말. 「5」 자녀를 둔 남자가 웃어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6」 손자나 손녀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7」 친부모나 장인·장모 앞에서 자기 아내를 이르는 말. 「8」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1」 '어머니 ⁰¹ 「1」'의 낮춤말. 「2」 '어머니 ⁰¹ 「2」'의 낮춤말. 「3」 결혼하여 자식을 둔 딸을 이르는 말. 「4」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내인 며느리를 이르는 말. 「5」 자녀를 둔 남자가 웃어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6」 손자나 손녀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7」 친부모나 장인·장모 앞에서 자기 아내를 이르는 말. 「8」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9」 새끼를 낳은 암컷. 「1」 <u>늑늑하기는 해도 어찌나 포근하고 아늑한지, 알을 안은 어미 닭의 앞가슴 털 안에 파묻힌 세상 같았다. 《정연희, 소리가 짓는 동지》</u>	뜻풀이 추가
저녁내	「명사」 이른 저녁부터 밤이 될 때까지의 동안.	「부사」 이른 저녁부터 밤이 될 때까지의 동안.	품사 수정
전방위	-	전방위(全方位) 「명사」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침을 이르는 말. 「1」 전방위 교역/전방위 수사.	표제어 추가
초롱 ⁰²	초롱 ⁰² (-) '등롱'을 달리 이르는 말. 등롱 안에 주로 촛불을 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초롱 ⁰² (-籠) '등롱'을 달리 이르는 말. 등롱 안에 주로 촛불을 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어 수정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페미니스트	「1」 여권 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뜻풀이 수정
페미니즘	사회·정치·법률 면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의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피해 ⁰¹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따위를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 줌. ❶흥행에 성공하다/흥행에 실패하다/좀 더 일찍 변해 가는 시대에 적응해서 곡예를 현대화시키는 일을 추진했다면 흥행이야 나아질 수는 있었겠지. <<한수산, 부초>>	「1」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따위를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 줌. ❶좀 더 일찍 변해 가는 시대에 적응해서 곡예를 현대화시키는 일을 추진했다면 흥행이야 나아질 수는 있었겠지. <<한수산, 부초>> 「2」 공연 상영 따위가 상업적으로 큰 수익을 거둠. ❶흥행에 성공하다/흥행에 실패하다.	뜻풀이 추가